

---

2011

『시민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지원사업』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

---

2011

『시민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지원사업』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

**발행인**

박재은

**발행일**

2012.02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사회교육팀장 김태연

사회교육팀 김재순

**등록**

KACES-1121-R006

**문의**

Tel. (02)6209-5900

Fax. (02)6209-5999

E-mail. [contact@arte.or.kr](mailto:contact@arte.or.kr)

[www.arte.or.kr](http://www.arte.or.kr)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

#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11 시민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지원사업」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2월

---

## 연구진

### 책임연구원

이채관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 대표

### 공동연구원

정형탁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이사

김정연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사무국장

### 보조연구원

김혜란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 팀장

최미영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 대리

### 연구컨설턴트

이광준 바람부는연구소 대표

임정희 연세대학교 교수

이영범 경기대학교 교수

한영미 사회적기업 오요리 대표

##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목차

---

<b>I.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배경</b>	<b>1</b>
1. 정책 배경	3
2. 사회·문화적 필요성	4
<b>II.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개요</b>	<b>7</b>
1. 전략개발 목표	9
2. 연구 범위 및 내용	10
3. 연구 일정과 내용	12
4. 연구진 구성	14
<b>III.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진행 결과</b>	<b>15</b>
1. 유사사업 현황 분석	17
2. 시민문화공간 대상 유사사업 현황	18
3. 유사사업 분석 및 시사점	21
4. 국내외 시민문화공간 사례	24
5. 시민문화공간 그룹 인터뷰	26
6. 시민문화공간 발전 유형	36
<b>IV. 시민문화공간 지원 전략</b>	<b>41</b>
1. 시민문화공간 개념	43
2. 정책 포지셔닝	46
3. 지원 전략	49
4. 지원 내용 및 방향	54
5. 지원 방식 예시	56
6. 시민문화공간 선정 기준	57
7. 2012년 사업 설계	58
8. 사업 추진 체계	60
9. 추진 일정	62
별첨자료 1 국내외 시민문화공간 사례 분석	63
별첨자료 2 연구진(컨설턴트) 회의록 정리	137
참고문헌	141

---

# 표목차

---

〈표 II-1〉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연구 일정	12
〈표 III-1〉 시민문화공간 관련 유사사업 목록	17
〈표 III-2〉 국내외 시민문화공간 사례	25
〈표 IV-1〉 시민문화공간의 개념과 목표	44
〈표 IV-2〉 시민문화공간 정책 포지셔닝	49
〈표 IV-3〉 시민문화공간 지원 전략	50
〈표 IV-4〉 목표 유형 구분 및 설명	51
〈표 IV-5〉 단계별 지원	52
〈표 IV-6〉 컨설팅단의 역할	55
〈표 IV-7〉 시민문화공간 선정 기준	57
〈표 IV-8〉 추진 주체별 역할	60
〈표 IV-9〉 추진 일정	62

---

# 그림목차

---

〈그림 1〉 삼덕동 마을 만들기 운동 흐름도	75
〈그림 2〉 Cafe Columbia 홈페이지 소개글	99
〈그림 3〉 고인류학자 William Harcourt-Smith 의 Secret Science Club 강연	100
〈그림 4〉 The Public School 강의 설립 프로세스	102
〈그림 5〉 The Public School 강의 제안 게시판	102
〈그림 6〉 Moonlighter Presents 강연 스케줄	105
〈그림 7〉 Moonlighter Presents 강연	105
〈그림 8〉 Proteus Gowanus 외관	107
〈그림 9〉 Proteus Gowanus 전시·체험	108
〈그림 10〉 Brooklyn Brainery 외관	109
〈그림 11〉 Brooklyn Brainery 강의실	110
〈그림 12〉 Home Food 현장	111
〈그림 13〉 Pathways 청소년 프로그램 배너	112
〈그림 14〉 Conflict Kitchen ‘Skype Dinner’(피츠버그시-테헤란)	113
〈그림 15〉 Conflict Kitchen 음식 포장지	114
〈그림 16〉 Conflict Kitchen 테이크아웃 음식	114
〈그림 17〉 Conflict Kitchen 외관	114
〈그림 18〉 Park Here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116
〈그림 19〉 Park Here의 Private 행사	116
〈그림 20〉 Park Here 외관	116
〈그림 21〉 Park Here의 문화예술 공연	117
〈그림 22〉 Park Here의 벤치에서 커피와 스낵을 즐기는 이용자들	117
〈그림 23〉 Park Here의 식료품 판매 코너	117
〈그림 24〉 시부야 대학 네트워크 프로그램 진행 모습	128
〈그림 25〉 카페 슬로 식료품점	130
〈그림 26〉 카페 슬로 공연	131
〈그림 27〉 Idea Store의 ‘Chrisp Street’ ‘White Chapel’	135
〈그림 28〉 Idea Store 내부 모습	136
〈그림 29〉 Idea Store 내부 모습	136
〈그림 30〉 Idea Store 외부 모습	136



## □ 연구 목적 및 의의

### 1) ‘시민’ 개념의 정립을 통한 문화정책의 확대

-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지역재생, 공간재생, 공동체 활력을 만드는 시민 창의성의 개발을 목표로 하며, 시민창의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상으로 설정한다.
- 시민문화공간에서 ‘공간’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기획한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넓은 의미의 장소로서 시민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의 거점이 된다.

### 2)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혁신적 방법 구상

- 문화예술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계로 드러난 형식적, 위계적, 비효율적 측면을 혁신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주도의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서울어젠다3’에 조응하는 “사회문제에 포괄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개발한다.

### 3) 문화예술교육 2.0의 새로운 모델 개발

- 문화생산 주체로서의 시민, 문화자원으로서의 시민 창의성, 그리고 문화 자원이 가치로 전환되는 장소 또는 커뮤니티로 존재하는 시민문화공간에 주목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은 사회구성원(시민)이 지닌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문화자원의 발굴, 유지, 보호, 운용을 시민문화공간과 결합하여 진행한다.

---

#### 4) 창의성의 중심 범주로서의 시민문화예술교육

- 생활세계를 통하여 전일성과 관계성을 경험하는 시민에게 내재된 잠재적 경험은 창의성의 원천이 된다. 즉,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행동에 관한 책임감, 주인의식, 신뢰 등이 문화예술교육 영역과 교섭되어 창의적 활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 시민의식은 국가, 지역공동체, 다수그룹, 소수그룹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집단적 자아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의미하므로, 시민의식 성장의 지표로 나타나는 시민문화공간은 시민의 창의적 행동의 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 □ 연구 방법 및 내용

####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본 연구는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시민 대상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그 중 특화된 문화공간의 주체역량과 조직체계 그리고 필요와 요구들을 살핀다.

#### 2) 연구의 시간적 범위

- 본 연구는 기존 유사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문화공간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추진원칙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모델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유사사업 뿐 아니라 여타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유사사례를 분석한다.

#### 3) 주요 연구 내용

- 기존 유사사업 사례 분석
-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문화공간 실행전략 개발

---

## 4) 연구 방법

- 유사 정책사업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의 정책 목표와 지원 체계 및 방향성을 분석한다.
- 사례조사와 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시민문화공간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공간전략 및 지원전략을 도출한다.
  - ① 선행 연구자료 검토 :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례 조사 분석
  - ② 국내외 시민문화공간 운영 사례 조사
  - ③ 가설적 분석 모델 설정
  - ④ 전문가 자문회의, 세미나, 워크숍 : 사업추진체계, 공모방식, 지원 대상 등 구체적인 방안 수립
  - ⑤ 시민문화공간 운영 사례 FGI 실시

## □ 연구 결과 및 제언

### 1) 지원 전략 및 방향

- 문화정책은 1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플랜이어야 한다. 이에 각 부처에서 시행되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했던 기존 정책과 세 가지 차별성이 있는 정책 포지셔닝을 제안한다.

### 2) 지원 대상 차별화

- 기존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예술가나 문화기획자 지원이었다면 본 사업은 시민이 직접 지원의 주체가 된다. 일반 시민, 전문가나 문화예술교육 관련자가 하나의 주체로 시민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민문화공간을 지원한다.
  - ① 자생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공성에 기반 한 시민 주도 공간 지원
  - ② 시민 공동체의 관계망에 기반한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해온 단체 우선 지원
  - ③ 시민 주도로 재원을 형성한, 즉 출자, 회비, 기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 우선 지원

---

### 3) 공간개념 차별화

○ 기존 타 정책사업의 경우 유희공간 혹은 공공시설 기반의 “공간”을 조성하는 지원, 공간에서 운영될 “프로그램” 지원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배제되어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시민문화공간에서 “공간”은 물리적 공간, 시설 인프라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일 공간, 물리적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공공장소(전통시장, 공원), 관계망 네트워크, 문제 해결 모델까지 포함할 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공공적 영역까지 포함한 공간 개념이다. 발전 유형에 따라, 이러한 공간을 생성해가고 육성해가는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장소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① 문화기반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운영 공간은 가급적 배제
- ② 생활권 기반 공간,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시민문화예술교육을 탐구하고, 성장시켜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단체 우선적 지원
- ③ 2단계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할 경우에는 공간조성 비용 지원 가능

### 4) 프로그램 차별화

○ 평생교육이나 주민교육이나 직업교육은 대부분 교육형, 아카데미형 프로그램 지원이다. 이러한 지원은 자생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시민문화공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렵고, 프로그램의 질 또한 취미 활동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① 시민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시민적 창의를 개발하는 콘텐츠 개발 사업 지원
- ② 아카데미 혹은 교육형 프로그램보다는 공동체 필요 프로그램 혹은 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지원
- ③ 특정 계층이 중심이 되기보다 시민 개념으로 소수자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지원

---

## 5) 콘텐츠 개발 지원 : 문화자원 발굴 및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구체적인 시민역량과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과정 자체를 기초로 하여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전문가, 시민-시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한다.
  - ① 시민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② 문화자원 아카이빙 지원
  - ③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인력 지원

## 6) 공간운영 전략 개발 지원 : 시민문화공간 전략 및 포맷 개발

- 자기 진단과 분석을 통해 전략적 방향 수립과 포맷을 개발한다. 사업 주체 스스로 구성한 컨설턴트 또는 전문가와 사업 전략을 개발(단, 중앙 정부 컨설팅단은 단체가 구성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운영)한다.
  - ① 사업 수행자가 실질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과 자원을 연결하고, 지자체와 사업 수행자의 지속적인 연결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② 전문가 네트워크 및 재원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식 설계 지원
  - ③ 단체 운영 공간 전략개발 지원

## 7) 공간 활성화 지원

- 시민문화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간접적 요구와 필요를 지원한다.
  - ① 공간 활성화를 위한 매체 개발(홈페이지, 인쇄물 등)
  - ② 공간 구성 지원(리노베이션 혹은 운영 효율화 지원)
  - ③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 Abstract

---

## □ Purpose and Meaning of the Research

### 1) To expand the cultural policy through establishment of ‘public’ concept

-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public is aiming the development of public creativity that creates local revival, space revival and community vitality and has a goal to be developed by public creativity.
- Culture and arts space for public is the ‘space’ where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 for public is operated and it is the foundation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public.

### 2) To come up with innovative way to socially expand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 Limitations were faced as culture and art education has expanded quantitatively, therefore, this research is to suggest creative directions for public-led culture and art education that can innovatively solve formality, hierarchical and insufficient problems.
- To develop support strategies to implement a new goal,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at contributes on social integration with comprehensive interest in social problems, which is a new direction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at corresponds to ‘Seoul Agenda 3’

---

### 3) To develop new mode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 2.0

- Develop a new mode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by focusing people as the subjects of cultural production, public creativity as the cultural resources, culture and arts spaces as a place to reveal the value of cultural resources and as a process of community activity.
- All public supports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should be changed; must cherish the intangible cultural resources that society (citizens) has.
- In order for citizens to make sustainable society, they must combine and work with culture and arts space for public to excavate, maintain, protect and operate public cultural resources.

### 4) To develop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public based on the creativity

- The potential of experiences that are inherited in the citizens, who are experiencing unity and relationships in their daily life, is the source of creativity. In other words, the responsibility, sense of ownership and trust on our ideas and behaviors can be a creativity activity when it is related with culture and arts education.
- Public awareness means the individual's responsibilities on group ego, which exist in a nation, community, big group or small group, therefore, the culture and arts space for public shown on the indicator of public awareness growth will be the base of public's creative behaviors.

---

## □ Research Method and Contents

### 1) Spatial scope of the research

-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good cases of culture and arts spaces for public and to find out the capabilities of specific cultural space, organizational system and their needs and demands.

### 2) Temporal scope of the research

-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imilar projects to suggest and to develop a model for operation principles, strategies and direction of culture and art educations in local cultural spaces.
- Analyze the similar projects that are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r organizations in other countries.

### 3) Main topic of the research

- Analysis of similar projects
- Develop execution strategies of culture and arts space for public to activate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public

### 4) Research method

- Analysis of similar policies: analyze the goal, support system and direction of policies of similar project that are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Ministry of Land.
- Find out the current condition of culture and arts space for public through case studies and FGI(Focus Group Interview) and extract spatial strategies and support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model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public

- 
- ① Review previous research data: research and analyze the previous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public
  - ② Research the similar culture and arts space for public in other countries
  - ③ Develop hypothetical analysis model
  - ④ Expert consultations, seminars and workshops: Establish specific measures such as business propulsion system, competition method, subjects for supports, and etc.
  - ⑤ Conduct FGI on operation of culture and arts space for public

## 5) Research schedule

- Configuration of consulting team
- Help the understanding and discuss the need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public and development of strategy for Culture and arts space for public
- Research the similar cases in other countries
- Develop hypothetical analysis model based on the case
- Research the needs and request of individual or groups working on culture and arts space for public through FGI
- Derive the type of goal
- Establish support strategies for culture and arts space for public

## □ Research Results and Recommendations

### 1) Strategies and Directions for the Supports

- The cultural policy should be a long-term plan thinking about 10 years and 100 years. Therefore, we suggest three policy positioning strategies that are different with the current policy that has been implemented by departments o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

## 2) Differentiation based on the target of the support

○ If the current culture and arts education is supporting artists or culture producer, the beneficiary of this project will be the entire public. This is a culture space for public that creates an environment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s for public by participation of general public but as well as professional art educators.

- ① Support a public-led space based on indigenous, independence and public interest
- ② Support the community group that has been practicing ordinary culture and arts activities for the public
- ③ Support the public-led spaces that are operated by contributions, membership fees and donations

## 3) Differentiated concept of space

○ Most of the other existing policy projects supports configuration of unused and misused spaces or public-facility ‘spaces’ or supports ‘programs’ that will be operated in the space. Therefore, the public participation is limited and so is sustainability. In culture and arts space for public, ‘space’ does not mean physical space or facility infrastructure. Beyond the simple concept of physical space, it includes public places (traditional market, part), network, problem solving model and as well as psychology, social and public spaces. The goal is to make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public based on the type of development and to expand it nationally.

- ① Exclude cultural facilities or spaces owned by local governments
  - ② Support the group that is studying and expanding the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public based on the living space and community through various efforts
-

- 
- ③Can support the cost of space configuration if it matches of 2<sup>nd</sup> stage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local government

#### **4) Differentiated program**

- The continuous education or vocational trainings are mostly academic programs. Through these programs, the activation of public cultural spaces through a network is impossible and the quality of the program will also remain as a hobby, so it will not meet the needs and desire of public.
  - ①Support the development of content, which develops public creativity based on the cultural resources
  - ②Support community program or problem solving programs rather than academic programs
  - ③Support programs for small groups rather than specific group

#### **5) Content development support: support the identification of cul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of creative program**

- By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culture education program for public based on the process of excavating the specific public skill and cultural resource, support implementation of high-quality culture education program.
  - ①Support development of contents for culture and arts education for public
  - ②Support cultural resource archiving
  - ③Support professional program personnel for culture education for public

---

## 6) Strategy development support: establish strategies and develop format of cultural spaces for public

- Establish strategic direction and develop a format through self-diagnosis and analysis. The project should develop project strategy with their own consultant or experts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consulting group will operate workshops for the consultants).
- ① Provide the resources so the project implementer can have solid foundation and continuously support project planners
- ② Supports directions through establishment of reasonable configuration of professional network and resource portfolio
- ③ Provide consulting
- ④ Support development of strategies for operation of space for groups

## 7) Space utilization support

- Support operation of activating the cultural spaces for public or fulfill the indirect request or need of software.
  - ① Develop a media for utilization of space (homepage, printed materials, and etc.)
  - ② Support space configuration (renovation or operation efficiency supports)
  - ③ Establish local network and etc.
-



---

# I.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배경

---

1. 정책 배경
2. 사회·문화적 필요성



---

# I.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배경

---

## 1. 정책 배경

### (1)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채택된 ‘서울어젠다’에 맞춘 정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2010)’를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발전 목표로 「전 국민 평생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시민문화예술교육에 맞는 정책 추진 방법 및 실행 방식 개발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5월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에 발표된 ‘2011 문화예술교육 정책 비전’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을 기존의 학생들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 계층을 문화예술교육정책 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 (3) 사회 통합을 위한 시민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대두와 실질적 실행전략 부재

1) ‘2011 문화예술교육 정책 비전’에서는 “사회문제에 포괄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기여” 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였다.

- 2) 문화예술이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교육적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주체와 실행방식 그리고 실행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 **(4)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의 확대 필요**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에 초점을 맞춘 학교문화예술교육,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사회문화예술교육 등 특정대상에 맞추어 추진되었던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을 지역주민, 더 나아가 시민 전체로(주부, 청년, 직장인 등 일반시민)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2. 사회·문화적 필요성**

### **(1) 자생적 시민 주체 시민문화공간의 증가**

- 1) 자생성 기반의 다양한 공간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반면, 기존의 시민문화 예술교육 지원 정책은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시민문화 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2) 자생성과 주체성이 시민문화예술교육의 핵심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시민 주체 형성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부재하다.

### **(2) 문화예술교육 생산자이며 소비자(Prosumer)인 ‘시민’의 중요성 증가**

-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중앙 공급을 지양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예술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 2) 문화예술교육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의 ‘시민’ 양성이 필요하며, 소비자(Prosumer)로서의 시민 주체 형성이 요구된다.

### **(3)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지역사회 연계 전략 수립 필요성 증가<sup>1)</sup>**

- 1)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사회의 문화와 접속, 통합, 작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 2)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은 시민문화공간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1)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박영정, 2010.



---

## II. 시민문화공간

# 전략개발 사업 개요

---

1. 전략개발 목표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 일정과 내용
4. 연구진 구성



---

## II.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개요

---

### 1. 전략개발 목표

#### (1) ‘시민’ 개념의 정립을 통한 문화정책의 확대

- 1)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지역재생, 공간재생, 공동체 활력을 만드는 시민 창의성의 개발을 목표로 하며, 시민 창의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상으로 설정한다.
- 2) 시민문화공간에서 ‘공간’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기획한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넓은 의미의 장소로서 시민문화예술교육 환경조성의 거점이 된다.

#### (2)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혁신적 방법 구상

- 1) 문화예술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계로 드러난 형식적, 위계적, 비효율적 측면을 혁신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주도의 창의적 문화 예술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 2)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서울어젠다3’에 조응하는 “사회문제에 포괄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개발한다.

#### (3) 문화예술교육 2.0의 새로운 모델 개발

- 1) 문화생산 주체로서의 시민, 문화자원으로서의 시민 창의성, 그리고 문화 자원이 가치로 전환되는 장소 또는 커뮤니티로 존재하는 시민문화공간에

주목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

-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은 사회구성원(시민)이 지닌 유무형의 문화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 3)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문화자원의 발굴, 유지, 보호, 운용을 시민문화공간과 결합하여 진행한다.

#### **(4) 창의성의 중심 범주로서의 시민문화예술교육**

- 1) 생활세계를 통하여 전일성과 관계성을 경험하는 시민에게 내재된 잠재적 경험은 창의성의 원천이 된다. 즉,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행동에 관한 책임감, 주인의식, 신뢰 등이 문화예술교육 영역과 교섭되어 창의적 활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 2) 시민의식은 국가, 지역공동체, 다수그룹, 소수그룹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집단적 자아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의미하므로, 시민의식의 성장지표로 나타나는 시민문화공간은 시민의 창의적 행동의 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 **2. 연구 범위 및 내용**

###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시민 대상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그 중 특화된 문화공간의 주체 역량과 조직체계 그리고 필요와 요구들을 살핀다.

#### 2) 연구의 시간적 범위

- ① 본 연구는 기존 유사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문화공간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추진원칙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모델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유사사업뿐 아니라 여타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 유사사례를 분석한다.

## (2) 주요 연구 내용

- 1) 기존 유사사업 사례 분석
- 2)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문화공간 실행전략 개발

## (3) 연구 방법

- 1) 유사 정책사업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의 정책 목표와 지원 체계 및 방향성을 분석한다.

- 2) 사례조사와 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시민문화공간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공간 전략 및 지원 전략을 도출한다.

- ① 선행 연구자료 검토 :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례 조사 분석
- ② 국내외 시민문화공간 운영 사례 조사
- ③ 가설적 분석 모델 설정
- ④ 전문가 자문회의, 세미나, 워크숍 : 사업추진체계, 공모방식, 지원대상 등 구체적인 방안 수립
- ⑤ 시민문화공간 운영 사례 그룹인터뷰 실시

### 3. 연구 일정과 내용

#### (1) 연구 일정

- 1) 컨설팅단 구성
- 2) 시민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필요성과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 및 논의
- 3) 국내외 사례조사
- 4) 사례에 기반 한 가설적 모형설계
- 5) FGI를 통한 시민문화공간 운영주체(개인, 단체)들의 요구와 필요 조사
- 6) 목표 유형 도출
- 7) 시민문화공간 지원 전략 수립



〈표 II-1〉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연구 일정

#### (2) 연구 진행과정 및 연구 내용

일정	연구 내용
2012년 1월 1주~2주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착수 보고회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컨설팅단 구성

2012년 1월 3주	<p>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1차 전체 컨설팅단 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민문화예술교육과 공간을 연결한 주요 사례 조사(선정 및 분석)</li> <li>2) 시민문화공간의 기준 및 유형 키워드 결정</li> <li>3) 기초조사를 나갈 사례 2~3배수로 선정</li> <li>4) 기초조사 시 분석할 체크리스트 결정</li> <li>5) 지역 및 문화 공간 특성 분석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실시간 조사</li> <li>6) 지역사회, 시민문화예술교육 개념 정리</li> </ol>
2012년 1월 4주	<p>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2차 전체 컨설팅단 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민문화예술교육과 공간을 연결한 주요 사례 밀착 조사 후 선정</li> <li>2) 시민문화공간 사례 FGI 진행 방식 결정</li> <li>3) 컨설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와 체크리스트 완성</li> </ol>
2012년 2월 1주~2주	<p>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FGI 진행 준비 최종 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조사 시민문화공간 체크리스트 컨설턴트별 분류 확인</li> <li>2) FGI 일정별 사례에 대한 전체 확인</li> </ol>
	<p>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FGI 1차 진행 및 3차 전체 컨설팅단 집중 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략개발을 고려해서 시민문화예술교육 공간 유형별로 FGI 진행</li> <li>2) FGI 진행 후, 전체 컨설팅단 회의 (2차 FGI 진행에 따른 체크리스트 재검토)</li> </ol>
	<p>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FGI 2차 진행 및 4차 전체 컨설팅단 집중 회의(10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략개발 고려한 시민문화예술교육 공간 유형별로 FGI 진행</li> <li>2) FGI 진행 후, 전체 컨설팅단 회의 (유형별 사례 FGI로 인한 결과를 통해 전략개발 도출 논의)</li> </ol>
2012년 2월 3주	<p>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결과 도출 정리 및 FGI 3차 진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민문화공간 FGI 진행 내용 정리 후, 도출 및 추가 FGI 진행</li> <li>2)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보고서 작성</li> </ol>
2012년 2월 4주	<p>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5차 전체 컨설팅단 회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개념 정리</li> <li>2)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도출 디자인화</li> <li>3)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보고서 작성 최종 논의</li> </ol>

## 4. 연구진 구성

(1) 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 생활문화공간 관련 전문가를 연구컨설턴트로 구성하여, 시민문화예술교육의 문화 환경에 접근하는 사례 추천, 인터뷰, 분석회의, 종합결론 도출의 과정으로 전략개발을 추진하였다. FGI 과정을 인터뷰 방식과 컨설팅 방식을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2) 본 연구 사업의 연구진은 ① 시민문화공간 전략 수립 ② 지원사업 실행에 따른 컨설팅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3) 연구진

#### 1) 책임연구원 (컨설턴트)

이채관((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대표) : 공공문화, 조직경영, 문화기획 전문가

#### 2) 공동연구원 (컨설턴트)

정형탁((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이사) : 공공문화, 미술문화, 예술학

김정연((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사무국장) : 공공문화, 문화기획 전문가

#### 3) 보조연구원

김혜란((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팀장) : 공공문화, 문화기획 전문가

최미영((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대리) : 공공문화, 문화기획 디자인 전문가

#### 4) 연구컨설턴트

이광준(바람부는연구소 대표) : 문화예술교육, 창작공간, 커뮤니티아트 전문가

이영범(경기대 교수) : 도시공간, 생활공간, 문화도시 전문가

임정희(연세대 교수) : 시민자치, 시민문화, 일상미학 전문가

한영미(사회적기업 오요리 대표) : 사회적기업, 생활문화 전문가

---

# III.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진행 결과

---

1. 유사사업 현황 분석
2. 시민문화공간 대상 유사사업 현황
  3. 유사사업 분석 및 시사점
  4. 국내외 시민문화공간 사례
  5. 시민문화공간 그룹 인터뷰
  6. 시민문화공간 발전 유형



# III.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진행 결과

## 1. 유사사업 현황 분석

### (1) 분석의 필요성

- 1) 시민문화공간 관련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뿐 아니라 유관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2)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정책적 차별화 전략과 기존 유사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3) 시민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시민 생활영역으로 확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을 위해 유사사업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성공적 지원전략을 마련한다.
- 4) 시민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사업과의 차별화 및 하드웨어 중심의 공간조성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 주체		사업명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의집 조성 사업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원 역사마을 조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주민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전주시	전주시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 조성사업
	서울시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 사업

〈표 III-1〉 시민문화공간 관련 유사사업 목록

## 2. 시민문화공간 대상 유사사업 현황

### (1) 문화체육관광부

#### 1)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

사업 목표	사업 선정 기준	지원 규모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문화공간 조성</li> <li>저소득인구밀집지역 지원</li> <li>전국 문화소외지역 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공간조성의 타당성</li> <li>신청자의 공간 조성 및 운영 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유휴공간 리노베이션 90%, 프로그램 운영 10% 지원</li> <li>4개년(2004~2007년)간 총 91억 원 예산</li> </ul>

#### 2)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지원 규모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구심점 역할</li> <li>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같이 운용(2004~2007년), 문예진흥기금 평성운용(2008년), 국고 지원사업 운용(2009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시설 유휴공간 리모델링</li> <li>문화소외지역과 열악한 환경의 공사립문고(새마을 문고 포함)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4~2008년까지 전국 224개소 조성, 2009년 61개소 모두 35억 원 지원</li> </ul>

#### 3)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지원 규모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공급자 중심 지원정책 원칙)</li> <li>생활 속의 문화환경 조성(향유자 중심 지원정책 원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이 아닌 지역공동체 지원</li> <li>문화예술단체의 지역주민·활동가와의 협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2010년 문예진흥기금 중 복권기금을 통한 지원사업 9개 중 하나로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li> </ul>

## (2) 농림수산식품부

### 1)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지원 규모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용 시설 등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주민과 도시민 등 교류, 개발</li> <li>활용도 낮은 시설을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 및 네트워크</li> <li>역사문화자산 발굴, 주민의 문화역량 위한 휴먼웨어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마다 3년간 30억 원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li> <li>2009~2011년 단계별 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년까지 6개 시군의 역사, 자산 보존</li> <li>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지역예술인의 공연장, 방과후 어린이학교 등 리모델링 후 교류 및 여가공간 조성</li> </ul>

## (3) 행정안전부

### 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지원 규모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자원 활용해 특색 있는 도시와 농산어촌 등이 협력해 재설계, 재창조</li> <li>네 가지 목표 : 지역공동체를 공간의 질 제고,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형성, 소득 기반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도적 지원 : 재정투융자 및 계약제도 융통성 부여</li> <li>재정적 지원 : 정책패키지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li> <li>전문성 강화 지원 : 매뉴얼 보급 및 컨설팅 지원, 사후관리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 2007~2009년 총600억 원 지원</li> <li>정책패키지 지원 : 지역별 평균 6~7개, 39억 원 지원</li> </ul>

## (4) 지자체(전주시)

### 1) 작은 생활문화 복지공간 조성사업

사업 목표	사업내용	지원규모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동사무소 유휴시설 활용한 생활문화 복지공간 확충</li> <li>대화방, 공부방, 도서관, 박물관, 전시장 등을 활용한 문화복지 욕구 충족, 문화향수 기회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동사무소 및 기존 시설 활용한 생화복지 문화공간 확충</li> <li>생활권역별 문화복지공간 조성해 자유롭게 이용할 기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6년부터 4년 간 59억 7백만 원 지원. 총 24개 공간 조성</li> <li>지역의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효과 극대화시킨 대표적 사례</li> </ul>

## (5) 타 문화공간 사업

### 1) 평생학습도시

공간 분석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 국가평생교육센터 (연구소, 연구원, 정보센터)</li> <li>• 광역시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연수)</li> <li>• 시군구 : 평생학습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 기관 간, 지역 간, 기관 간 네트워크 미약</li> <li>• 지역주민 학습참여도 높음</li> <li>• 지역의 타 기관들과의 연계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 위한 취미, 교육, 예술 프로그램 위주</li> <li>• 방학 기간 청소년 취미, 교육, 예술 프로그램 운영</li> </ul>

### 2) 문화의 집

공간 분석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시설</li> <li>• 지역 기반 시설보다 문화학원으로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수혜자, 시혜자(강사, 전문가)의 공개모집 통한 비자발적 참여</li> <li>• 교육기간이 한시적이며 제한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5일 수업제 대비 소외학생 대상 프로그램 위주</li> <li>• 전통문화체험/취미활동/교양강좌 등 기존 학교 예술교육 프로그램 수준</li> </ul>

### 3) 주민자치센터

공간 분석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내 프로그램 운영방식</li> <li>• 문화·복지를 위한 일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 행정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들의 내적 네트워크 강하나 지역주민, 지역기관과의 연계는 낮음</li> <li>• 청장년, 노년, 여성 등 교육 대상이 구분되어 세대 간 네트워크 기회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미와 에어로빅 등 여가 관련 프로그램 위주</li> <li>• 여성(특히 가정주부)의 프로그램 참여가 대부분</li> </ul>

### 3. 유사사업 분석 및 시사점

#### (1) 분석

##### 1) 공간 운영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움

- ① 삶의 거점이 되거나 일상적인 교류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② 시민 교육의 공동체적 가치보다는 취미와 기술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 되는 경우가 많았다.
- ③ 공간의 활용 빈도는 높으나 공간에 대한 문화적 애착이 적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좀 더 삶과 밀착된 공간으로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④ 자생성이 낮고, 공간에 대한 몰입도가 부족하다.
- ⑤ 공적 유희공간 활용이라는 측면에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 공간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2) 수혜자 층이 일부분에 한정됨

- ①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 타 기관과의 매체 및 프로그램 연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②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주로 여성과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 특히 직장인 남성의 참여가 현저히 적어 이들이 생활 주체로 간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취미 활동 수준의 프로그램

- ① 기존 시민문화 활동 프로그램은 취미·여성·청소년 등 한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동체의 관계망이 형성되기 어렵다.
- ② 프로그램이 취미 활동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적극적인 공동체 프로그램이 취약하다.
- ③ 영국의 스쿨오브라이프(The School of Life)와 같은 심리적, 주체적, 비가시적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 관리 중심의 운영 주체

- ① 프로그램 운영자의 주체화 과정과 몰입도가 부족하여, 지원이 끊기거나 수강료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공간 기능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
- ② 자생성에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자의 헌신성 부족을 가져올 수 있다.

## (2) 시사점

- 1) 자기 주체성과 주도성 그리고 공동체 헌신성에 기초하지 않은 공간은 공적 지원에 의존하는 비독립적 공간에 머물 가능성 높다. 따라서 시민문화 예술교육 전략은 시민의 주체화를 가장 우선에 두고, 프로그램의 질과 공동체 활력 그리고 생활공간으로서의 시민문화공간에 보다 집중할 필요 있다.
- 2) 기존 사업들은 국가나 지자체 (유희)공간 이용을 목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일상성과 공동체성을 추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애착(attachment)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공간 운영에 있어 한계가 된다.
- 4) 보다 사적이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시민문화공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거장(터미널) 역할을 하는 클럽, 레스토랑, 카페, 인터넷 잡지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토론방, 상점, 주민 교육장, 작업장, 공방 등을 포함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분위기를 지닌 공간으로서 시민문화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 5) 시민문화공간은 일상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서로 다른 경험을 교류할 뿐 아니라, 정보가 소통되고 토론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이 축적되고 그로 인해 유발된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유지해 가는 곳을 의미한다.
- 6) 시민문화공간 전략은 ① 시민의 주체화 정도 ② 프로그램의 질과 관계의 지속성 ③ 자생성과 자발성 ④ 프로그램의 공동체적 공공성 ⑤ 공간에 대한 주체의 헌신성과 애착의 밀도를 지닌 공간을 일차적 대상으로 삼는다.

### (3) 차별화 전략

#### 1) 지원대상 차별화

시민이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이자 제공자로서 기능하는 시민문화공간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 주도의 자생성 기반 공간을 지원할 전략이 필요하다.

- ① 자생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공성에 기반한 시민 주도 공간 지원
- ② 시민 공동체의 관계망에 기반한 일상적 시민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해온 단체 우선 지원
- ③ 시민 주도 공간 중심의 지원 : 출자, 회비, 기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 우선 지원

#### 2) 공간개념 차별화

기존 유사사업의 경우 유희공간 혹은 공공시설 기반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시민 참여가 배제되어 운영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문화공간은 시민 주도의 주체성 발현 공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① 공공 재원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공간, 공공 소유 공간 지원은 가급적 배제
- ② 생활권 기반 공간, 공동체에 뿌리를 둔 시민문화공간 우선 지원
- ③ 단일 공간, 물리적 공간의 개념을 넘어 공공장소(전통시장, 공원), 관계망 네트워크, 문제 해결 모델 등을 포함한 심리적·사회적·공공적 영역까지 포함한 공간 개념

#### 3) 프로그램 차별화

기존 유사사업의 경우 교육형, 아카데미형 프로그램 지원이 대부분이라 자생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시민문화공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프로그램의 질 또한 취미 활동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① 기존 사례 공간 프로그램은 중앙 배급형인 경우가 많음
- ② 시민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생성해가는 프로그램 사업 지원
- ③ 아카데미 혹은 교육형 프로그램보다는 공동체 필요 프로그램 혹은 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지원
- ④ 학생과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시민’ 대상 프로그램 지원

## 4. 국내외 시민문화공간 사례

본 연구에서는 47개의 국내외 시민문화공간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진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각 사례별로 조직 구성 방식과 운영체계, 그리고 재원 조달 방식 등의 차별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개별 사례 공간들의 가치지향점과 시민 주체화의 정도, 프로그램 조달 및 운영방식 등은 아주 상이하게 나타났다. 사례 조사를 기반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시민문화공간의 내용 및 지표를 도출하여, 앞으로 시민문화공간이 지향해야 할 가설적 모형 설정하였다.

구분	지역	단체명
국내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방촌 게스트하우스 빈집</li> <li>• 체화당</li> <li>• 카페 슬로비</li> <li>• 북소사이어티</li> <li>• 카페 작은나무</li> <li>• 맹산생태학습원(성남환경지도자협의회)</li> <li>• 민중의집</li> <li>• 가제트공방</li> </ul>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티나무 도서관</li> <li>• 별자리 작은 도서관</li> <li>• 정배마을 분교</li> <li>• 장미도서관</li> <li>• 도토리 미디어 사랑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센터</li> <li>• 칠보산 도토리 교실</li> <li>• 땀뽕이책방</li> </ul>
	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공동체 흥동마을</li> </ul>
	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부시장 하늘정원</li> <li>• 노송동 어울터</li> </ul>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삼덕동 마을 만들기 운동</li> </ul>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디고서원</li> </ul>
국외	북아메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fes Columbia</li> <li>• Secret Science Club</li> <li>• The Public School</li> <li>• Nerd Nite</li> <li>• Moonlighter Presents</li> <li>• Proteus Gowanus</li> <li>• Brooklyn Brainery</li> <li>• Open City Dialogue</li> <li>• Conflict Kitchen</li> <li>• Park Here</li> </ul>
	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ational Arts Council(싱가포르)</li> <li>• Shanghai Grand Theatre(SGT)</li> <li>• Shanghai Concert Hall(SCH)</li> <li>• Rockbund Art Museum(RAM)</li> <li>• 시부야 대학</li> <li>• 카페 슬로</li> </ul>
	오세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thways</li> </ul>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me Food</li> <li>• Volkshoschule(VHS)</li> <li>• 독일의 인생보조</li> <li>• 핀란드 아난탈로</li> <li>• 우파파브릭</li> <li>• 공중전화박스 재활용(영국)</li> <li>• 도서관 지킴이(영국)</li> <li>• Idea Store(영국)</li> <li>• About The School Of Life(프랑스)</li> </ul>

〈표 Ⅲ-2〉 국내외 시민문화공간 사례

## 5. 시민문화공간 그룹 인터뷰

### (1) 그룹 인터뷰를 위한 6대 지표

- 1) 조직형태와 소유관계 그리고 의사결정방식을 살펴보는 ‘조직 형태와 문화’
- 2) 공간을 이용하는 주요 시민의 현황과 시민 참여를 형성하는 방식 그리고 참여 구성원들의 성별, 연령별 구성 등을 살펴보는 ‘시민 주체화 과정’
- 3)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문성의 여부, 지역자원 활용 여부, 네트워크 여부 등을 살펴보는 ‘프로그램 구성과 성격’
- 4) 공간의 유무와 자원조달방식, 기 소유 혹은 필요로 하는 장비와 기자재, 재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살펴보는 ‘공간 및 자원’
- 5) 공간의 핵심 성장 동력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조건,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살펴보는 ‘지속성 및 네트워크’
- 6) 시민문화공간의 비전과 핵심가치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는 ‘비전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 (2) 그룹 인터뷰 대상 및 인터뷰 결과 요약

시민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10개의 시민문화공간을 발굴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1) 해방촌 게스트하우스 빈집

##### ① 운영 주체

- 공간의 공유와 연대를 기틀로 하는 자치적 생활, 주거 공동체
- 주요 운영자 : 지음, 켄짱, 살구
- 집마다 집사가 있으며, 격주 집사회의를 통해 빈집 간의 소통 창구 역할

## ② 운영 방식

- 빈집 4개, 집마다 7~8명 거주
- 마을카페 1층 위치 약 20평
- 투자금, 활동비 등 자체 충당
- 외부 후원금 없음

## ③ 주요 프로그램

- 해방촌 놀이터 빈가게 : 2010년 10월 공동출자 20여 명
- 사랑방, 동아리, 인권책읽기, 몸살림, 백팔배, 마을극장, 재활용 장터, 등
- 마을카페 : 마을 중심카페 20평, 1층 가게, 마을회관 기능
- ‘해방촌으로 이사오세요. 같이 살아요.’ 공동체 공간 대출 프로그램, 3인 이상의 공동주거, 협동조합 가게, 사회단체 사무실 등
- 해방촌 홈스테이 : 게스트하우스, 홈스테이 중개, 홍보, 컨설팅
- 해방촌 마을금고, ‘빈고’ : 공동체은행

## ④ 인터뷰 결과 분석

- 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기반 시설이 필요하며 사회적기업 등 조직으로써의 체계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민중의집

### ① 운영 주체

- 문화연대가 초기 콘텐츠, 프로그램 역량 등에 크게 기여
- 회원 350명, 단체회원 9개, 운영위원 12명

### ② 운영 방식

- 지역 내 네트워크에 개방적인 편
- 전체 운영의 90%가 회비 수입 운영
- 프로그램 비용은 대부분 재능기부로 운영

### ③ 주요 프로그램

- 토끼똥공부방 : 방과후 공부방
- 숨쉬는 도서관 : 휴먼라이브러리 사업, 아름다운재단 지원
- 시민강좌 : 교양, 생활강좌 등
- 화요밥상 : 초기부터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
- 다정한 시장 : 벼룩시장
- 독립생활자 커뮤니티 : 1인 가구를 위한 삶에 대한 특강, 소모임, 밥상 등 운영

### ④ 인터뷰 결과 분석

- 공공인프라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다.

## 3) 카페 슬로비

### ① 운영 주체

- 청소년, 여성의 성장과 자립으로 출발한 사회적기업
- 카페 이용자들의 주체적 참여 확대

### ② 운영 방식

- 일자리 창출의 목적
- 오가니제이션 요리는 하자센터에서 인큐베이팅된 사회적기업, 청소년, 여성의 성장과 자립이 사업 목적

### ③ 주요 프로그램

- 기본 메뉴 : 제철밥상(그때그때밥상) 등의 식사류, 요리, 주류, 직접 담근 음료, 디저트 류
- 내 끼니 찾기 운동 : 도시인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월식개념의 밥상할인 제도
- 오-라잇 테이블 : 음식과 이야기가 있는 공동의 식탁, 요리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요리할 수 있고, 식구가 될 수 있음
- 농부체험 : 매월 첫째 월요일 경기도 이천 유기농 농가로 농부체험을 감.

슬로비 스텝, 영세프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짐.  
농산물 농가 직거래 확대

- 도시텃밭 : 베란다를 활용한 텃밭 가꾸기
- 에코샵 : 사회적기업, 비영리 단체 등의 재활용, 친환경 상품 판매를 통한 새로운 활로 제시
- 「슬로비 생활」 매거진 제작 : 카페를 둘러싼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 사람의 이야기를 모으는 격월간 잡지
- 공동주방 운영 : 일요일을 활용한 공동주방 운영, 1인 가구, 혼자 사는 도시인들을 위한 식구 되기 프로젝트

#### ④ 인터뷰 결과 분석

- 공간과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을 위한 인력(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 4) 가제트공방

#### ① 운영 주체

- 가제트공방 이광익 씨 포함 8명의 운영 주체, 코어그룹으로 이루어짐
- 주로 직장여성, 전업주부로 구성된 여성들
- 노동, 재능, 육아의 공유, 회원제 공방

#### ② 운영 방식

- 1층 가제트공방 : 목공방
- 2층 카페(공동부엌) : 현재는 대관으로만 운영
- 3층 와글와글작은도서관 : 별개 운영

#### ③ 주요 프로그램

- 텃밭, 목공 목요 워크숍
- 시소와 그네 주관 나눔 베품시장
- 자투리 나무 이용 창작체험
- 엄마와 함께 동행하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품앗이 실시

#### ④ 인터뷰 결과 분석

- 사무, 재무, 회계 운영 능력 보강 필요
-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재진출 기회 마련
- 엄마들의 체계적 교육 시스템 마련 및 목공강사로서의 발전 필요
- 향후 마마스센터 등으로 진화 가능

#### 5) 일상예술창작센터

##### ① 운영 주체

- 초기 홍대 앞 문화작업자들의 자생적 활동을 매개자 그룹이 조직화 해낸 사례

##### ② 운영 방식

- 홍대앞 프리마켓 : 홍대앞 어린이 놀이터
- 2008년부터 생활창작공간 '새끼' 운영 : 10평 이내 주상복합건물 1층
- Key : 프리마켓 작가들이 작품 상설 전시 판매
- 프리마켓 참가자 참가비 : 회당 1만 원, 1년 33회 약 3,400만원, 자체 수익, 기금 수익 등등 연간 약 5,500~6,000만 원
- 현재 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지원 받고 있음

##### ③ 주요 프로그램

- 홍대앞 프리마켓 : 상품 구성(상품(물건) 70%, 음악 등 공연 30%)
- 새끼 : 생활창작, 일상미학연구, 창작관련 교육 모임, 소통 등 참여 작가들이 운영하는 창작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 작가들의 작업공간 제공
- Key : 참여 작가들의 판로

#### ④ 인터뷰 결과 분석

- 올해 키워드를 '혁신' 이라는 방향으로 잡은 만큼 지속가능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문화예술적 감각 능력 확보와 재무 설계 등의 체계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 기획자 부재로 인한 기획능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 6) 성미산 마을극장

### ① 운영 주체

- 4개의 시민단체
- 직원들의 지역 내 거주 비율 60% 정도
- 지역주민 참여에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참여까지 확대해나가는 중

### ② 운영 방식

- 30평 100석 규모
- 지역 내 네트워크 기반 활성화되어 있음

### ③ 주요 프로그램

- 개관 초 외부전문가에 의한 공연 60%
- 현재 지역 주민들에 의한 공연 다수
- 취약계층 프로그램
- 오페라 영화, 단편영화, 영화제, 연극제 등
- 마을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발표

### ④ 인터뷰 결과 분석

-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듯이 주민들에 의한 운영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고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 7) 북소사이어티

### ① 운영 주체

- 2명이 주체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이자 소규모 대안 비즈니스

### ② 운영 방식

- 현재 상수동 10평 규모 서점 운영

- 전시, 공연, 토크 공간으로 사용
- 서점과 출판 수익으로 운영

### ③ 주요 프로그램

- 500부 정도의 소규모 출판
- small pocket
- 다원예술매개공간 'da' , 전시, 공연, 토크
- 해외 북페어 전시 참여, artbook fair(디자인문화재단, 아트선재 후원)
- 스위스, 독일 등 유통업자 초청, 책 만들기

### ④ 인터뷰 결과 분석

- 소수지로서의 보편지대 확보가 필요하다.
- 자주출판, 출판 민주주의 지향 및 확대가 필요하다.
- 사회 안의 약자 배려 및 구조적 지원하는 측면에서 국공립기관의 전체 예산 중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 관련 정보의 아카이빙, 인프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네트워크와 콘텐츠 확대를 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 재무, 회계, 법무 등의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이 요구된다.

## 8) 와우책문화예술센터

### ① 운영 주체

- 기획자, 매개자 그룹으로서의 시민들이 주체
-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참여의 기회 확대

### ② 운영 방식

- 흥대라는 지역성을 강하게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

### ③ 주요 프로그램

- 주요 사업 : 컨설팅, 축제, 공공·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구, 교류&개발사업

- 도서관사업, 와우책시장, 어린이책놀이터, 전시사업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서울 내 72개 도서관을 중심으로 컨설팅 사업, 배영환의 내일을 여는 책방, 컨테이너 활동한 책방 만들기 프로젝트, '책, 예술과 만나다' 등

#### ④ 인터뷰 결과 분석

- 도서관이나 책예술센터 등의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 사회적기업 이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 9) 체화당

#### ① 운영 주체

- 대표자 : 이신형 연세대 명예교수, 신철호 포스닥 대표
- 직원수 : 4 명

#### ② 운영 방식

- 사단법인 풀뿌리사회지기 국제연대 법인 하부 기구
- 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하여 한국과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사라져가는 지역공동체 문화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비영리조직이며 따로 수익을 남기지는 않으며 영업 이익은 매니저 인건비 및 향후 프로젝트 비용으로 사용
- 카페 관련 의사결정은 매니저에게 일임
- 공간 유지비는 카페 자체 수익으로 충당
- 대학생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산학의 교류, 이론과 현장, 지역 커뮤니티 구축·다문화 교류의 장

#### ③ 주요 프로그램

- 마을 음악회: 지역사회 만들기, 지역기관과 개인들의 참여, 지역 상업기관과 여타 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짐
- 체화당학교(계절학교) : 미술학교, 음악학교, 독서학교 등 대안적 교육의 장. 지역사회와 체화당을 이어주는 소통의 다리 역할(독서토론학교, 여름학교

체화당에 나타난 어린왕자, 겨울학교 “자기표현, 환경, 평화, 우리 마을, 책임기 학교” 모모이야기 등)

- 목요 영화제 : 매주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는 모임
- 토요강좌(토강) : 자신이 가진 재주와 관심사를 나누는 자리

#### ④ 인터뷰 결과 분석

-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인력이 필요(자원활동가 포함)하다.
-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 10) 공룡

#### ① 운영 주체

- 현재 5명의 상근자로 구성, 대표, 팀장 등의 직책이나 체계 없음
- 자발적 주체들로 구성되어 외부 지원 없이 자급자족 형태로 운영됨
- 참여 청소년들은 대체로 지역의 저소득층, 탈학교 청소년들로 단체의 주요 멤버인 상근자로 남아 활동하기도 함

#### ② 운영 방식

- 총 60평, 3개의 구역으로 나뉘며, 공부방, 카페, 도서관 등의 용도
- 도서관은 아이들 책이 많아져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되어버림. 어른들을 위한 책과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

#### ③ 주요 프로그램

- 공부방 프로그램
- 도시텃밭
- 다큐 작업
- 마을카페 운영 : 직접 키운 농산물, 직접 담근 맥주 등 판매
- 밴드공연 등의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④ 인터뷰 결과 분석

- 책, 교육자료 등 기본적인 자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대도시 중심의 자원과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자원에 대한 욕망이 크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부와의 좀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 (3) 분석 결과 요약

#### 1) 시민 주체성, 자발성, 독립성 그리고 공동체성 돋보임

주체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조직 구성, 조직 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지역문화와 공동체기반 운영의 원칙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시민문화공간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자기 의미부여를 기반으로 한 활동들이 두드러진다. 즉, 운영자뿐 아니라 시민의 주체화 정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 참여에 기반한 자생성을 만들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또한 시민들이 시민문화공간을 본인들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주인의식이 강하다.

#### 2) 대부분의 사례에서 시민문화공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사례로 조사한 잠재적인 시민문화공간들은 운영진들의 자발성과 노력을 통해서 일정한 문화적 기능을 하고 있으나 재정 안정성, 시민문화자원 발굴,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 확보, 네트워크 활용 등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 각각의 시민문화공간의 요구와 필요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남

각각 사례 공간들은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개별 공간의 가치 지향과 조직운영 철학에 따라 각 공간의 요구와 필요들도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프로그램, 공간 조성, 기자재 등 필요 설비 구입, 네트워크 지원, 전문성 확보 지원 등이 요구된다.

#### 4)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함

지역공동체성의 회복, 주민과의 소통과 유대 강화, 시민 주체성의 발현 그리고 일상적 시민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각 공간의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의 설계가 절실하다.

## 6. 시민문화공간 발전 유형

국내 시민문화공간 사례에 대한 FGI 분석 결과 6개의 발전 유형을 도출하였다. 발전 유형은 첫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시민문화공간으로서 잠재성(시민 주도 공간 설립, 운영주체의 명확성) 둘째, 정책지원을 통해서 시민문화공간의 핵심요소를 갖춤으로서 이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의 소유방식, 공간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상적인 시민문화공간으로 발전할 경우 다른 그룹과 차별되는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분류해서 유형화하였다.

### (1) 시민 주체형

- 1) 지역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이를 다른 주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력 센터로 기능하는 공간을 말한다. 시민의 주체화 정도와 조직화 정도는 강하지만 자원 조달의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도서관이나 마을극장, 마을센터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시민 주체화의 정도는 매우 강하지만 사업의 ‘공공성’에 기인한 운영 재원의 어려움이 강하다.
- 2) 육아,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생태 교육 등의 일정한 목적을 공유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100% 재원을 출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문화공간
- 3) 예 : 성미산육아공동체, 성미산마을극장, 느티나무 도서관, 맹산생태교육원 등

## (2) 시민-매개자 협력형

- 1) 서울 마포에 있는 가제트공방의 경우 처음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목공방에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1층 공방, 2층 카페, 3층 도서관의 시민교육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 사무실의 빈 공간을 이용해 저녁 시간 문화활동과 문화예술교육의 장소로 만들거나 카페를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발전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공간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유형이다.
- 2) 문화 관련, 문화예술교육 관련 매개자가 공방,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조각 작업실 등의 자신의 전문성과 관련 있는 영역을 문화예술교육의 장소로 확장하거나 다양한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공간을 시민과 협력(재원마련, 공동운영)하여 창출하는 경우가 있다.
- 3) 예 : 가제트 공방, 대구 마을작업장 등

## (3) 중간조직형

- 1) 다양한 시민문화공간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유희공간·문화공간·기업공간을 교육활동의 장소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시부야 대학의 경우 지역 주체들을 네트워크하고 자원들을 교육의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특정한 물리적 공간 점유를 하지 않고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 2) 시민들이 교육의 참여자가 되거나 강사가 되는 교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장소는 지역의 다양한 공간(전통시장, 대장간, 공방)이 될 수 있다.
- 3) 예 : 시부야 대학, 기전전문대학, 땡땡(00)은 대학

## (4) 생활공동체형

- 1) 일정한 규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주거 셰어링, 유기농밥상, 지역청년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문화공간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유형이다. 생활

문화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화요소들을 만들어가고, 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교류, 소통하고 공동체 내의 교육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류의 공간을 만들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 2)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공동체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도입하고,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장소로 생활문화적 공간을 개방하여, 문화 교류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창출한다.
- 3) 예 : 체화당, 해방촌 게스트하우스 ‘빈집’ , 되살림가게, 문턱없는밥상과 마을가게, 일상생활창작센터 ‘새끼’

## (5) 기능확장형

- 1) 문화 활동이나 기업 활동의 일정한 목적을 위해 공간을 사용하다가, 고정된 기능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적 관점에서 새로운 공간 활용을 모색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을 창출한 유형이다. 유기농 카페, 디자인 사무실, 서점 등의 기본 기능에서 출발했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워크룸(Work room) 또는 문화예술교육 기획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까지 진화하여 많은 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 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목적활동을 통해 공간 운영에 필요한 기본조건을 확보하고, 문화 또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공간을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장소로 활성화한 사례다.
- 3) 예 : 카페 슬로비(사회적기업 오요리 운영), 북소사이어티 등

## (6) 프로그램 중심형

- 1) 창작공간, 쇠락한 서점, 임대료가 낮은 전통시장 2층 공간, 활용성 낮은 공공공간, 유휴공간(빛물뽕프장, 물재생센터)을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간으로 조성하고, 일정한 운영·기획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자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유형이다. 물리적 공간 지원보다는 네트워크 지원 혹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민중의집의 경우 지역 동네 문화

단체들의 소식과 정보들을 네트워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각 단체들의 필요를 상호부조 활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에 창조적 아카이브 및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 2) 영국의 스쿨오브라이프처럼 ‘how to ~’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전문가·인문 강사와 개발하고 공간을 운영한다. 문화예술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해나간다. 문화예술 교육에서 문화활동으로 확장해나가는 한편 공간의 설립·소유·운영면에서 시민 주체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 3) 예 : 독일의 인생보조, 독일의 우파파브릭, 영국 스쿨오브 라이프, 서울의 민중의집, 청주의 공룡, 전주의 싹



---

# IV. 시민문화공간 지원 전략

---

1. 시민문화공간 개념
2. 정책 포지셔닝
3. 지원 전략
4. 지원 내용 및 방향
5. 지원 방식 예시
6. 시민문화공간 선정 기준
7. 2012년 사업 설계
8. 사업 추진 체계
9. 추진 일정



---

## IV. 시민문화공간 지원 전략

---

### 1. 시민문화공간 개념

#### (1) 시민문화공간 개념

- 1) 시민문화공간은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차원에서 지역문화자원과 공간자원을 재구성하여, 시민 주도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재생하고,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을 재생하고, 시민적 창의를 발현하는 창조적 시민 주체들이 성장하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장소를 의미한다.
- 2) 시민문화공간은 시민의 힘에 의해 자생적으로 운영되며, 시민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소를 의미한다.

#### (2) 핵심 개념 규정

##### 1) 시민

시민문화예술교육에서 시민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시민’이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라는 측면, ‘시민’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문화시민이 된다는 측면, ‘시민’이 능동적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이 그것이다. 시민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을 시민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시민문화예술교육

시민문화공간에서 시민문화예술교육은 시민 스스로 “생활영역에서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시민문화자원(관계자원·문화예술자원·지역문화자원·공간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 자체이며 문화적이고 예술적 활동이다.



〈표 N-1〉 시민문화공간의 개념과 목표

또한 시민사회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시민적 창의성을 새로운 형태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개념이고, 이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어젠다3’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 3) 시민문화자원

시민문화자원의 의미는 경제적 사회적 발전으로 축적된 물리적 구성 요소 뿐만 아니라, 시민(주민)들이 각각 갖고 있는 역량이나 재능, 상상력, 아이디어, 협업 능력을 일컫는다.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의 감정과 아이디어를 해석하고 관계망을 구성해감으로써 현실적 구조(공동체와 조직의 융합, 인간적이면서 생산적인 장소가 되는 참여방식)를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원천이 각각의 시민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시민적 창의성

시민적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적 능력은 민주적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능력, 새로운 사회성에 대한 숙련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은 사회적 통합력을 강화시키고, 개인적 자신감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인다.

#### 5) 시민문화예술교육 장소

시민문화공간으로 생성되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장소는 즐거움의 시스템, 오락과 학습 기능을 지닌 시장, 만남을 자극하는 공간 구조를 모두 포함한다. 비일상성을 고양시키고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문화행사, 내적이거나 외적인 생활양식, 또는 시민들의 주체화 과정이 드러나는 소통방식 등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교육적 방식들이 융합·생성되는 장소이다.

#### 6) 시민 주도

시민 주도라 함은 지역 주민들이 등기상의 대표나 운영주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민자치협의회, 시민협의회 등은 모두 시민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대표를 맡으나 자발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정한 시민 주도는 시민이 주요한 운영주체(설립, 소유, 자원마련, 전문가 섭외, 자원활동가)이자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이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시민, 시민-전문가, 문화예술가가 시민 주체가 된다.

### (3)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 기대 효과

#### 1) 단기적 기대 효과

- ① 시민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어젠다’ 실현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② 문화예술교육의 대상 확대 및 시민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③ 시민문화자원을 발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과정으로서 문화예술교육 확대
- ④ 시민 주도 문화공간 활성화로 자생성과 지속성이 있는 문화공간 모델 제시
- ⑤ 생활권 영역에서 시민과 결합한 문화예술의 새로운 존재 방식 마련

## 2) 장기적 기대 효과

- ① 창의적 시민 주체 개발 : 시민적 창의개발
- ② 시민 주도의 사회적 문제 해결 역량 개발
- ③ 시민문화공간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활력 제고
- ④ 시민-공간재생-시민문화예술교육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재생 모델 제시 : 시민의 주도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지역재생
- ⑤ 시민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

## 2. 정책 포지셔닝

문화정책은 1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플랜이어야 한다. 이에 각 부처에서 시행되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했던 기존 정책과 세 가지 차별성이 있는 정책 포지셔닝을 제안한다.

### (1) 지원 대상 차별화

기존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예술가나 문화기획자 지원이었다면 본 사업은 일반 시민, 전문가나 문화예술교육 관련자가 하나의 시민으로 참여하는 시민 주체로 시민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민문화공간을 지원한다.

- 1) 자생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공성에 기반 한 시민 주도 공간 지원
- 2) 시민 공동체의 관계망에 기반 한 일상적 시민문화예술 활동을 수행해온 단체 우선 지원
- 3) 시민 주도로 재원을 형성한, 즉 출자, 회비, 기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 우선 지원

## (2) 공간개념 차별화

기존 타 정책사업의 경우 유희공간 혹은 공공시설 기반의 “공간”을 조성하는 지원, 공간에서 운영될 “프로그램” 지원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배제되어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시민문화공간에서 “공간”은 물리적 공간, 시설 인프라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일 공간, 물리적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공공장소(전통시장, 공원), 관계망 네트워크, 문제 해결 모델까지 포함할 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공공적 영역까지 포함한 공간 개념이다. 발전 유형에 따라, 이러한 공간을 생성해가고 속성해가는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장소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문화기반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운영 공간은 가급적 배제
- 2) 생활권 기반 공간,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시민문화예술교육을 탐구하고, 성장시켜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단체 우선적 지원
- 3) 2단계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할 경우에는 공간조성 비용 지원 가능

## (3) 프로그램 차별화

평생교육이나 주민교육이나 직업교육은 대부분 교육형, 아카데미형 프로그램 지원이다. 이러한 지원은 자생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시민문화공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렵고, 프로그램의 질 또한 취미 활동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1) 시민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시민적 창의를 개발하는 콘텐츠 개발 사업 지원
- 2) 아카데미 혹은 교육형 프로그램보다는 공동체 필요 프로그램 혹은 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지원
- 3) 특정계층이 중심이 아닌 시민을 중심으로 소수자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지원

## (4) 핵심 개념 설명

### 1) 시민 주도

시민 주도란 시민들의 자발적 동기부여에 의해 시민문화공간이 조성되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있어 시민의 주도성이 돋보이는 공간을 의미한다.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된 자생적 시민문화공간을 의미한다. 즉, 자생성과 자발성 기반으로 운영되며, 일상적 필요를 반영하는 게 시민 주도 공간이다.

### 2) 사회적 관계공간

사회적 관계공간이란 시민들의 일상적 삶에서 요구되는 필요와 요구들이 반영된 일상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시민 공동체에 이미 존재하는 그리고 기능하고 있는 의미 공동체의 성격을 지닌다. 독립 생활자, 경력 단절 여성 혹은 육아와 탁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 부조적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 3) 시민적 창의개발

시민적 창의개발이란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창의 활동을 의미한다. 일상적 삶에 기초한 사회적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기술, 교육, 모임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취미 활동 혹은 여가 활동을 넘어 시민들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에 창의적 생활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 지원대상 차별화

행정 주도 운영	지자체	기관 및 시설	예술강사 에듀케이터	단체	사회적기업	시민 주도	시민 참여 운영
						★	

### 공간 차별화

물리적 공간	신규 문화공간 조성	유휴공간 활용 (리모델링)	시설 리모델링	생활 공간	사회적 관계 공간	공공적 심리적 사회적 공간
				★	★	

### 프로그램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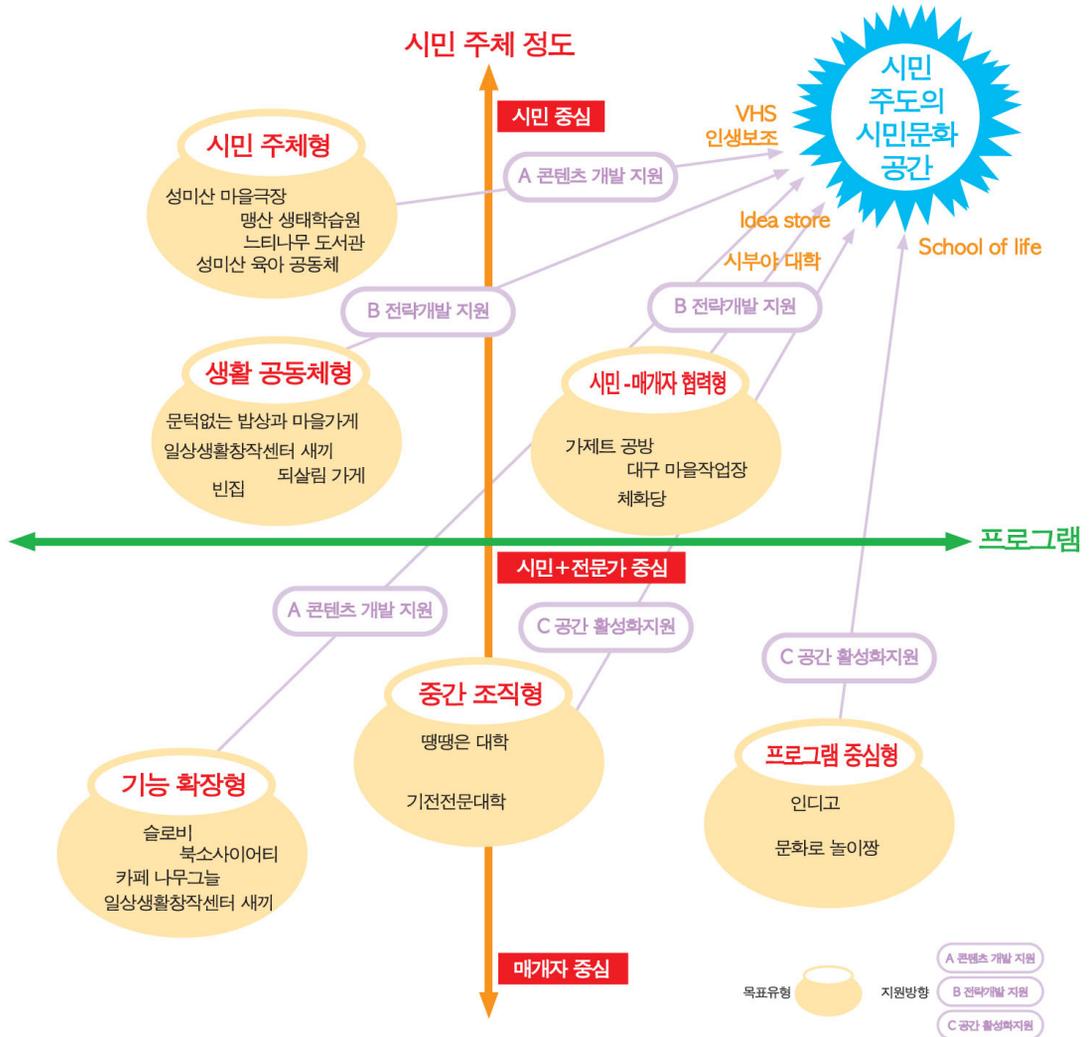
질적 단순함	취미교육	아카데미식 교육	체험 교육	통합적 프로그램	시민적 창의 개발	질적 풍부함
				★	★	

〈표 IV-2〉 시민문화공간 정책 포지셔닝

## 3. 지원 전략

### (1) 목표 유형 지원

- 1) 목표 유형은 사업 대상이 가진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민문화자원으로 지역과 시민을 이해하여, 시민적 창의를 통해서 시민문화공간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때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을 나누어 표현한다.
- 2) 각 지원 단체(개인)는 전략개발을 통해서 시민 스스로 지지하는 시민문화공간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원리 및 방식, 의사소통과정을 모두 변화시킨다.



국내 사례 FGI분석 결과 6개의 목표 유형 도출. 이 유형에 방향지원을 접목시켜 시민문화공간이 가야할 궁극적 목표점을 표로 나타냄

〈표 IV-3〉 시민문화공간 지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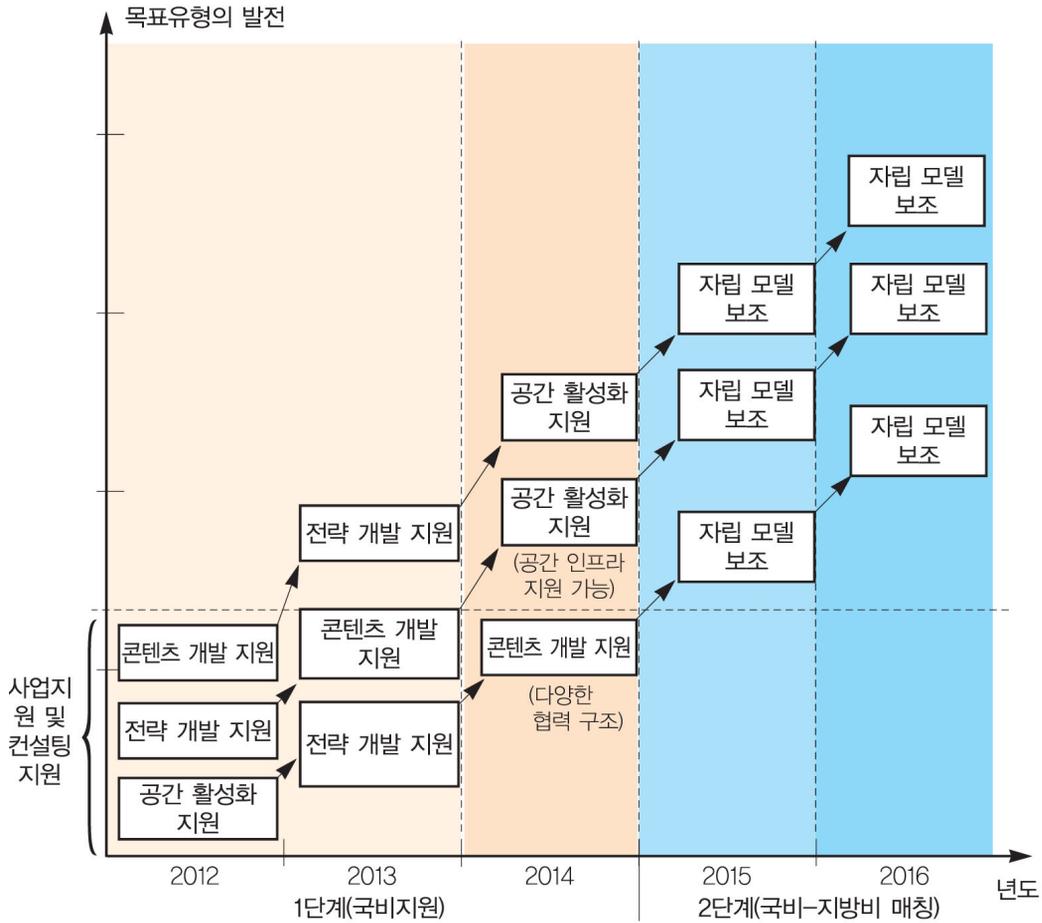
- 3) 각각의 목표 유형에서 요구하는 지원의 시급성에 따라 콘텐츠 개발 지원, 공간운영 전략 개발 지원, 공간 활성화 지원으로 크게 나누어 지원한다.
- 4) 초기 사업 신청 시 각 목표 유형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우선순위 별로 제안한다.
- 5) 지원 첫 해에는 전문가 컨설팅과 문화 워크숍의 과정을 통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목표 유형을 확정한다.

구분	장점	단점 및 한계	중점지원방향
시민 주체형	주민들이 자원 마련	문화예술 이해 및 전문인력 부족	콘텐츠 개발 지원 전략 개발 지원
시민-매개자 협력형	문화 전문가가 바로 시민 속으로 시민-매개자 운영	상호 관심과 이해 충돌 운영역량 부족 협소한 프로그램	전략 개발 지원 공간 활성화 지원
중간조직형	독특한 포맷 시민들의 참여 구조 공간을 조직화	다양한 생활공간을 시민문화공간으로 개발 필요 모델 정교화 부족	공간 활성화 지원 전략 개발 지원
생활공동체형	시민 주체의 생활기반 교류와 소통	시민문화에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전문인력 필요	전략 개발 지원 콘텐츠 개발 지원
가능확장형	다양한 장소 가능 높은 기획력 확보 가능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필요	콘텐츠 개발 지원 공간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중심형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간이 낙후됨 아카이빙/시민지원 발굴 필요	공간 활성화 지원 전략 개발 지원

〈표 IV-4〉 목표 유형 구분 및 설명

## (2) 2단계 5년 지원

- 1) 완결적이고 이상적인 시민문화공간 운영은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그리고 공간의 안정적 운영이 결합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 2) 과정별 단계적 지원을 통해 자기 완결적이고 안정적인 시민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점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단계를 지원한다.
- 4) 크게 1단계 목표설정 단계에서 국비 전액 지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고, 2단계 지속화 단계에서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을 통해서 지속화 단계 사업을 지원한다.



〈표 IV-5〉 단계별 지원

① 예산 지원 방안

- 1안(2+3지원) : 2년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3년은 국비:지방비(5:5) 매칭 지원
- 2안(2+3지원) : 2년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3년은 국비:지방비(3:7) 매칭 지원

② 연도별 예산 지원 방안

	2012(시범)	2013(시범)	2014	2015	2016
신규 지원	4	8	8	8	8
연속 지원		4(지속)	8	8	8
지자체 매칭 총수		평가 후 선정		(12)	20
중앙정부+지자체 지원 총수	4	12	16	28	36

- 2012년 신규 4개 선정
- 2013년 신규 8개 선정(사업비 증액), 연속 4개 지원
- 2014년 신규 8개 선정, 연속 8개 지원
- 2015년 지자체 매칭 12개(단, 2년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년도 전해 의회에서 사업비를 의결한 경우)

### ③ 단계별 지원 방안

- 제1단계(2012~2014년) : 국비 지원 단계
  - 기본목표 : 시민문화공간 운영주체들의 발전 유형에 부합하는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
  - 정책목적 : 시민문화공간 운영주체들이 연간·연차별 포트폴리오를 구성, 지원함으로써 공간운영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차별성을 획득하기 위한 발전 모델(각 단체들의 이상적 목표모델)을 완성함을 목적으로 함
- 제2단계(2015~2016년) :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 단계
  - 기본목표 : 목표 유형에 부합하는 자립모델의 지속가능성 보조
  - 정책목적 : 국비 지원을 통해 확보된 시민공간의 독립성과 안정성 그리고 운영의 차별성을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기 위한 정책 보조 기능 이행. 확장성과 시민사회 내의 자기 안정성을 지닌 자립모델 보조를 목적으로 함.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모델 확산 단계

## (3) 컨설팅 지원

- 1) 1단계 국비 지원 단계에서는 지원 단체가 비전 수립, 시민문화자원 발굴, 역량 구축 과정에 대해 ‘시민 문화 컨설팅’ 지원
- 2) 분야별 전문가보다는 공동체 문화에 대한 열정과 시민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촉진·매개 역량이 있는 컨설턴트 구성이 핵심
- 3) 1단계 전액 국비 지원 시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2단계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 매칭 지원 시 지자체와 지원 단체를 모두 컨설팅함

- 4) 1단계 국비 지원 단계 첫 해에는 사업비를 교부하기 전에 1개월 정도 컨설팅을 진행하고, 두 번째 해에는 워크숍형으로 2개월 정도 컨설팅 진행

## **(4) 컨설팅단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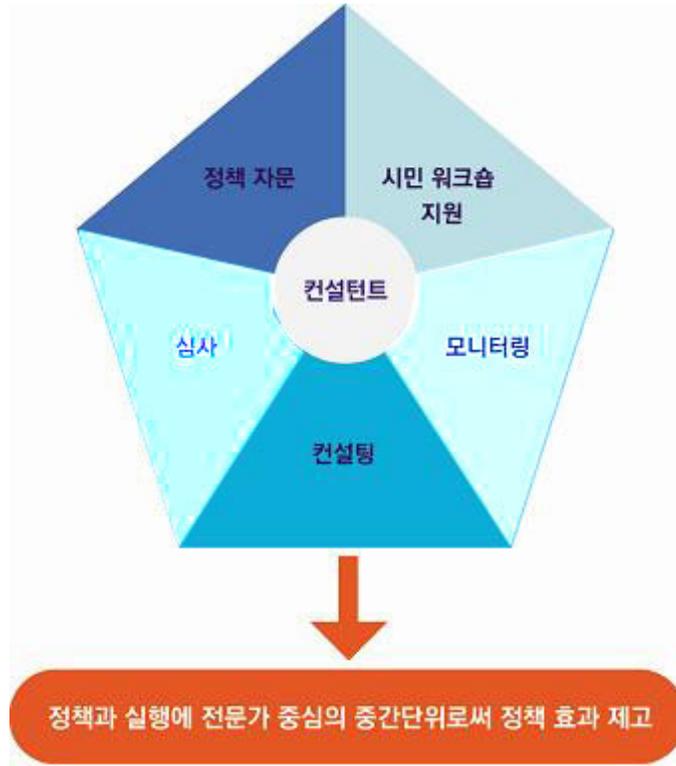
- 1) 사업심사 : 정책 목표에 따라서 사업 심사
- 2) 사업계획 컨설팅 : 시민 주도의 시민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컨설팅하고, 우선 필요 지원을 설정하고 컨설팅. 조사 방법, 워크숍 방법, 시민문화예술교육 이해에 대한 컨설팅
- 3) 시민워크숍 지원 : 운영방식, 프로그램 개발 과정, 전략적 의사결정 방식 지원
- 4) 모니터링 : 감시자보다는 조력자로서의 진행 과정 모니터링
- 5) 평가 : 모니터링에 기반한 과정 평가(2년 단위 평가는 별도의 평가단 구성)

## **4. 지원 내용 및 방향**

### **(1) 콘텐츠 개발 지원 : 문화자원 발굴 및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구체적인 시민역량과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과정 자체를 기초로 하여 시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전문가, 시민-시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한다.

- 1) 시민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2) 문화자원 아카이빙 지원
- 3)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 인력 지원



〈표 IV-6〉 컨설팅단의 역할

## (2) 공간운영 전략 개발 지원 : 시민문화공간 전략 및 포맷 개발

자기 진단과 분석을 통해 전략적 방향 수립과 포맷을 개발한다. 사업 주체 스스로 구성한 컨설턴트 또는 전문가와 사업 전략을 개발(단, 중앙정부 컨설팅단은 단체가 구성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운영)한다.

- 1) 사업 수행자가 실질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과 자원을 연결하고, 지자체와 사업 수행자의 지속적 구조 셋업을 지원
- 2) 전문가 네트워크 및 재원 포트폴리오 구성의 합리성 확보를 통한 방안 지원
- 3) 컨설팅 지원
- 4) 단체 운영 공간 전략개발 지원

### (3) 공간 활성화 지원

시민문화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간접적 요구와 필요를 지원한다.

- 1) 공간 활성화를 위한 매체 개발(홈페이지, 인쇄물 등)
- 2) 공간 구성 지원(리노베이션 혹은 운영 효율화 목적 지원)
-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 5. 지원 방식 예시

### (1) 시민문화공간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지원 설계

본 사업의 지원내용 및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단체의 필요와 요구의 다양성에 기반한 지원이다.

### (2) 연간 연차별 계획 지원(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본 사업은 예산과 사업 내용을 단체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각 지원 단체들이 연간 사업뿐 아니라 3년 기준 연차별 예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지원 단체는 세 가지 지원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원내용(지원금) 설계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한 개의 지원내용(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는 FGI를 통해 드러난 시민문화공간들의 아주 상이한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자기 완결적 발전 유형에 부합하는 지원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 (3) 예시

시민문화공간을 운영하는 A라는 단체가 콘텐츠와 공간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간 운영에 있어 네트워크 강화와 컨설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 콘텐츠 개발 지원 2,000만원, 공간 활성화 지원 2,000만원 그리고 공간운영 전략 개발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B라는 단체는 콘텐츠 개발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공간 운영에 대한 경험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기에 공간 활성화에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 5,000만원 전액을 공간 활성화 사업 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히 두 단체는 이렇게 예산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각 단체의 발전 유형에 부합하는 연간, 연차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제시해야 한다.

## 6. 시민문화공간 선정 기준

시민문화공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정 기준은 공간운영 주체의 능동성과 적극성, 시민 주체화의 정도 및 발전 가능성, 시민문화공간의 목표 유형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분	세부 내용	비율
문화예술교육 이해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민문화공간의 비전 시민문화예술교육 이해 시민 창의성에 대한 기획 역량	20%
시민 주도성 및 시민 주체화 가능성	조직 형태 및 운영 주체 설립 및 운영에서 시민 주도 정도 핵심 기획 인력의 존재 프로그램 기획 과정의 참여 정도	20%

재정 및 운영의 합리성	재원 조달 능력 및 회계 투명성 재정계획의 타당성 의사결정 방식의 합리성	20%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창의적 과정으로서 시민문화예술교육 이해 시민문화자원의 발굴 능력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가의 참여 및 협업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20%
발전 가능성	공간 유무 및 활용도 지역 활성화 기여 정도 지자체 협력 공간화 가능성	20%

〈표 IV-7〉 시민문화공간 선정 기준

## 7. 2012년 사업 설계

### (1) 추진체계 설계

-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시민문화공간 컨설팅단을 구성 (컨설팅단은 정책자문, 계획 컨설팅,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내용적 측면의 추진체계 마련
- 2) 2+3 지원방식을 고려한 컨설팅단 구성

### (2) 지원 규모

- 1) 1개 사업당 4,000만원~5,000만원으로 중액 다건 지원

### **(3) 지원 방식**

- 1) 2012년엔 시범사업으로 추천+공모 방식 병행
- 2) 2013년에 일반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 사업 개수를 확대

### **(4) 지원 대상**

- 1) 사업 신청 주체는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문화기획 전문가 등의 매개자가 아니라 시민 주도로 만들어가는 시민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 지원
- 2) 시민이 운영 주체이지만 경영·프로그램 기획·네트워킹 측면에서 전문가나 문화예술교육 매개자와 협업은 필수. 여기서 전문가는 개별 시민으로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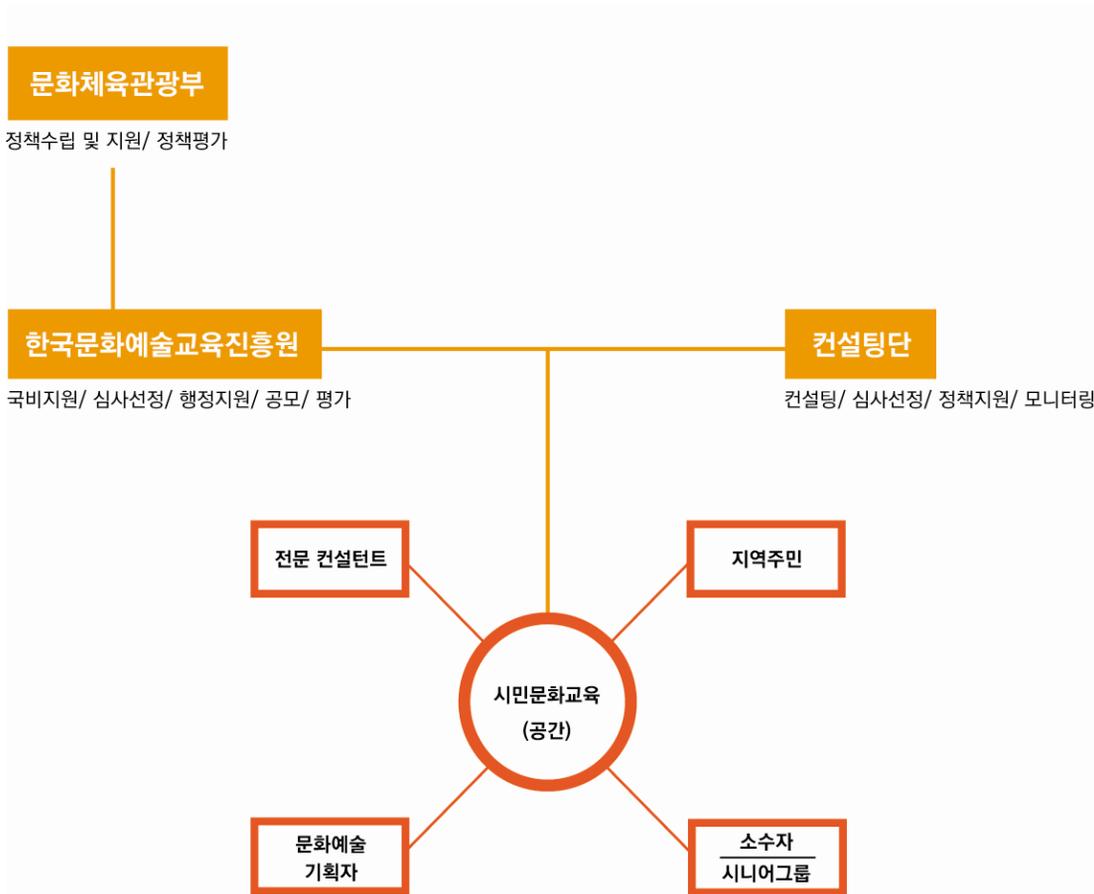
### **(5) 컨설팅 및 모니터링**

2012년 선정된 시범사업은 컨설팅단의 모니터링으로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되, 4개 지원사업의 목표 유형 연구해야 함

### **(6) 평가**

- 1) 2012년 선정된 시범사업은 2년차 시행기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구성한 평가단에 의해서 사업평가 실시
- 2) 2단계 지방자치단체 매칭 지원 여부 확정

## 8. 사업 추진 체계



〈표 IV-8〉 추진 주체별 역할

### (1) 행정적 지원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1) 시민문화공간 추진 계획 수립
- 2) 국비 지원 및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 3) 컨설팅단의 자문을 토대로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 **(2) 내용적 지원 주체 : 시민문화공간 컨설팅단**

- 1) 사업 추진 방향 및 추진 계획 자문
- 2) 선정 기준 마련
- 3) 현장 실사 및 사업 심사
- 4) 사업실행 계획 수립 컨설팅
- 5) 사업 모니터링
- 6)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검토 자문

## **(3) 사업 시행 주체 : 시민문화공간 운영자 및 시민**

- 1) 컨설팅 자문,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간의 미래 비전 설계를 통한 사업실행 계획 수립
- 2) 사업 수행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를 보조받아 사업 추진 및 정산
- 3) 지역네트워크 자원 및 시민, 지역전문가, 지역단체와의 연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9. 추진 일정



〈표 IV-9〉 추진 일정

# 별첨자료 1 국내외 시민문화공간 사례 분석

## 1. 국내 사례

###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 빈집

구분	내용
단체명	해방촌 게스트 하우스 빈집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 지음(운영자)</li> <li>•주소: 아랫집/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암새싹길 31 4층 옆집/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5-1467 4층 앞집/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22-12 3층 빈가게/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2가 22-1 1층</li> <li>•홈페이지 : <a href="http://binzib.net">http://binzib.net</a></li> </ul>
조직구조	장기 투숙객과 단기 투숙객으로 나뉘지며, 서비스 하는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주인이자 손님의 역할을 함. 머무는 사람 누구나 규칙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으며 곳곳에 쪽지를 붙여 규칙과 이용방법을 공지함
주체	활동가와 시민 결합방식으로 2008년 3명이 시작하여 현재 20여 명의 장기투숙객과 수많은 단기 투숙객이 이용함
추진력	도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고 앞으로도 도시에서 사람이 살지 못해서 떠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도시 안의 살아남기, 살아내기를 목표로 하는 공동체 형성, 이후 살아남는 것 이외에 문화적인 방향과 지역 내 주민들과의 융합을 고려하고 있음
지역조건	용산 재개발 지구가 가지는 상징성과 지역적 특성이 고려됨
공간개념 (성격)	전, 월세를 통해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공유하는 형태로 유희공간이나 공공공간의 성격과는 다름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군가가 출자하거나 대출한 돈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으나 출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li> <li>•재원 문제는 각자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해결하며 하루 3천원, 장기투숙객은 한 달 12만원(식비 포함) 정도의 분담금을 냄</li> <li>•집별로 월 2~3회, 마을단위로는 월 1~2회 회의를 열어 공간과 운영에</li> </ul>

	<p>대한 고민을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 MT 등과 같은 활동도 가능하며 정기적인 모임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비치하여 운영함</li> <li>•빈가게: 빈마을 사람들이 2010년 11월 오픈. 생협상품 등을 직거래 할 수 있음. 일하는 사람들은 ‘일놀이꾼’ 이라 불리며 놀이하듯 일하며 사는 것을 추구</li> <li>•빈고: 새로운 지본의 흐름을 만들고자 우주살림협동조합 빈고를 제안하고 출자. 차입금은 공동체와 공공공간을 위해 지원하며 시민 활동에 지원하는 데 사용됨</li> </ul>
지속성, 자생성, 잠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의 보조나 기업의 보조 없이 참여자들이 조금씩 분담하는 것으로 운영되므로 자생성이 매우 높음</li> <li>•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째 운영되고 있음</li> </ul>
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	빈가게, 빈고 등 시민 활동과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빈가게의 경우 지역의 시민들과 연계되며 그 밀도를 높여가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음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개요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대안적인 정보와 지식의 생산, 실제적인 물품의 생산을 프로그램으로 진행
프로그램 성격	<p>시민 교육과 문화교육에 가까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사짓기(옥상과 주말농장), 술 빚기, 책 읽기, 공부하기, 대안생리대 만들기, 가구 만들기, 자전거 고치기, 채식베이커리 워크숍 등의 생산 작업 진행</li> <li>•1박 2일 책읽기: 저자와 함께 숙박하는 1박 2일 책읽기로 숙박비 포함 7천원의 저렴한 참가비로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li> <li>•포트럭 수다회: 각자 요리를 가져오고 수다꺼리를 가져와 함께 하는 것으로 특히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4회에 걸쳐 수다회 진행</li> <li>•열린집사회의: 빈집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빈고와 빈가게 등의 운영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마.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 있어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여할 수 있음</li> </ul>
대상	성인
운영방식	집별로 진행되는 회의와 마을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그 방향을 결정함
공간	주거공간 3곳, 카페공간 1곳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느티나무도서관

구분	내용
단체명	느티나무 도서관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박영숙</li> <li>•연락처: 031-262-3494</li> <li>•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116번길 22(448-504)</li> <li>•홈페이지 : <a href="http://www.neutinamu.org/">http://www.neutinamu.org/</a></li> </ul>
조직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 위원회, 후원회, 자원활동가회, 스태프로 조직이 구성됨</li> <li>•이사회는 의사결정기구이며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li> <li>•위원회는 친구도서관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고 친구도서관을 선정 지원하며 통합 워크숍을 통해 평가와 교육의 역할 수행</li> <li>•후원회는 도서관을 후원하는 기업과 후원회원 소개</li> <li>•자원활동가회는 자원활동 참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는 역할</li> <li>•스태프는 기획운영팀과 연구 교류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재단의 사무를 담당함</li> </ul>
주체	<p>활동가가 시작하고 시민이 참여한 방식으로 생각됨</p> <p>2000년 2월 박영숙 관장이 자비로 아파트 지하상가를 임대해서 시작했으며 현재 70여 명의 시민자원활동 도우미가 활동 중</p>
추진력	공공성에 대한 신념과 시민운동의 입장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임
지역조건	경기도 용인시는 주거를 위한 위성도시로 조성되었으나 ‘난개발’ 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냄. 대규모 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시민과 함께 꾸려가는 시민운동의 성격을 가진 공공 시설은 대단히 부족한 상황
공간개념 (성격)	공공공간으로 후원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구성된 공간으로 카페, 공공공간으로서의 도서관 등으로 구성됨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에서 사업과 운영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며, 도서관 네트워크 확장에는 위원회가 주요한 결정을 담당함</li> <li>•사무국 직원은 총 7인이며 재단의 사무와 대외협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당함</li> <li>•200여 명의 자원활동가가 활동하며 매월 3,000만원 가량의 기부금과 카페 수익금으로 재원이 충당됨</li> </ul>

<p><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원금과 카페 수익금으로 운영되므로 자생적 운영으로 보기는 어려움</li> <li>• 2007년 건물을 지어 옮겨올 당시 30억 원의 재원을 후원금으로 기업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등 기업 후원과 시민 후원이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현재의 공공성과 개성을 유지하고 가치를 공유할 경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봄</li> </ul>
<p><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p>	<p>지역 시민들과의 커뮤니티 밀도가 매우 높음. 200여 명의 자원활동가는 대부분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이며 아이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해 청소년이 되어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는 사례도 많음</p>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p><b>프로그램 개요</b></p>	<p>책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위한 낭독 프로그램과 극장,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독서 동아리가 있음</p>
<p><b>프로그램 성격</b></p>	<p>문화교육, 시민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읽어주기: 매일 오후 3시 진행</li> <li>• 아기랑 그림책 나들이: 매주 화요일 진행</li> <li>• 이야기 극장: 매주 수요일 낮 4시 진행</li> <li>• 영화 극장: 주말 진행</li> <li>• 책 전시회, 작가와의 만남, 마을학교, 마을 음악회 등이 진행됨</li> <li>• 엄마 독서회: 주부 동아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부모 역할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스스로 삶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하여 교육, 사회, 여성, 역사 등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발전</li> <li>• 그 외 추리소설, 사회과학, 그림책 등 어린 독서회 7개, 청소년 독서회 1개 모임이 운영되어 지역 커뮤니티의 기점으로 작용</li> </ul>
<p><b>대상</b></p>	<p>전연령</p>
<p><b>운영방식</b></p>	<p>요일별 고정 프로그램은 자원활동가가 운영하며 그 외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사무국에서 기획 운영, 동아리 모임은 자발적으로 운영됨</p>
<p><b>공간</b></p>	<p>지하- 강당, 북카페, 서고  1층- 열람실, 동아리방  2층- 열람실, 영화 보는 방  3층- 재단 사무국</p>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인디고

구분	내용
단체명	인디고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허아람</li> <li>•연락처: 051-628-2897</li> <li>•주소 : 부산 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20-7번지</li> <li>•홈페이지 : <a href="http://www.indigoground.net">http://www.indigoground.net</a></li> </ul>
조직구조	대표 허아람, 실장 김미현 그 외 서점 직원 및 아르바이트로 구성
주체	활동가 중심
추진력	책을 사는 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안하고, 18년 동안 독서지도 교사로서 가치있는 독서운동을 이끌자고 함
지역조건	부산 남천동은 유명한 학원가이자 부촌으로 서울도 아닌 부산의 이 지역에 인문학 서점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성공적으로 진행됨
공간개념 (성격)	서점과 에코토피아라는 자원활동가들로 운영되는 식당 2곳으로 나누어 사업이 진행됨. 공간은 공공 공간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지속성, 자생성, 잠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서판매금과 유료회원 회비, 후원금 등으로 운영됨. 자생적이며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짐</li> </ul>
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손님이자 프로그램의 참여자로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참여와 성과를 이룸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개요	청소년의 내적 성장에 자양분이 되는 책을 선별하고 그를 통해 얻은 인문학 지식과 철학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한 길잡이로서의 프로그램.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토론 프로그램과 실천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으로 나뉨
프로그램 성격	<p>문화교육, 시민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와 변주: 2002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문학 책들을 골라 읽고 책의 저자들을 초청해 함께 이야기하는 독서토론 세미나.</li> <li>•INDIGO+ing(인디고잉): 어른들이 만든 청소년용 잡지가 아니라 인디고</li> </ul>

	<p>의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청소년 인문 잡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코토피아: 생태주의와 이상향을 합친 말로 생태적 이상향을 뜻하며 생태/환경 분야의 책을 읽은 인디고의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이름 지은 채식 식당</li> <li>•정세청세: 청소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토론 행사</li> <li>•청년들의 저녁식사: 한 달에 문학책 한권과 영화 한 편을 봄. 미리 읽고 페이지를 써오면 짧은 시간에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함</li> <li>•열두 달의 작은 강의: 학부모들이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책을 읽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눔</li> <li>•수요독서회: 좋은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토론하는 일반인 독서 모임으로 격주 1회 진행</li> </ul>
<b>대상</b>	청소년, 성인
<b>운영방식</b>	각 프로그램이 월 1~2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므로 서점 차원에서는 주 1~2회 프로그램이 진행됨
<b>공간</b>	<p>1층- 어린이 책 서점</p> <p>2층-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인문학 책 서점</p> <p>3층- 인디고잉 회의실</p> <p>4층- 작은공간</p>

##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체화당

구분	내용
<b>단체명</b>	체화당/ 풀뿌리사회지기학교/ 마을카페 네트워크
<b>단체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이신행</li> <li>•연락처: 02-364-9656</li> <li>•주소 : 서대문구 신촌동 2-93번지</li> <li>•홈페이지 : <a href="http://www.pulschool.net">www.pulschool.net</a> / <a href="http://chewha.cyworld.com/">chewha.cyworld.com/</a></li> </ul>
<b>조직구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화당, 풀뿌리 사회지기 학교, 마을카페 네트워크로 나뉘어 운영됨</li> <li>•체화당지기와 간사로 14명이 맡아 운영함</li> <li>•풀뿌리 사회지기 학교는 김용진 씨가 교감을 맡아 운영</li> <li>•마을카페 네트워크는 카페별 독서토론 그룹을 만들어 북클럽 조직을 구성하고자 함</li> </ul>

<b>주체</b>	활동가 중심
<b>추진력</b>	문화교육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화당: 1990년대 초반 ‘신촌민회’ 라는 이름으로 신촌 지역의 자치조직을 꾸렸고 체화당으로 옮겨옴. 교회, 절, 대학, 총학생회 등과 연결되어 대학과 자치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 연대와 맥이 닿음</li> <li>•풀뿌리 사회지기 학교: 대안학교로 풀뿌리 시민운동에 대한 철학과 실천을 교육하고자 구성, 운영함</li> </ul>
<b>지역조건</b>	신촌은 이대와 연세대가 접해 있으나 그만큼 상권이 발달해 있어 소비문화에 편입된 대학가로 볼 수 있으며 체화당 같은 비상업적 문화공간은 자리하기 어려움
<b>공간개념 (성격)</b>	북카페의 성격으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는 보금자리 역할 그 외 풀뿌리 사회지기 학교의 경우 대안학교 혹은 정식학교의 성격으로 공간이 운영되고 있음
<b>운영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화당의 경우 공간은 이신행 교수의 사택에서 제공하고 그 외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는 카페 수익을 통해 마련</li> <li>•풀뿌리 사회지기 학교의 경우 신철호 포스닥 사장이 공동이사장으로 2007년 1억 원 기금을 기부하여 운영됨</li> </ul>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가와 학생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카페 수익과 기금 운영과 수업비를 통한 수익 구조의 지속성을 갖고자 함</li> </ul>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학생들과 주민들이 만나 활동하는 프로그램들이 방학기간 중 다양하게 진행되며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와 학생, 주민 간 커뮤니티 구심점으로 역할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b>구분</b>	<b>내용</b>
<b>프로그램 개요</b>	체화당과 풀뿌리 사회지기 학교는 공간의 성격이 다르므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역시 상이함. 체화당의 경우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풀뿌리 사회지기 학교는 대학학교, 정식 인가 학교로서 3년 혹은 그 이상의 교육과정을 가짐
<b>프로그램 성격</b>	문화교육, 시민 교육 >체화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제, 디카교실, 일본어 학교 등을 운영하고 방학 때는 지역주민과 함</li> </ul>

	<p>께 어린이 학교, 음악회를 기획하여 진행</p> <p>&gt;폴뿌리 사회지기 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한 소수정예로 일대일로 맞춰 진행되며 학생 개인의 관심사에 맞춰 맞는 강사를 섭외해 수업을 개설함</li> <li>•한학기당 두세 과목씩 글쓰기, 성찰적 삶과 사회, 종교와 사회, 다리밟기, 영어, 기타와 밴드 조직 등 다양한 주제별로 1년에 6개 강의가 진행됨</li> </ul>
<b>대상</b>	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
<b>운영방식</b>	<p>&gt;폴뿌리 사회지기 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수업당 50만 원이며 주 2회 2시간씩 진행</li> <li>•길찾기, 터담기, 사회지기까지 총 3년의 과정에서 진행</li> <li>•대학원 과정은 학생 3명 이상이 구성될 때 새로운 전공 과정을 개설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의 기부 강의 특강을 진행함</li> <li>•훈련단계과정 2개씩 6개 과목 이수와 필수제출 조건을 이수 후 심사위원 중 2/3 이상의 찬상을 받아야 사회지기 지역학 연구자의 자격으로 졸업이 가능함</li> </ul>
<b>공간</b>	체화당의 공간은 1층은 카페, 지하는 세미나실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카페 슬로비

구분	내용
<b>단체명</b>	카페 슬로비
<b>단체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한영미</li> <li>•연락처: 02-3143-5525</li> <li>•주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3-9</li> <li>•홈페이지 : <a href="http://blog.naver.com/slobbie8/">http://blog.naver.com/slobbie8/</a></li> </ul>
<b>조직구조</b>	대표 한영미씨와 매니저 나무씨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출신 리니씨가 다국적 요리사이며 주 셰프로, 러시아 출신 알료나씨가 전문 바리스타, 정신지체 3급 나비씨가 파티쉐 역할을 하여 그 외 인턴직원과 아르바이트 스텝으로 구성
<b>주체</b>	활동가 중심
<b>추진력</b>	<p>문화교육 실천</p> <p>요리를 통한 인간적인 연대와 상생이 실천되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가운데 슬로비 문화를 생성, 실천하</p>

	고자 함
지역조건	홍대 입구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어 5층이라는 다소 높은 층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손님들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 중
공간개념 (성격)	요리카페의 개념이며, 주방이 있는 룸을 따로 두어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함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 과정은 주 1회 전체 스텝이 모이는 회의를 통해 이뤄지며 중요한 결정들은 매니저와 주셰프, 조직 대표 등이 결정하나 전체 공유되고 개방적인 형태로 이뤄짐</li> <li>•재원의 경우 일부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 자립하고 있는 형태임</li> </ul>
지속성, 자생성, 잠재성	오가니제이션 요리라는 조직을 통해 요리를 통한 청소년의 자립과 다문화의 융합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왔으며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 2번째 카페 개념의 공간을 오픈한 것. 지속적이며 자생적인 과정을 걸어옴
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	카페라는 공간에 우연히 찾아오는,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 구성이 밀도 있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 홍대라는 거대한 상권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간의 연계는 다소 약하나 개인 간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구성과 밀도는 높음

####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개요	요리를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 매주 경기도 농촌을 찾아 농부 생활을 함께 하는 도농 연계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의 요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
프로그램 성격	<p>문화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코샵: 협동조합이나 뜻을 같이 하는 비영리 단체의 생산품을 소개함. 천연비누, 에코준 컵, 친환경 소재 생활 용품, 면 생리대 등</li> <li>•영셰프: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을 도와주는 요리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받은 뒤 오가니제이션 요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인턴으로 경험을 쌓고 사회로 나감</li> <li>•농부체험: 매주 월요일 카페가 영업을 쉬는 날, 전 직원이 경기도 이천으로 농부체험을 감. 또한 농촌에서 정기적으로 카페를 방문하여 도농연계를 노력함.</li> <li>•오라잇테이블: 부엌이 있는 워크룸에서 음식과 요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모임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li> </ul>

<b>대상</b>	청소년, 성인
<b>운영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의 진행 및 기획은 카페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체 스텝회의에서 결정됨</li> <li>•카페 수익과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지원으로 운영</li> </ul>
<b>공간</b>	번화가 5층의 50평 가량의 공간으로 별개의 주방이 있는 워크룸이 있음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북 소사이어티

구분	내용
<b>단체명</b>	북 소사이어티
<b>단체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구정연</li> <li>•연락처: 02-325-5336</li> <li>•주소 : 서울 마포구 상수동 331-8 층 3호</li> <li>•홈페이지 : <a href="http://www.thebooksociety.org">www.thebooksociety.org</a></li> </ul>
<b>조직구조</b>	자주 출판 미디어 버스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공간으로 구정연씨와 임경용씨 2명에서 조직을 구성, 운영함
<b>주체</b>	활동가 중심
<b>추진력</b>	시민운동 개인이 자신이 가진 콘텐츠를 발전시켜 잡지(진)의 형태로 소규모 출판하는 해외의 사례를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취미를 가진 문화, 예술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플랫폼으로 구성
<b>지역조건</b>	상수역은 홍대에서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지역으로 문화, 예술인의 거주 밀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어려움
<b>공간개념 (성격)</b>	기본적으로 서점 공간이며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 중간의 도서 진열 테이블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b>운영방식</b>	기획자 2인이 서점의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을 함께 하고 있으며, 주로 해외 서적들의 판매로 재원을 구성함. 그 외에 기획자 2인이 상업적, 비상업적 출판 기획을 진행함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국내외 소규모 출판사 및 개인 출판 콘텐츠를 소개하고 유통하고자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서점의 수익이외의 지속적인 다른 수익 구조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국내외 문화,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소규모 출판이라는 개념이 국내에서 대중적이지 않아 일반 시민이나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음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개요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 기회가 닿을 때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책을 출판한 작가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토크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임
프로그램 성격	<p>문화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크: 2010년에는 새로 책을 출간한 작가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책에 대한 설명회를 갖거나 디자이너들이 책 혹은 자신의 전반적인 작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짐</li> <li>•리딩룸: 함께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로 총 3개의 클래스에서 각각 미학, 예술이론, 건축과 정치이론, 상황주의 텍스트를 읽는 자리를 마련</li> <li>•퍼블리싱 이슈: 유럽과 한국의 소규모 출판에 관련된 기획, 제작 유통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주로 강연 형식으로 이뤄짐</li> <li>•페어: 국내외 자주 출판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자리. 유럽 및 국내 독립출판사, 개인, 작가 등이 참가하여 자신이 만든 책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고 관객과의 시간을 가짐</li> </ul>
대상	성인
운영방식	국내외 출판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디자인문화재단 등과 연계하여 진행되기도 함
공간	번화가에서 다소 떨어진 주택가 근방으로 1층의 대략 10평 정도의 소규모 서점 공간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대구 삼덕동 마을 만들기 운동

구분	내용
단체명	마을 만들기 운동(단체보다는 개인이 시작한 운동의 성격)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김경민(추진자)</li> <li>•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이 기획한 사업으로 대구 YMCA 중부지회 사무총장 김경민씨가 1998년 자기집 담장을 허물면서 골목의 공동 정원을 만들어 운동의 시초가 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함</li> </ul>
주체	활동가 중심
추진력	문화교육 실천 담을 허물고 공간을 나누게 되면서 주민들이 변화하고 지역의 자원들을

	공공의 자원으로 인식, 활용하여 마을 전체의 모습을 변화시키게 됨
<b>지역조건</b>	대구의 대표적 부촌이며 대구 시청 가까이에 자리한 삼덕동은 일제 시대부터 대구 시내 유력 인물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였음.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근교의 대규모 개발 지역으로 사람들이 옮겨감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 지역으로 변화하였으며 IMF 이후에 급격히 기움
<b>공간개념 (성격)</b>	거리의 담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삼덕동의 오랜 역사를 버리지 않고 지키고 가꾸기 위한 인식에서 마을 미술관, 마을 문화관, 녹색가게, 어린이집 등으로 공간이 확대됨
<b>운영방식</b>	지역의 역사가 있는 공간들을 정부(교육청 등)와의 오랜 교섭을 통해 위탁받거나 불하받아 공간이 확대, 운영 되고 지역의 YMCA운동과 연계되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로 발전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1998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어 13년간 꾸준히 진행됨. 또한 공동체의 축적된 경험으로 도시개발의 가장 큰 흐름인 재개발에도 문화적인 가치를 내세워 마을이 지켜짐. 일상과 연계되는 축제를 통해 앞으로의 잠재성까지 기대됨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담장 허물기에서 시작되어 벽화작업을 통해 골목이 재발견되고, 지역 커뮤니티의 밀도가 높아짐. 또한 마을의 일상과 연계되는 축제의 개발과 진행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확고해지고 지역의 타 커뮤니티와의 연계도 많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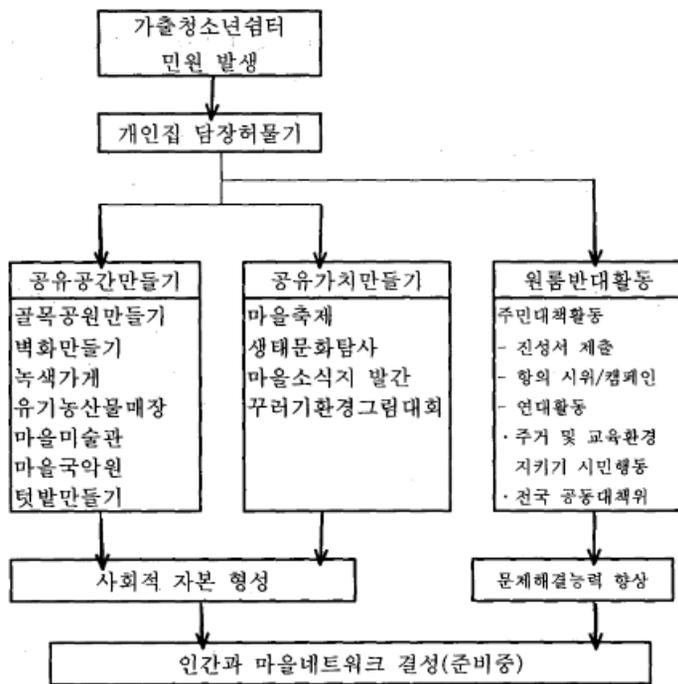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b>프로그램 개요</b>	일상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룸
<b>프로그램 성격</b>	<p>시민교육, 예술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장 허물기 운동: 이웃 간의 믿음과 정을 돈독히 하고 마을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함. 동사무소 담장 허물기, 삼덕초등학교 북편 담장 허물기 등 지속적인 담장 허물기 운동이 전개되어 삼덕동을 시초로 전국으로 확산됨</li> <li>•벽화 프로젝트: 병뚜껑 벽화, 암각화 벽화, 타일 벽화 등 담장을 벽화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함. 2009년 20채에 벽화를 200채로 확대하고자 계획함</li> <li>•길 카페: 세계 각국의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의 건강한 일자리 제공 교육을 동시에 실시함.</li> </ul>

Peace Trade는 노동부가 지원하고 대구 YMCA 청소년 평화 나눔센터가 운영하는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단임. 이를 통해 위기의 청소년과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고, 나아가 동티모르와 태국 북부 치앙마이 농촌 마을 등 제 3세계와의 공정무역을 통해 착한소비 망을 만듦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생산자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윤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의 기회를 제고하는 착한소비, 친환경 공정무역 사업.

- 희망자전거 제작소: 자전거의 수리, 임대, 판매를 통해 노인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프로그램

- 마을 잔치: 연 2회 마을잔치를 개최, 연 1회 꾸러기 환경 그림대회 개최. 또한 어린이집, 놀이방을 운영하여 저소득 여성 무료 보육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운영함. 마을 국악원, 미술관을 운영하고 대구광역시 청소년 쉼터와 중장기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음. 어린이 이동도서관 코코를 운영하여 도서관을 일상화를 지원함



<그림 1> 삼덕동 마을만들기운동 흐름도

대상	지역주민 전체
공간	삼덕동 마을 전체의 다양한 공간을 운영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카페 작은 나무

구분	내용
단체명	카페 작은 나무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락처: 02-3142-0414</li> <li>•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0-52</li> <li>•홈페이지 : <a href="http://cafe.naver.com/maulcafe">http://cafe.naver.com/maulcafe</a></li> </ul>
조직구조	120가구와 여러 단체가 조금씩 출자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려 함께 운영하고 있음
주체	시민 중심
추진력	시민운동 공동육아를 하던 엄마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고민한 데서 시작해 마을의 사랑방이자 마을 공동체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함
지역조건	성미산 마을 공동체가 있는 성산동에 위치하여, 처음 시작부터 공동출자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위기 상황마다 주민과 공동체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
공간개념 (성격)	카페 공간으로 아이들의 간식터이자 어른들의 사랑방 역할. 마을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엄마들이 잠시 맡기기도 하고, 마을의 소식을 전해주고 받는 마을 사랑방의 개념. 동시에 마을의 입구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가는 카페로서 공동체와 외부가 섞이는 장이 되고 있음
운영방식	다음과 네이버의 카페를 통해 출자자들이 소통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
지속성, 자생성, 잠재성	2004년 5명의 공동출자로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마을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경영난을 극복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경험하고 커가는 장소로써 향후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커뮤니티로 기능할 가능성
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	아이부터 성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전시회와 음악회 등의 문화 행사를 통해 예술과 문화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밀도를 높임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개요	공동체 주민들을 소재로 하는 전시회와 사진전을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음악회 진행

<b>프로그램 성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은 전시회: 비정기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사진 또는 그림을 전시. “마을 사람들 어린 시절 사진전” 혹은 성미산 마을을 배경으로 그림 그림들 전시</li> <li>•수요작은음악회: 매월 2회 진행되는 음악회</li> <li>•길가장터: 기증받은 책을 판매하고 기증 받기도 함</li> </ul>
<b>대상</b>	지역주민 전체
<b>운영방식</b>	운영위원회의 작은 사람들이라는 기획팀을 구성하여 운영
<b>공간</b>	카페 공간과 벽 공간을 이용하여 진행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맹산생태학습원

구분	내용
<b>단체명</b>	맹산생태학습원_성남환경지도자협의회 위탁 운영
<b>단체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백주희 회장</li> <li>•연락처: 031-702-1192</li> <li>•주소 : 맹산생태학습원/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422-3번지 성남 환경지도자 협의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 2동 647-5번지 71호</li> <li>•홈페이지 : <a href="http://cafe.naver.com/maulcafe">http://cafe.naver.com/maulcafe</a></li> </ul>
<b>조직구조</b>	성남지역 환경단체인 환경지도자협의회가 성남시에서 맹산생태 학습원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 하고 있음
<b>주체</b>	활동가 중심
<b>추진력</b>	교육운동 시민과 어린이 및 청소년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시민교육 운동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b>지역조건</b>	경기도 판교, 맹산 등은 수도권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성 도시로 자연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자연을 경험하는 방법은 왜곡되거나 한정되어 있음
<b>공간개념 (성격)</b>	맹산생태학습원은 맹산 자연 학교와 맹산 생태 공원 앞에 위치해 있어 공원을 통해 자연과 주거 지역을 잇는 역할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자생적으로 조직된 환경지도자협의회가 그 활동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성남시로부터 맹산생태학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관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자생성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봄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특히 유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와 성인층을 아우르고 프로그램의 운영 면에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두어 가족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구성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개요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체험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놀이활동: 멧돼지와 도토리, 뿌리뱅이의 겨울나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체험 놀이 학습 진행</li> <li>•자연물 만들기: 솔방울과 나뭇잎을 이용해 엽서나 액자를 만들</li> <li>•환경교육: 자연환경놀이, 숲 탐사, 학교 나무지도 만들기, 물로켓 만들기, 하천 탐사 등 초등 및 중등학생들에게 자연 체험 활동을 통한 자연환경에의 감수성 증진 및 환경 상상력을 키워주는 활동 진행</li> <li>•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운영</li> <li>•에코백 만들기, 세밀화 그리기, 팽이 만들기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li> </ul>
대상	지역주민 전체
공간	주변 생태 공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별자리 작은 도서관

구분	내용
단체명	별자리 작은 도서관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락처: 031-485-3570</li> <li>•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 2동</li> </ul>
조직구조	선부 2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 자치 위원회, 경일 고등학교,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노력하여 개관
주체	활동가, 시민 중심
추진력	시민운동 어린이들이 마을 생활권 안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서비스 공간을 만들고 성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지역문화를 만들고자 함
지역조건	선부 2동은 안산 외곽에 위치하여 주변에 문화시설이 거의 없어 도서관 등 문화 시설에 접근하려면 차를 타고 20여 분 정도 소요되는 문화적으로 열악한 지역. 또한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산에서 셋째로 많은 지역으로 교육, 문화 체험을 누릴 기회가 거의 없었음에도 市(시)소재지라는 이유로 각종 문화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지역
공간개념	경일고등학교 교육문화관 1층 40여 평을 도서관으로 꾸미고 온돌을 설치해

(성격)	주 사용자인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앉아서 책 읽고 뒹굴 수 있도록 함
지속성, 자생성, 잠재성	주민들은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활권 안의 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5년부터 '선부2동 마을도서관 만들기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경일 고등학교의 부지 제공 확보, 복권기금 지원 등으로 타협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많은 가능성을 보여줌
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 시설이라는 대의로 지역 주민들의 자생적인 커뮤니티가 생성되고 명칭공모부터 운영까지 주민과 고교생 자원활동가들로 이루어져 마을생활권 단위의 공동체주체 도서관의 모델로서 지역의 중심점 역할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개요	아동, 청소년 대상 독서 교육 프로그램과 마을 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
프로그램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통통 캐릭터랑 놀자, 호호마녀와 책읽기: 유아프로그램</li> <li>• 봄맞이러 가자, 송면산 공룡알 화석지 견학, 연날리기, 고구마 구워먹기: 마을 문화 만들기 프로그램, 야외 프로그램</li> <li>• 내가 직접 만드는 요리교실, 토요 영화 상영: 마을 사랑방 프로그램</li> </ul>
대상	지역주민 전체
공간	경일 고등학교 문화관 1층 40평 공간 외 선부2동에서 프로그램 진행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민중의 집

구분	내용
단체명	민중의 집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홍세화, 정경섭 공동대표</li> <li>• 연락처: 02-333-7701</li> <li>•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53-16 윤재빌딩 3층</li> <li>• 홈페이지 : <a href="http://www.peoplehouse.net/">http://www.peoplehouse.net/</a></li> </ul>

<b>조직구조</b>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재정이 이뤄지고 매년 정기 총회를 열어 운영위원과 회계감사를 선출하여 운영함. 공동대표 2인과 사무국장 1인, 그 외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3~5명의 비상근이 있음
<b>주체</b>	활동가, 시민 중심
<b>추진력</b>	시민운동 민중의 집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가꾸고 서로 나눔으로써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바꾸기 위해 만든 자치공간이자 공동체로써 지역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익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
<b>지역조건</b>	마포는 성미산을 중심으로 공동육아와 지역공동체를 꾸려가는 성미산 마을과 주민들이 직접 만든 라디오 방송국 마포FM까지 만들어낸 풀뿌리 공동체의 현장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생활협동조합과 대안학교 성미산 학교까지 생활이 된 시민운동의 장. 여기에 마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희망과 대안 가치를 실현하고자 민중의 집이라는 거점 공간을 두고 자치공간으로 운영
<b>공간개념 (성격)</b>	최초 민중의 집은 단독 주택을 임대하여 마당을 가진 공간이었으나 2011년 2월에 성산동 윤재빌딩 3층으로 이전함.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며 공공공간보다 공유 공간의 개념으로 봄
<b>운영방식</b>	매년 1회 후원자, 후원회원 전체가 모이는 정기총회를 열어 운영위원과 회계감사를 선출하여 의사 결정함.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재원이 구성됨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완전 독립하고자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며,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자원활동으로 운영함. 또한 시민단체, 노동조합, 영세 상인과 함께 다양한 지역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생성 뿐 아니라 향후 발전 잠재성을 가짐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지역 커뮤니티 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상인회를 단체 회원으로 받아들여 지역을 만드는 경제, 정치적 다양한 층위의 커뮤니티를 아우르고 있으며 매주, 매달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자발적 동아리 활동으로 밀도 높은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음

####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b>프로그램 개요</b>	아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배움터이자 놀이터 개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성인들에게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b>프로그램</b>	•토끼똥 공부방: 매일 오후 2시부터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

성격	<p>함. 무료로 운영되며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대안적 교육과정. 중학생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배움터는 청소년 독서토론교실이며 일주일에 한 번 인문학 토론과 특별활동을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강좌: 자발적인 공부 모임과 생활 기술을 나누는 모임</li> <li>•시민강좌: 인문, 사회 분야의 교양을 쌓기 위한 강좌로 천원 강좌이기도 함. 대부분 강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고 주민들은 1천 원을 내고 듣는 형식</li> <li>•화요밥상: 매주 화요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임</li> <li>•다정한 시장: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재활용 베품시장</li> <li>•자전거 마실모임, 라틴아메리카 공부모임, 합창 모임: 취미로 시작해 동아리를 이룬 자발적 시민 모임</li> </ul>
대상	지역주민 전체
운영방식	자원활동과 재능기부
공간	민중의 집 공간에서 이뤄지거나 다정한 시장의 경우 마을 공원을 활용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가제트공방

구분	내용
단체명	가제트(GA-Z)공방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이광익</li> <li>•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165-1</li> <li>•홈페이지 :<a href="http://cafe.daum.net/Langwood/">http://cafe.daum.net/Langwood/</a></li> </ul>
조직구조	8명의 어머니들과 목공기술자 이광익씨가 공동출자하여 운영. 수직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
주체	활동가, 시민 중심
추진력	<p>시민운동</p> <p>도시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을 무조건 소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기술을 익혀 직접 만들 것을 지향하며 생활 속의 자원과 재활용,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함</p>
지역조건	마포구에서 가장 인구수(4만 명)가 많으며 저소득층 인구비율도 높은 편이어서 마포구 전체 저소득층의 30%를 차지하며 또한 19세 이하의 인구비율도 25%로 평균치를 웃도는 지역임
공간개념 (성격)	공동 작업장으로 8명의 공동출자 어머니들과 공유하여 목공 수업을 운영하고 방과 후 공부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

<b>운영방식</b>	의사결정 방법은 이광익씨와 8명의 공동 출자자가 모두 동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원의 경우 공방 프로그램 참여비로 충당하며 부족한 경우 공동 출자자가 분담하여 마련함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공동 육아에서 시작해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2년여 간 공방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공간의 1층은 공동 작업장, 2층은 공간 대여로 인한 수익창출, 3층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운영하여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보임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공동 작업장을 통해 낮 시간에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저녁 시간에는 직장인과 아버지들이 목공을 배우며 커뮤니티를 이뤄가고 있음. 주변의 성미산 공동체와 연계하여 어린이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함. 아직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의 커뮤니티와의 연계 가능성을 가짐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b>프로그램 개요</b>	목공을 중심으로 기술을 배우면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에 주안점을 둠
<b>프로그램 성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 목공교실, 가구 조립, 목공 입문교실, 목공 중급교실, 가구도면 등 목공에 관하여 상, 중, 하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초급은 8명의 어머니들이 나누어, 중, 고급은 작가가 진행함</li> <li>•자투리 나무를 활용한 초등학생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함</li> <li>•이 외에 2층 공간에서 켈트, 가죽공예, 포크 아트, 한지 공예, 영화 상영회 등을 진행하지만 자체 기획이 아닌 프로그램에 대한 공간 임대 성격</li> </ul>
<b>대상</b>	지역주민 전체
<b>운영방식</b>	회원제 운영
<b>공간</b>	가제트 공방 3층 건물에서 이뤄짐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정배마을분교

구분	내용
<b>단체명</b>	정배마을/ 정배분교
<b>단체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이장 백건우</li> <li>•주소 : 경기도 양평군 정배마을 정배학교</li> <li>•홈페이지 : <a href="http://jungbae.net/main3">http://jungbae.net/main3</a></li> </ul>
<b>주체</b>	시민 중심

<b>추진력</b>	교육운동 2000년 정배마을의 정배분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하자 부모들과 마을이 음악회, 장터 등을 열어 학교의 존재 당위성을 알림. 정배마을을 꾸리고 함께 만들어온 경험이 정배 학교를 만들어냄
<b>지역조건</b>	양평군은 경기도 최동부에 있는 군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군이지만 대부분이 산림자원임. 2009년 용문역까지 수도권 전철 중앙선이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서울 생활권에 진입한 지역임. 정배마을이 형성된 이후 귀촌인들이 많이 유입됨
<b>공간개념 (성격)</b>	농촌 마을에 작은 공립학교 건물을 활용한 공공 공간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자생적으로 귀촌, 귀농 마을을 꾸려온 정배마을에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지금은 서종면과 양평군 전체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학교가 받아들여지고, 학부모와 교사, 어린이가 함께 개발하는 대안학교로 기능하고 있음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20명 남짓이던 아이들이 5~6년 만에 75명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주민들도 늘어 7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던 마을에 40대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가족 가구가 많이 늘어남. 학교를 중심으로 정배마을의 마을 문화를 다른 지역과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거점이 되어가고 있음
<b>기타</b>	마을 도서관이나 배꼽마당이라는 문화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져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함

####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b>구분</b>	<b>내용</b>
<b>프로그램 개요</b>	대안학교의 특성을 가지고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음
<b>프로그램 성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동네 음악회: 학교 살리기에서 시작해 이미 100회 넘게 진행되고 있음</li> <li>•연극: 지역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참여해 아이들과 연극을 진행</li> <li>•가을 은행 축제: 마을잔치 개념</li> <li>•전시회 :마을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열기도 함</li> <li>•오카리나 엄마, 가야금 엄마, 비누공방 엄마, 사물놀이 아빠, 자전거 아빠, 동네축구 아빠 등 부모들이 직접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li> </ul>
<b>대상</b>	지역주민 전체
<b>공간</b>	정배마을, 정배학교 분교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장미도서관

구분	내용
단체명	장미도서관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락처: 031-285-7779</li> <li>•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95번지 장미마을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 내.</li> <li>•홈페이지 : <a href="http://www.roselibrary.com/">http://www.roselibrary.com/</a></li> </ul>
조직구조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모임이 입주자 대표회의 산하기구로 있으며 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음
주체	시민 중심
추진력	교육운동 빽빽한 아파트촌에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어울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관의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아파트 주민 외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서관을 개방하게 됨
지역조건	용인시는 경기도 국악당과 경기도 박물관, 백남준 아트센터 등이 자리해 문화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생활에서 접하기는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생활권 안에서의 문화경험을 위한 장치들이 부족해 아파트와 주거지역에서 주민 중심의 도서관 사업이 활발히 일어남
공간개념 (성격)	공공공간 아파트 중앙광장 지하 82평 공간을 도서관으로 꾸며 기획부터 완공까지 주민들의 노력으로 진행함. 삼성에서 장서 구입과 내부 장식 비용 1억 원을 지원 받고 관으로부터 도서 구입비 약 4천만 원을 지원받아 공공공간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함
운영방식	주민 자원봉사자
지속성, 자생성, 잠재성	지역 내, 단지 내에서 아이들을 pc방과 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이며 기업과 정부의 후원으로 재원을 보충하게 되어 다소 자생성은 부족하지만 장서를 1만 권까지 늘리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므로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큼
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힘으로, 단지 내에 만들어진 도서관으로서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가 부족할 수 있었으나,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지역 전체에 도서관을 개방하고 여름, 겨울 방학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자원활동으로 운영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b>프로그램 개요</b>	성인과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렴한 수강료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b>프로그램 성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 상영: 월 1회 저녁시간에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li> <li>•색종이 접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급수별로 나누어 난이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업이 진행됨</li> <li>•그림자극: 주민들이 웃음꽃 극단을 만들고 평생학습센터의 도움을 받아 인형극을 배우고 진행. 아이들이 대사를 녹음하고 엄마들이 그에 따라 인형극을 직접 조종하여 한편의 극을 올리게 됨</li> <li>•비즈와 미술: 아이들을 위한 미술수업과 성인을 위한 수업으로 나누어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함</li> <li>•방학특강: 여름, 겨울방학을 맞아 과학교실과 동요성악 교실, 한국사 이야기, 함께 책읽기, 쿠키 만들기 등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유아를 위한 영어 교실도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음</li> <li>•글쓰기 수업: 2년여 동안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함</li> <li>•동화사랑: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데 느끼는 문제들을 공유하고 동화와 책읽기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으로 각 회원들의 집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고 아이들에게 직접 그림동화를 상영회 식으로 공연하기도 함</li> <li>•도깨비 시장: 가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 활용 시장</li> <li>•여름캠프: 여름 방학 시즌 1~2일로 진행되는 기획프로그램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저녁식사, 요리책 만들기, 명랑 운동회, 음악에 맞춰 댄스 배우기, 나만의 비닐우산 꾸미기, 오방색 실뜨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li> <li>•전시회: 책을 주제로 아이들과 주민들이 직접 그리는 그림, 시화를 전시</li> </ul>
<b>대상</b>	지역주민 전체
<b>운영방식</b>	주민 자원봉사
<b>공간</b>	장미 도서관 외 회원들 주거 공간 활용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도토리 미디어 사랑방

구분	내용
단체명	도토리 미디어 사랑방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한현주</li> <li>•연락처: 031-914-1394</li> <li>•주소: 경기 일산서구 대화동 2012-3 찬미술 지하</li> <li>•홈페이지: <a href="http://www.dotorimedia.net/">http://www.dotorimedia.net/</a></li> </ul>
조직구조	한현주 대표 휘하 미디어 활동가 2명과 사서 1명, 프로젝트 기획 강사 1명 총 5명이 운영
주체	활동가 중심
추진력	교육운동 디지털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디지털 문화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활동가를 중심으로 학부모가 모이게 됨
지역조건	고양시의 특징은 베드타운으로 1980년대만 해도 16만 명 정도에 농업 중심 도시였으며 수도권 개발 규제로 채소와 화훼 등이 발달해 있었음. 1990년대 초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일산이 급속도로 성장해 인구가 96만 명에 달하며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임. 일산은 고양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신도시 아파트가 들어서 있음. 미디어 사랑방은 작지만 접근하기 쉬운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수월함
공간개념 (성격)	사랑방 개념 아파트촌에 둘러싸여 있으며 2층짜리 작은 건물. 15평의 공간을 4곳으로 나누어 DVD도서열람실과 영화 감상실, 미디어교육실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원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
운영방식	한현주 대표와 미디어 활동가들이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해 기획, 의사 결정을 진행함. 회원제로 운영되므로 소정의 재원을 마련하고 그 외 관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운영함
지속성, 자생성, 잠재성	어린이들을 미디어로부터 보호하기보다 좋은 미디어와 좋은 영화를 소개하고 미디어를 통한 대안교육을 활동가가 자발적으로 기획 운영하며 학원, 학교와 달리 아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공간으로 구실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기대됨
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	어린이들을 주요 참여자로 하여 청소년들까지 포함함. 학부모 등 성인을 위한 커뮤니티는 구성되지 않고 있어 참여 범위는 한정적임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b>프로그램 개요</b>	직접 해봄으로써 배우기라는 제작 중심의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디어로 자기표현이 가능하도록 함
<b>프로그램 성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은 영화제: 1200여 편의 희귀영화들을 소장하여 깊이 있는 영상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상영. 매월 상영회를 열고 해마다 야외 영화제를 옴. 이 영화제에는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만든 작품을 상영하고 KBS 열린 채널 등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작품을 발표함</li> <li>•인터넷 어린이 방송국 DMR: 어린이들이 직접 인터넷 방송국을 기획, 운영</li> <li>•미디어문화학교: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체별, 주제별 미디어 탐구와 토론, 제작을 병행. 방학 기간에는 미디어 캠프를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미디어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과정을 마친 아이들은 작품 상영회를 갖고 영상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매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배워감</li> <li>•애니메이션 제작, 가족 신문 만들기, 포토샵과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배우고 오디오 녹음 및 편집 방법과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의 활용 기술도 함께 배움</li> </ul>
<b>대상</b>	아동, 청소년 주요 대상
<b>운영방식</b>	관장 및 기획자들
<b>공간</b>	도토리 사랑방 외 주변 지역 활용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 지역공동체 흥동마을

구분	내용
<b>단체명</b>	지역 공동체 흥동마을 지역센터 마을 활력소
<b>단체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홍순명, 주형로</li> <li>•연락처: 042-220-3215</li> <li>•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흥동마을</li> </ul>
<b>조직구조</b>	공동대표 체제이며 주민들이 만든 마을 기업. 상근직원 7명과 비상근직원이 일함
<b>주체</b>	시민

<b>추진력</b>	시민운동 홍성의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100여 명에 가까운 젊은 귀농자들이 홍성지역에 모이게 되고 인근 홍동마을은 새로운 대안 에너지와 지역 공동체 복원, 대안화폐를 꿈꾸는 마을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었음
<b>지역조건</b>	1958년에 설립해 생태교육과 생명교육, 먹거리 교육을 하는 풀무학교가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의 유기농 재배 단지가 생성되어 있음
<b>공간개념 (성격)</b>	홍동마을은 마을 곳곳에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어 마을 전체를 공간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
<b>운영방식</b>	국내에 벼농사 오리농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주형로씨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교장을 지낸 홍순명씨가 공동대표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원하여 마을카페, 마을지도를 제작하는 디자인 조합 등을 기획, 운영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유기농 농업과 풀무학교 등으로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환경과 공동체 문제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자 함. 또한 해외사례를 통해 대안 화폐를 마을 차원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는 등 앞으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이 있음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도서관을 주민의 힘으로 마련하고 청소년에 생태교육을 담당하는 풀무학교, 성인을 위한 카페이자 문화 공간 등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전체를 아우를 뿐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고 있음

####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b>구분</b>	<b>내용</b>
<b>프로그램 개요</b>	지역 주민들이 공동 출자하여 다양한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며 각 공간에서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은 운영 중
<b>프로그램 성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네 마실방 뜰: 분식집이자 카페이며 주점이나 콘서트장. 1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공동출자하여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하는 마을 공간</li> <li>•그물코 출판사: 지역 출판사로 지역의 출판문화를 이끌고 있음</li> <li>•풀무학교 생활협동조합: 풀무비누, 갓골 작은가게, 현책방 느티나무 등을 운영하며 채식쿠키 강좌와 ‘글로벌푸드에서 로컬푸드’ 등의 강좌를 진행함</li> <li>•밤땀도서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 도서관</li> <li>•마을 활력소: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으로 지역의 활발한 사업을 고민하며 젊은 귀농인들이 많이 활동</li> </ul>

	•갓골목공소: 지역이 기술자들이 모여 물건을 만들고 목공 기술을 전수함
대상	지역주민 전체
운영방식	지역주민들이 마을 활력소를 중심으로 모여 의사결정하며 주로 공동출자로 재원을 마련함
공간	카페, 목공소, 도서관, 학교 등의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를 활용

##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 이웃센터

구분	내용
단체명	이웃센터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홍순명, 주형로</li> <li>•연락처: 031-246-3313</li> <li>•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29</li> </ul>
조직구조	향후 놀이를 바탕으로 한 생협을 지향하는 단체로 일반회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활동은 주민 5명 내외, 활동가 3명이 주축을 이룸
주체	활동가, 시민 활동가 중심이나 공간 활용은 시민에 개방되어 있음
추진력	시민운동 청년 동지라는 수원지역을 기반으로 20대의 사회적 활동을 기획하고 추동한 경험이 많으며 그 외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의 기획이나 운영, 강사로 참여하여 다양한 네트워크와 실행력을 두루 갖추
지역조건	이동 인구수가 많고 최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검증한 곳임.(못골시장, 지동시장 옆) 인근지역이 수원에서도 대표되는 문화취약 동네여서 미취학아동이나 노인, 그중에서도 한 부모 가정의 부모, 가족, 노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함
공간개념 (성격)	사랑방 공간 대표자를 비롯해 구성인원의 연령대가 20~30대로 이뤄져 청년들의 대안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과 활동이 주를 이룸
운영방식	현재는 임의단체 형식이며, 조만간 비영리민간단체로 향후에는 생협으로의 발전단계를 계획함. 활동가 중심의 운영위원들이 활동의 기획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일반 회원 및 조합원들의 역할과 비중을 키울 예정임. 사회적 기업 (주)이웃이 매출액 중 일부를 이웃센터에 기부하여

	예산을 마련하고 있음. 이웃센터는 중요한 활동내용인 공동체 화폐 '움'의 활성화를 통해 공간운영의 방향과 구체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그려나가고자 함.(주민들이 기획, 운영에 품앗이를 통해 참여하는 등의 형태)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재정의 지속적인 확보가 관건으로, (주)이웃의 운영 인력과 문화 공간 이웃센터의 운영 인력이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원활한 업무분담이 이뤄지지 않음.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가시적인 피드백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활동방향의 자생성을 지향하고 있으나 다양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함. 발전 가능성은 기대됨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아주대학교, 예술인, 복지단체, 수원여성회 등 다양한 NGO들과 기존의 민관 네트워크의 경험과 자산이 풍부함. 협력 사업을 통해 실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어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차원의 문화예술학습 부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함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b>프로그램 개요</b>	문화, 예술, 시민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특히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주력함
<b>프로그램 성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사랑방: 따뜻한 사랑방에 옹기종이 모여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이야기를 만들</li> <li>-책 읽어주는 여자: 다과를 함께 하는 책방에서 이웃집 언니가 이야기를 들려줌</li> <li>-화성 스토리텔링 클럽: 화성을 소재로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수원화성 이야기 지도를 만들</li> <li>-골방영화제: 동네 영화광들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 영화 상영</li> <li>•배움네트워크: 마을 주민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이웃 사이에 배움의 교류가 활발해지도록 함</li> <li>-소규모 강좌: 바느질, 목공, 영어, 바리스타 등 서로 가르치고 배움</li> <li>-재능 베품시장: 지역의 재능을 가진 이웃을 찾아 만나고 배우며 소통의 장 마련</li> <li>•열린 세미나: 관심 주제에 관해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세미나.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진행</li> <li>- '사회적 자본' 세미나: 조금은 난해해 보이는 '사회적 자본'이란 무엇일까? 지금 사회의 난제들에 필요한 신뢰와 협동, 어떻게 실천할까?</li> </ul>

대상	지역 주민
운영방식	활동가 중심의 운영위원들이 기획 진행함
공간	이웃센터 공간에서 진행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 칠보산 도토리교실

구분	내용
단체명	칠보산 도토리교실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회원들이 역할 분담하여 운영</li> <li>•연락처: 031-302-6765</li> <li>•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LG빌리지 405동 1001</li> <li>•홈페이지: <a href="http://cafe.daum.net/dotoliroom">http://cafe.daum.net/dotoliroom</a></li> <li>•칠보산의 생태를 보존하고 생태교육, 환경 프로그램 개발, 자연공방, 생협 활동 등을 통해 지역을 친환경적인 공동체로 가꿔가고자 함</li> </ul>
조직구조	회원(적극적 참여의 참나무 회원과 일반 후원회원으로 구성)
주체	시민 지역 주민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
추진력	시민운동, 문화교육 실천 교육, 환경, 문화,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조직한 활동 공동체들이 연대하여 조직함. 공간 운영 및 청소년 교육, 생태교육, 어린이집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 지역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밀도 높은 커뮤니티가 구성됨.
지역조건	칠보산은 산이라고 하기에는 낮은 높이인 238m로, 산이 없는 수원지역이의 넓은 평지에 동네 뒷산 높이의 칠보산이 있음.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이 개발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낮은 높이로 아이들이 오르기에 어렵지 않아 산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위한 생태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공간개념 (성격)	개방형 교육 공간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기보다 칠보산과 주변의 논, 밭을 중심으로 환경 생태 학습 및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운영방식	의사 결정 및 논의는 온라인(카페)에서 이뤄지고 있음. 지역 주민 회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카페에 올리고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댓글과 의견들을 달아 프로그램이 기획됨. 소요되는 비용도 같은 방법을 통해 결정됨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마을신문 제작 등을 통해 프로그램 및 활동 등을 아카이빙 하고 있음. 칠보산 도토리교실이 위치한 호매실, 금곡동 일대의 다른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속, 발전 가능성이 기대됨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학부모 연대, 지역예술인, 환경운동, 문화 기관 등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과의 연계도가 매우 높음. 그러나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성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 않은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개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층위의 커뮤니티들과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b>프로그램 개요</b>	생태교육, 환경 프로그램 개발, 자연 공방 생협 활동을 진행함
<b>프로그램 성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칠보산 모니터링 및 환경프로그램 개발</li> <li>•두꺼비논 경작을 통한 두꺼비 개구리 살리기</li> <li>•생태지도자 육성을 위한 연구 개최와 환경 교육</li> <li>• ‘선데이 마켓’ 을 통한 자원 재활용 운동</li> <li>•환경 캠프 개최</li> </ul>
<b>대상</b>	지역 주민
<b>운영방식</b>	2003년 지역의 작은 환경 센터 역할을 위해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수원 교사 모임 임종길, 송인식 선생님이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교사와 지역 주민이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b>공간</b>	도토리교실, 칠보산, 두꺼비논에서 주로 활동이 이루어짐

###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 맹꽂이책방

구분	내용
<b>단체명</b>	맹꽂이책방
<b>단체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2, 하상공원 내</li> <li>•홈페이지: <a href="http://cafe.naver.com/maengkkongi">http://cafe.naver.com/maengkkongi</a></li> </ul>
<b>조직구조</b>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자원활동가
<b>주체</b>	시민 주민활동가(책방 지킴이)
<b>추진력</b>	시민운동

	지역주민들이 시민운동을 접한 경험이 풍부한 편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 운영 할 시민의식 기반이 있음
<b>지역조건</b>	경기도 중에서도 시흥은 대안적인 문화 활동이 활발함. 대안적 문화 활동을 하는 예술인은 많이 있으나 공공기반시설이 부족한 곳 중 하나로 맹꽁이 책방은 다세대 주택 2,700여 세대가 밀집해있는 지역에 위치함.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위치해 주민들의 참여가 쉬운 편으로 현재 가입회원은 1,100명 정도임
<b>공간개념 (성격)</b>	공공공간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라이브러리로 주민들이 운영주체임
<b>운영방식</b>	사이트와 맹꽁이도서관을 이용한 공동논의가 진행되고 합의를 통해 운영 책방의 제작, 설치,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까지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원, 일부 자부담과 지역 후원으로 이뤄졌으나 향후 자립 운영을 위해 적극적 노력 중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주민주체정도나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며, 구성원들의 열정과 의지가 높아 지속성과 자생성이 높은 편. 또한 지역 내 문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앞으로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봄. 다만 재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함.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현재까지 책방을 운영하는데 있어 기존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와 협업으로 기본 운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자원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후에도 책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주민 참여의 질과 밀도를 높이려 노력함

####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b>프로그램 개요</b>	‘사라져가는 가치와 관계’ 라는 키워드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커뮤니티형 프로그램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b>프로그램 성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끝 수다방</li> <li>•맹꽁이 마당 영화</li> <li>•맹꽁이 서당: 어린이 고전 읽기, 청소년 인문학, 보따리 시장, 지구살림, 맹꽁이 텃밭, 맹꽁이 합창단, 동네세배 등</li> </ul>
<b>대상</b>	지역 주민
<b>운영방식</b>	공간운영방식과 동일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 남부시장 하늘정원

구분	내용
단체명	사회적 기업 이음_남부시장 하늘정원 카페나비, 공방이음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김병수</li> <li>•연락처: 063-288-9406</li> <li>•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동 1가 13-1번지</li> <li>•홈페이지: <a href="http://www.ieum.or.kr">http://www.ieum.or.kr</a></li> </ul>
조직구조	청년 시장 사업가들과 남부 시장 번영회, 사회적 기업 이음의 합의체로 문전성시 지원사업에서 벗어난 청년장사꾼 협동조합 운영방식을 논의 중임 이사회와 경영지원실, 정책기획과로 크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커뮤니티들을 연합, 통합, 연결하며 운영되고 있음
주체	활동가, 시민 남부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시장 청년들과 남부시장 번영회 등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기업 이음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활동함
추진력	시민운동, 문화교육 실천 남부시장 상인과 시장을 찾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공연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지역조건	오랜 역사를 간직한 남부시장은 1960년~1970년대까지의 전성기를 누리고 그 이후로 차츰 쇠퇴하여 현재는 시장 상인들의 90% 이상이 60대 이상임. 1,200여 명 정도의 상인들 대부분이 30여 년 이상 시장을 터전으로 생활해왔으나 오랫동안 시장 건물 2층이 유희공간으로 방치되어 왔음. 주변의 한옥마을이 유명관광지가 되면서 청년 공간지원 문화예술 비즈니스를 통한 남부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함
공간개념 (성격)	카페, 공공공간 카페 등의 개별 영업공간들과 동아리 운영과 문화교육이 가능한 공동 사용 공간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카페나 공방 등의 개별 영업공간에서 세미나,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남부시장 하늘 정원은 상업공간과 야외 휴식 공간, 공방 등 공공 교육 공간, 야시장 공간 등 다양한 계층적 합의와 활성과가 가능한 공간임
운영방식	공공 프로그램은 각각 주체들 간의 회의를 통해 함께 결정하고 개별 점포는 개별 일정에 따라 진행함. 주민 문화 교육과 동아리 활동은 개별 지원을 받은 형식으로 운영됨
지속성, 자생성, 잠재성	남부시장의 내적 동력 확보와 지역관광 시장으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들을 결합시키는 중심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청년 주민들의 시장 내 안정적인 정착은 전통시장의 순환경제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거점

	공간의 역할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 현재 비어 있는 20여 개 점포 공간을 재생시키고 공간과 비즈니스 활성화, 복지적 성격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봄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기존 남부시장 상인과의 연계성을 높여가기 위해 문화공연, 프로그램 등을 확대, 지속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청년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모임 및 간담회를 마련하여 창업 인큐베이팅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공공작업소 심심, 청춘작업소, 향교문화사업단, 공공미디어팀, P-bar, 달이양상블, 자연음식연구소 풀꽃, 전통한옥생활체험관 등이 서로 연계되어 커뮤니티의 밀도를 높임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b>프로그램 개요</b>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육과 상인들을 위한 문화, 예술교실을 제공하며 지역의 문화 공간을 확대하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b>프로그램 성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페 나비의 커피교실 / 아카펠라 교실</li> <li>•협동조합 포럼 / 청년 아카데미 2기 운영</li> <li>•청년 야시장</li> <li>•인디푸르나 교실_시장체험교육 프로그램</li> <li>•상인 동아리 풍물단</li> <li>•상인 민요교실</li> <li>•상인 디자이너 스쿨</li> </ul>
<b>대상</b>	남부시장 상인 및 고객, 지역 주민
<b>운영방식</b>	개별 상업 공간은 개별 운영되며 공공 공간은 사회적 기업 이음과 시장변영회가 함께 운영함
<b>공간</b>	남부시장 내 6동 2층 일대 하늘정원 공간

■ 시민문화공간 국내 사례 분석\_ 노송동-어울터

구분	내용
<b>단체명</b>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노송동-어울터)
<b>단체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이연숙 센터장</li> <li>•연락처: 063-231-0425</li> <li>•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700-3 우정빌딩 301</li> <li>•홈페이지: <a href="http://jeonju.kourc.or.kr/tb/jeonju/intro">http://jeonju.kourc.or.kr/tb/jeonju/intro</a></li> </ul>

<b>조직구조</b>	도시재생R&D사업 테스트드 협의회 휘하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팀, 현장 책임팀, 사무국, 자문위원단, 상가지구 지원팀, 주거지구 지원팀, 녹색기술 지원팀으로 구성됨
<b>주체</b>	활동가, 시민 활동가 중심의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대학생 서포터즈, 문화예술재능 기부자 등 자발적 시민 조직들이 함께 운영함
<b>추진력</b>	시민운동, 교육운동 노송동 일원은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생 R&D 노후주거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을 찾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노후주거지 재생을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이에 전문가 집단과 대학생 서포터즈, 마을 주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시민 조직화될 기회를 갖게 됨
<b>지역조건</b>	노송동은 시내권역에 포함되지만 선미촌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환경 문제로 인해 아동 및 성인 인구는 낮고 노인 인구 밀도가 높음. 선미촌으로 인해 손상된 지역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하며 선미촌 사업을 통해 경제력을 가진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으로 나뉘어져 있음. 지역 주거 공간 노후화로 인해 빈집과 철거 대상 공간이 많아 문제가 발생할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음
<b>공간개념 (성격)</b>	공공공간 •노송동-어울터는 사유지로 2층의 주거건물을 재생하여 1층은 주민 쉼터로 리모델링하고 2층을 마을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음. 전시 및 교육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 공간으로 구성함 •마을공방은 주민기부로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어울터와 3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본래는 슈퍼였으나 공방으로 개조하여 문화교육과 지역 홍보의 기능을 담당함
<b>운영방식</b>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자력재생을 위한 주민협조체제를 기본으로 함. 지역의 여건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기획되어 운영됨 2012년부터는 주민주도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구상하고 있으며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공동체 내 인력을 양성하고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연구 중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국토해양부의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의 변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즉 자생성은 다소 낮을 수 있으나 주민들의 주체적 활동과 역할로 인한 잠재성이 기대됨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지역주민의 이해과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의 통장들과 결합하여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지역 내 연계 가능한 커뮤니티와 정보를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개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됨
프로그램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송동-어울터, 노송천-어울터, 마을공방: 주민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이나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li> <li>•천사축제: 노송동 엔젤이라는 얼굴 없는 천사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며 별명을 따 주민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축제를 진행함</li> <li>•축제학교: 지역 특성화 축제 개발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축제, 동아리 결성</li> <li>•기자학교: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이 찾고 지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운영</li> <li>•우리도 즐겨보세!: 재능기부자와 마을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공연 및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li> <li>•재생학교 ‘우리는 골목대장’: 아동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통해 배우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li> <li>•가치 있는 나! 가치 있게 쓰자!: 지역으로 찾는 청소년 진로탐색 활동</li> <li>•맑은 소리, 고운소리 시낭송 교육: 시낭송을 잘하시는 지역 어르신이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을 통한 동시 짓기, 시낭송 등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여 진행</li> <li>•빨래축제: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를 통한 나눔 봉사 축제 진행</li> <li>•동네극장: 동네의 빈 벽과 공터를 이용해 미디어를 통한 지역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영화를 상영하여 문화 소외 계층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함</li> <li>•주민백서: 마을에서 자랑하고 싶은 대상을 찾아 지역 대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서를 제작하는 지역문화 아카이빙 작업</li> <li>•장사 잘되는 집 앞치마: 지역대학 의상학과 학생들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들에게 맞는 앞치마를 디자인하고 로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li> </ul>
대상	지역주민
운영방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음
공간	노송동 TB 주거지역 및 인근 주택

## 2. 국외 사례

### ■ 시민문화공간 해외 사례 분석\_ Cafes Columbia

구분	내용
단체명	Cafes Columbia
단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 Picnic Market Cafe, NY</li> <li>•홈페이지: <a href="http://alumni.columbia.edu/research-learn/cafes-columbia">http://alumni.columbia.edu/research-learn/cafes-columbia</a></li> </ul>
프로그램 성격	<p>시민교육, 문화교육, 사회교육 〈강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afe Columbia: A Brief History of Justice (한눈에 보는 정의의 역사)</li> <li>•Cafe Science: Exploring the Birth and Death of Black Holes (블랙홀의 탄생과 죽음 탐색하기)</li> <li>•Cafe Humanities: Audacious Fraud or Masterful Imitation? (대범한 사기 혹은 위대한 모방?)</li> <li>•Cafe Social Science: Storable Votes: Protecting the Minority Voice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기)</li> <li>•Cafe Columbia: Understanding Occupy Wall Street (Occupy Wall Street 올바르게 이해하기)</li> <li>•Cafe Humanities: Prisoners and Poets in the English Renaissance (영국 르네상스의 죄수 와 시인들)</li> </ul>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scussions on us, drinks on you” ( “강의/토론은 우리가 쓴다; 술은 너희가 쓰라” ) 의 구호</li> <li>•Picnic Market Cafe 에서 자유로운 바(bar) 분위기 속에 술과 함께 진행되는 강의</li> <li>•콜롬비아대 교수진이 예술, 인문학, 과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의를 하며 토론을 주도함</li> <li>•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0달러의 입장료를 내고 강의에 참석 할 수 있으며 드링크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음</li> </ul>

대상	일반인, Picnic Market Cafe 고객, 콜럼비아대 학생 등등
공간	Picnic Market Cafe / 카페, 바
기타	<div data-bbox="458 374 1106 648">  <p><b>Café Columbia</b> EAT. DRINK. TALK WITH COLUMBIA PROFESSORS PICNIC CAFE, 2665 BROADWAY, NYC</p> <p>cafecolumbia@columbia.edu.</p> </div> <div data-bbox="753 388 1092 570"> <p><b>Café Columbia</b> View Upcoming Café Columbias &gt;</p> <p>Join us for a monthly discussion of all things Columbia! Café Columbia recent speakers include: Eric Foner '83CC, '89GSAS, Anna Frajlich, and Mamadou Diouf. To join our Café Columbia event distribution list or for more information about Café Columbia, contact us at</p> </div> <hr/> <div data-bbox="468 678 739 854">  <p><b>Café Science</b> EAT. DRINK. TALK SCIENCE WITH COLUMBIA PROFESSORS PICNIC CAFE, 2665 BROADWAY, NYC</p> <p>Science, contact us at cafescience@columbia.edu.</p> </div> <div data-bbox="753 678 1092 854"> <p><b>Café Science</b> View Upcoming Café Science &gt;</p> <p>Everyone needs to know more about current science research. Café Science recent speakers include: Charles Dimaggio '93PH, '01GSAS, '02GSAS, Steven Feiner, Norman Kleiman, and Brent R. Stockwell. To join our Café Science event distribution list or for more information about Café</p> </div> <hr/> <div data-bbox="468 972 739 1148">  <p><b>Café Humanities</b> EAT. DRINK. TALK HUMANITIES WITH COLUMBIA PROFESSORS PICNIC CAFE, 2665 BROADWAY, NYC</p> <p>Humanities, contact us at cafehumanities@columbia.edu.</p> </div> <div data-bbox="753 972 1092 1158"> <p><b>Café Humanities</b> View Upcoming Café Humanities &gt;</p> <p>What's new with the past? Find out at this monthly gathering. Café Humanities recent speakers include: Mary Marshall Clark and Peter Bearman, Jenny Davidson, Souleymane Bachir Diagne, and Katja Vogt. To join our Café Humanities event distribution list or for more information about Café</p> </div> <hr/> <div data-bbox="468 1266 739 1442">  <p><b>Café Social Science</b> EAT. DRINK. TALK SOCIAL SCIENCE WITH COLUMBIA PROFESSORS PICNIC CAFE, 2665 BROADWAY, NYC</p> <p>cafesocialscience@columbia.edu.</p> </div> <div data-bbox="753 1266 1092 1452"> <p><b>Café Social Science</b> View Upcoming Café Social Science &gt;</p> <p>Quantify human issues with Columbia professors. Café Social Science recent speakers include: Karen Seelley, Jack Snyder '81GSAS, and Shamus Khan. To join our Café Social Science event distribution list or for more information about Café Social Science, contact us at</p> </div> <p data-bbox="521 1491 1049 1520">〈그림 2〉 Cafe Columbia 홈페이지 소개글</p>

■ 시민문화공간 해외 사례 분석\_ Secret Science Club

구분	내용
단체명	Secret Science Club
단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 149 7th Street, Brooklyn, NY</li> <li>•홈페이지: <a href="http://secretscienceclub.blogspot.com/">http://secretscienceclub.blogspot.com/</a></li> </ul>
프로그램 성격	<p>시민교육, 과학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과 연관된 주제로 유명 과학자들을 초대해 강의를 펼침</li> <li>•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료 강의 시리즈. 한 달에 한번 뉴욕 브루클린의 Bell House에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진행함</li> <li>•지난 강사진 중에는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가 3명이 있으며 최근 1월 18일 강단에 선 인물은 뉴욕대 교수이자 유명 천체물리학자인 David Hogg였음</li> </ul>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자: Dorian Devins(라디오 프로듀서, 91.1 FM 디제이), Margaret Mittelbach(작가), and Michael Crewdson(작가)</li> <li>•참가자들은 입장료를 내는 대신 박수와 술로 보답을 함</li> <li>•참가비는 무료</li> </ul>
대상	일반인
공간	The Bell House, 뉴욕 / 바, 공연장
기타	<div data-bbox="529 1183 1093 1618"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529 1642 1093 1713">〈그림 3〉 고인류학자 William Harcourt-Smith의 Secret Science Club강연</p>

■ 시민문화공간 해외 사례 분석\_ The Public School

구분	내용
단체명	The Public School
단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 155 Freeman Street, Brooklyn, NY (뉴욕본사)</li> <li>•홈페이지: <a href="http://all.thepublicschool.org/">http://all.thepublicschool.org/</a></li> </ul>
프로그램 성격	<p>시민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욕, 베를린, 시카고, 필라델피아, Brussels, Helsinki 등 전세계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공립학교”</li> </ul> <p>&lt;강의 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ll About UFOs (UFO에 관한 모든 것)</li> <li>•Learn VJ Techniques (VJ 테크닉 배우기)</li> <li>•How to Act like an Animal (동물과 같이 행동하는 방법)</li> <li>•People Watching (사람 구경)</li> <li>•Luck (운)</li> <li>•The Economy of Giant-ass Sculptures (미술 시장에서의 거대한 조각상의 경제 가치)</li> </ul>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해진 커리큘럼이 따로 없으며,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강의 주제를 제출하여 제출된 주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The Public School은 그 주제를 가르칠 만한 강사를 찾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시스템</li> <li>•강의료는 프로그램 별로 책정되어 진행됨</li> <li>•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는 무관하며 학위를 제공하지 않음</li> <li>•강의 설립 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민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통해 구체적인 강의 토픽/내용을 제안함.</li> <li>2. 게시판에 제안된 강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시민은 “I’m interested (관심 있어요)” 버튼을 클릭</li> <li>3. 자신이 강의를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민은 “I can teach this (가르칠 수 있어요)” 버튼을 클릭</li> <li>4. 시민들의 관심도,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운영진은 강의 설립을 추진함</li> <li>5. 강의 추진 보고는 게시판 게재글 ‘Class Status’ 란에 표기됨</li> </ol> </li> </ul>

(Proposed/제기, Needs a teacher/교사가 필요함, Scheduling/스케줄 중임, scheduled/스케줄 됨)

**대상** 일반인

**공간** 뉴욕, 베를린, 시카고, 필라델피아, 부르셀즈, 헬싱키 등의 도시에서의 다양한 공간 및 사무실 공간

**기타**

### THE PUBLIC SCHOOL process

〈그림 4〉 The Public School 강의 설립 프로세스

〈그림 5〉 The Public School 강의 제안 게시판

■ 시민문화공간 해외 사례 분석\_ Nerd Nite

구분	내용
단체명	Nerd Nite
단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a href="http://nerdnite.com/">http://nerdnite.com/</a></li> </ul>
프로그램 성격	<p>시민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욕 브루클린의 Galapagos Art Space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강연 시리즈</li> <li>•전문가는 아니지만 각 분야별 오타쿠적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Nerd” 및 아마추어들이 주도하는 강의. 프로페셔널하고 딱딱하기보다는 조금 더 코믹하고 장난스러운 특색을 띠</li> </ul> <p>〈강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he Romantic Psychology of “Twilight” ( “트와일라잇” 의 로맨틱 심리학)</li> <li>•Bad Trips in Travel Literature (여행 문학 속의 나쁜 여행)</li> <li>• “Nonballistic” Methods for Fighting off the Undead. (뱀파이어와 좀비를 물리치는 이성적인 전략들)</li> </ul>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미국 전역의 30여 개의 도시에서 술을 마시며 학습을 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Nerd Nite가 진행되고 있음</li> <li>•강사진을 뽑는 방법 역시 특이함. 강의를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nerd” 는 Nerd Nite의 기획자 Matt Wasowski에게 아이디어를 pitch하여 채택이 됨</li> </ul>
대상	일반인
공간	Galapagos Art Space, 뉴욕
기타	

■ 시민문화공간 해외 사례 분석\_ Moonlighter Presents

구분	내용
단체명	Moonlighter Presents
단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Stephanie DeGooyer, Justin Martin</li> <li>•주소 : 뉴욕, 브록클린</li> <li>•홈페이지: <a href="http://moonlighterpresents.com/">http://moonlighterpresents.com/</a></li> </ul>
프로그램 성격	<p>시민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계 및 미술계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전문성”에 대한 기준 및 이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 및 믿음, 과대특수화에 대한 반응</li> <li>•Moonlighter Presents 강연 시리즈는 개인의 비밀 취미, 열정, 생각, 의견 및 리서치에 대한 공공 프레젠테이션을 장려함</li> <li>•강연자들은 자신의 전문 영역 외의 학문 분야에 대해 깊이만 아마추어적인 지식을 가지고 강의를 함.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훈련, 자격증, 이력, 학력 등을 보유하지는 않았으나, 주제에 대한 광대한 취미적인 연구를 펼친 이들이 주도하는 강연들이 펼쳐짐. 한 세션당 3개의 강의가 진행되며 Stephanie DeGooyer와 Justin Martin에 의해 기획됨</li> </ul> <p>&lt;강의 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hat is Pretentiousness and Does it Make Me Look Good? (강연자: 작가, 뮤지션, &lt;Frieze Magazine&gt; 책임편집장 Dan Fox)</li> <li>•Consistency (강연자: 하버드대, Vassar College 등 미술 교수, 예술가 Tyler Roland)</li> <li>•Making Faces: A Genealogy of the Emoticon (강연자: 콜럼비아대 미술사학 박사학위 수료 중인 Gillian Young)</li> </ul>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욕 브록클린에 근거지를 두고 비전문 및 대중연설의 기술에 전념함</li> <li>•기획자들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벗어난 토픽으로 강연을 하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를 특이한 관점 시점에서 강연</li> <li>•토픽과 테마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강의 형식을 벗어난 독창적인 강의 방법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음</li> <li>•&lt;뉴욕타임즈&gt; 등의 언론으로부터의 좋은 반응 및 후원을 얻음</li> </ul>
대상	일반인
공간	대개의 강의는 Williamsburg에 위치한 장례식장(funeral home)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밖에 소호에 위치한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Greenpoint에 위치한 바(bar), Manhattan에 자리 잡은 기업 오피스 공

PREVIOUSLY ON... SEPTEMBER 23  
JANUARY 15 2012

George Fendle:  
Carpets for Airports  
Sarah Halpern:  
Next Slide Please

Brian Sholis:  
On the Battleship that  
Was Parked for Three  
Years in Union Square

Tyler Rowland:  
Consistency

Dan Fox:  
What is Pretentiousness  
and Does it Make me Look  
Good?

Molly Kleiman & Gillian  
Young:  
Making Faces: A Genealogy  
of the Emoticon

JULY 29

Alexander Nagel:  
Modern Pseudoscrites

Myranda Gilles:  
Cool Waves, Deep Break

Peter Coviello:  
Fighting About Steely  
Dan: Notes on Joy

JUNE 25

Sukjong Hong:  
DoubleVision in Asia

Maegan Magathan: Analog  
Edmonton

Seppie Kuehn:  
Ungentlemanly Behavior

FEBRUARY 20

Anthony Graves: Unpacking  
the Hoodie

Neil Freeman: A Short  
Walk Through Chromatic  
Garden of Graph Theory

Starke Ingels:  
Unsolicited Architecture

JANUARY 29

Justin Armstrong: On  
Everyday Magic and Being  
Lost in Wyoming

Clara Chapin Hess: Bacon,  
Bacon, Bacon: the  
philosopher, the painter,  
and the porcine product.

Daniel Denzir: Breaking  
and Entering Into  
Tradition: The  
Vaudevillains New Years  
Brigade

DECEMBER 11

Sean Tomassi: An Impure  
History of the Gold  
Standard

Cecily Swanson: Of  
Allergies and the Man: A  
(literary) History of Hay  
Fever

Sam Frank: How I (Stole)  
Certain of My Books

OCTOBER 30

Emily Wortzuba: On the  
Inland Sea: The Alberta  
Car Ferry

Ian Balfour: Seven or  
Eight Types of Cover  
Songs, and a Couple of  
Readings

Kate Perkins: on her  
fascination with UFOs and  
the mythologizing of the  
future.

〈그림 6〉 Moonlighter Presents 강연 스케줄

기타



〈그림 7〉 Moonlighter Presents 강연

■ 시민문화공간 해외 사례 분석\_ Proteus Gowanus

구분	내용
<b>프로그램명</b>	Proteus Gowanus
<b>프로그램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Sasha Cavchacadze, PK Ramani</li> <li>•주소 : 543 Union Street, Brooklyn, NY</li> <li>•홈페이지: www.proteusgowanus.org</li> <li>•운영시간: 갤러리(목금 3~6시/토일 12~6시), Study Hall(월~금 10~6시)</li> <li>•조직구조: 창립자/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디렉터, 책임에디터, 에디터. 이사회 멤버(대표, 부대표, 총무)</li> </ul>
<b>프로그램 성격</b>	<p>시민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가, 작가, 타 분야 종사자,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탐구하며 예술가와 비예술가 간의 경계를 없애고 다양한 창조적 행위를 부추김을 목표로 함</li> <li>•다학문적/복합장르적인 갤러리 및 독서실./열람실. 1년 주기의 테마를 중심으로 쇼를 큐레이팅함</li> <li>•Projects-in-Residence/레지던시 프로젝트</li> </ul> <p>Fixers Collective Hall of the Gowanus and Gowanus Archive Morbid Anatomy Library Museum of Matches Observatory Proteotypes Reanimation Library Writhing Society</p> <p>단체 콜레보레이터: Brooklyn Historical Society, Brooklyn Museum Libraries and Archives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테마</li> <li>2011/2012: Migration (이주)</li> <li>2010/11: Paradise (낙원)</li> <li>2009/10: Transport (이동)</li> <li>2008/9: Mend (수리)</li> <li>2007/8: Play (놀이)</li> <li>2006/7: Library (도서관)</li> </ul>

	<p>2005/6: Travel (여행)</p> <p>&lt;프로그램 예시&gt;</p> <p>“The Bureau of Unknown Destinations” : 2011/2012 의 Migration 테마에 따라 레지던시 작가 Sal Randolph가 기획한 3개월간의 여행 프로젝트. 팝업여행사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무료 1일 여행 티켓과 함께 노트 및 작은 미션이 주어짐. 개개인의 이주에 대한 충동을 충족시켜주는 프로젝트</p>
<p>운영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인 전시실 The Proteus Room에서 미술작품, 물품, 유물 및 도서 전시회 개최. 또한 전시실 근방에서 이루어지는 8개의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서에 대한 애정, 폭 넓은 지적 호기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연계를 추구함</li> <li>•Proteus Gowanus의 갤러리 이름은 “Proteus” (프로테우스)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힘을 가졌던 바다의 신의 이름에서 따옴. 변화무쌍함을 상징했던 프로테우스처럼, 갤러리도 자유자재로 새로운 변화를 항상 시도하는 기관</li> </ul>
<p>대상</p>	<p>일반인</p>
<p>공간</p>	<p>브루클린, 뉴욕</p> <p>전자기기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공간을 사용함</p>
<p>기타</p>	<div data-bbox="445 1128 1180 1681" data-label="Image"> </div> <p>&lt;그림 8&gt; Proteus Gowanus 외관</p>



〈그림 9〉 Proteus Gowanus 전시·체험

■ 시민문화공간 해외 사례 분석\_ Brooklyn Brainery

구분	내용
단체명	Brooklyn Brainery
단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Soma, Jen, Kaye, 뉴욕에 거주하는 3인</li> <li>•주소 : 515 Court St, Brooklyn, NY</li> <li>•홈페이지: <a href="http://brooklynbrainery.com/about-us">http://brooklynbrainery.com/about-us</a></li> </ul>
프로그램 성격	<p>시민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cessible, community-driven, crowdsourced education” 커뮤니티가 주도하고 접근성을 최대화한 크라우드 소싱*된 교육을 강조하는 곳 (*크라우드 소싱: 전문가나 아마추어 등 다양한 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이 지닌 기술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 출처: 네이버사전)</li> </ul> <p>〈수업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ekeeping 101 (양봉 101)</li> <li>•Serial Killers! (연쇄살인마들!)</li> <li>•Homemade Marshmallows (집에서 만드는 머시멜로우)</li> <li>•Like a Rock Star: Writing About Music (나도 락가수: 음악에 대한 글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ginning Calligraphy (초급 서예)</li> <li>•The Artist Statement ( ‘작가의 말’ 작성하는 방법)</li> <li>•The Fermented Magic of Kimchi (김치의 발효 마술)</li> <li>•Storytelling 101: How to Tell an Amazing Tale (이야기를 흥미롭게 서술하는 방법)</li> </ul>
<p>운영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스 토티픽은 일반인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코스를 가르치는 강사 또한 전문가이든 취미가(hobbyist)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이 토티픽에 대한 열정, 애정, 그리고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환영</li> <li>•수업 방식, 수업 기간/시간 등은 강사의 자유. 강사료에 대한 2가지 옵션이 있음. 첫 번째는 봉사활동 개념- Brooklyn Brainery의 다른 수업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 강의 무경험자들이 대개 여기에 속함. 두 번째는 시간당 30달러의 강사료. 강사 유경험자들</li> <li>•수업의 성격은 편안하고 재미있으며 토의와 대화가 많이 오가는 형식. 수업에 지각을 해도 꾸중을 하는 사람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li> <li>•운영철학: 지식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한 애정과 정열 그리고 그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욕망 또한 중요시함</li> <li>•설립배경: 고가의 수업료에 질려, “아무 것” 과 “모든 것” 에 대한 저렴한 클래스를 제공하는 Brooklyn Brainery를 설립함. 일명, “book clubs on steroids” (스테로이드를 맞은 북클럽)</li> <li>•참가비: 20~30달러</li> </ul>
<p>대상</p>	<p>일반인, 성인</p>
<p>공간</p>	<p>브루클린, 뉴욕</p>
<p>기타</p>	 <p>〈그림 10 Brooklyn Brainery 외관</p>



〈그림 11 Brooklyn Brainerly 강의실〉

■ 시민문화공간 해외 사례 분석\_ Open City Dialogue

구분	내용
단체명	Open City Dialogue
단체개요	<a href="http://petescandystore.com/open%20city%20dialogue/ocd.html">http://petescandystore.com/open%20city%20dialogue/ocd.html</a>
프로그램 성격	<p>시민교육 〈강연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RTISANAL PENCIL SHARPENING: Re-Acquaint yourself with a lost art w/David Rees (연필 깎기의 기술: 전 정치만화가 David Rees와 함께하는 잊혀진 예술과 다시 만나기)</li> <li>•RUSSIAN TONGUE: The Photographs of Sasha Rudensky (러시아인 혀: 웨즐리안 대학교 미술 부교수 Sasha Rudensky의 사진 작품) **</li> <li>•NOTES FROM JUPITER: Decoding the Toynbee Tiles w/Justin Duerr (목성에서 온 노트: 화가/뮤지션 Justin Duerr와 Toynbee Tiles 해독하기)</li> </ul>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구파이건, 마약중독자이건, 사회적인 인정을 받았건 못 받았건 차별 없이 강연자를 초청하여 한 달에 두 번 강연을 개최함</li> <li>•운영시간: 격주 월요일, 7:30pm, 35~40분</li> </ul>
대상	일반인
공간	Pete's Candy Store(bar), 뉴욕

■ 시민문화공간 해외 사례 분석\_ Home Food

구분	내용
단체명	Home Food
단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홈페이지: <a href="http://www.homefood.it">http://www.homefood.it</a></li> </ul>
프로그램 성격	<p>문화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탈리아 가정과 그들 고유의 요리 스타일을 보존하고 나누는 방식</li> <li>•각 지방 고유의 특색을 나타낸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lt;뉴욕타임즈&gt; 여행 섹션에도 소개되었음</li> <li>•각 지방마다 다른 특색의 맛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요리를 외국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맛의 전통을 이어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li> </ul>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sarina” (작은 카이사르, 즉 주방의 황제)로 불리는 남다른 요리 실력을 갖추고 있는 가정의 요리사들은 트레이닝을 마친 뒤에 점심식사 혹은 디너파티를 자신의 집에서 열어 프로그램 참석자들을 맞이함</li> <li>•일정 멤버십 요금을 지불하면 인터넷을 통해 메뉴를 보고 접수 예약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이고 제대로 된 이탈리아 가정식 요리를 맛볼 수 있음</li> <li>•참가비: 약 30~40유로</li> </ul>
대상	일반인
공간	이탈리아 전역 일반 가정집
기타	<div data-bbox="435 1140 1182 1638"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635 1662 982 1691">〈그림 12〉 Home Food 현장</p>

■ 시민문화공간 해외 사례 분석\_ Pathways

구분	내용
단체명	Pathways
단체개요	•홈페이지: <a href="http://www.pathwaysshrc.com.au/">http://www.pathwaysshrc.com.au/</a>
프로그램 성격	<p>시민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mpowering people to be resilient for life” (삶에 필요한 회복력 역량 강화)를 모토로 내세운 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족 및 성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극복해줄 긍정적인 인생 솔루션을 마련해줌</li> </ul> <p>〈프로그램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n Friends” : 4~7세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를 위해 디자인된 프로그램으로 안정을 취하는 기술, 내 자신과 남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기, 사회적 정서적 스킬,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 되는 방법, 왕따, 왕따 가해자 일진과 맞서는 방법,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과 대응하는 방법, 문제 해결 및 긍정적인 문제 대응 방법 배우기. 부정적 사고방식을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바꾸기 등을 가르침</li> </ul>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등 타 교육기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해줌.</li> <li>•International Partner를 두고 전 세계 20개국에 프로그램을 제공해줌</li> <li>•Clinical 심리치료사 및 Educational 심리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을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클리닉</li> </ul>
대상	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족 및 성인 등의 다양한 연령층
공간	전 세계 다수의 지점
기타	<div data-bbox="496 1113 1093 1622" style="text-align: center;"> </div> <p>〈그림 13〉 Pathways 청소년 프로그램 배너</p>

■ 시민문화공간 해외 사례 분석\_ Conflict Kitchen

구분	내용
단체명	Conflict Kitchen
단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 124 S. Highland Ave, Pittsburgh, Pennsylvania</li> <li>•홈페이지: <a href="http://www.conflictkitchen.org/">http://www.conflictkitchen.org/</a></li> </ul>
프로그램 성격	<p>시민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과 요리의 만남. 특정 나라의 요리를 일정 기간 동안 제공. 미국과 외교/정치적으로 불안정한(conflict)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 및 현실 등에 대해서 탐색함</li> <li>•아프가니스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을 거쳐 차후에는 쿠바 및 북한을 주제로 한다고 함</li> </ul>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시간은 겨울시즌(토일 11:30~2:30), 봄여름가을 시즌(7일 오픈)</li> <li>•아티스트 John Peña, Jon Rubin, and Dawn Weleski에 의해서 2010년에 시작된 프로젝트</li> <li>•요리뿐만 아니라, 세미나, 토크, 공연, 전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도 연계함. 음식을 즐기면서 각종 프로그램 (전시, 공연 관람, 강연, 토크 참여)에 참여를 함. 수익금의 일부는 그 나라에 기부됨</li> <li>•연계 프로그램 예시: 미국 내 시민들과 이란의 젊은이들, 아프가니스탄의 다큐멘터리 필름 작가들, 베네수엘라의 커뮤니티 라디오 운동가들 간의 스카이프(Skype)</li> <li>•포장지에 쌓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테이크아웃, 스트리트 푸드 스타일의 요리. 음식 포장지 내면에는 테마에 대한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 interesting facts, quotes 등이 인쇄 되어 있음</li> </ul>
대상	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족 및 성인 등의 다양한 연령층
공간	피츠버그에 위치한 작은 상점. 6개월 주기로 바뀌는 테마에 따라 공간 외부 디자인이 바뀜
기타	<div data-bbox="596 1275 1105 1634"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582 1654 1119 1726">〈그림 14〉 Conflict Kitchen ‘Skype Dinner’ (피츠버그시-테헤란)</p>



〈그림 15〉 Conflict Kitchen 음식 포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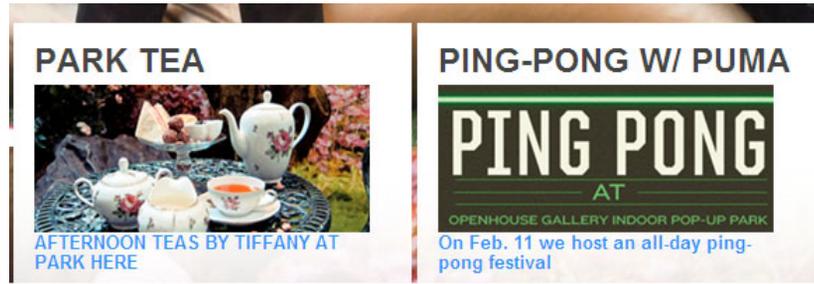
〈그림 16〉 Conflict Kitchen 테이크아웃 음식



〈그림 17〉 Conflict Kitchen 외관

■ 시민문화공간 해외 사례 분석\_ Park Here

구분	내용
단체명	Park Here(Openhouse Gallery)
단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 201 Mulberry St, NY</li> <li>•홈페이지: <a href="http://parkhere.info/">http://parkhere.info/</a> <a href="http://www.openhousegallery.org/pop-up-case-study-openhouse-creates-new-yorks-first-pop-up-park-with-park-here">http://www.openhousegallery.org/pop-up-case-study-openhouse-creates-new-yorks-first-pop-up-park-with-park-here</a></li> </ul>
프로그램 성격	<p>시민문화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door Pop-up Park(실내 팝업 공원). 추운 겨울날, 공원을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500 ft<sup>2</sup> 이벤트 공간을 운영하는 Openhouse Gallery에서 마련한 팝업 공원</li> <li>• “Naps, make-out sessions, totally outrageous kids, Twister, elaborate picnics,” (낮잠, 연인과의 포옹, 천방지축 아이들, 보드게임, 정교한 피크닉)</li> </ul> <p>&lt;프로그램 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화 상영, 피크닉, 퀴즈쇼, 음악 공연, 요가 수업,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푸드 코트에서 식음료 판매 등</li> </ul>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영시간은 2011년 12월 5일~2012년 2월 15일, 12~6시, 주7일</li> <li>•12~6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오픈하고 6시 이후에는 다양한 Private 이벤트를 개최함</li> <li>•무료 인터넷, 폭신한 잔디밭, 아름다운 낙엽, 피크닉 이불, 커다란 빈백(Bean Bag) 의자, 벤치, 비스트로 테이블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시민문화공간</li> <li>•공간 내의 대부분의 장식, 가구, 물품 등은 협찬을 받음</li> <li>•참가비: 무료</li> </ul>
대상	일반인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잔디밭, 호수, 벤치, 가로등, 나무, 놀이터, 피크닉 테이블, 자연의 소리를 재생하는 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최대한 바깥 공간을 실내에 재현하려함</li> <li>•4500 ft<sup>2</sup> 창고(warehouse) 공간을 개조해 만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공간</li> </ul>



〈그림 18〉 Park Here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기타



〈그림 19〉 Park Here의 Private 행사



〈그림 20〉 Park Here 외관



〈그림 21〉 Park Here의 문화예술 공연



〈그림 22〉 Park Here의 벤치에서 커피와 스낵을 즐기는 이용자들



〈그림 23〉 Park Here의 식료품 판매 코너

■ 시민문화공간 국외 사례 분석\_ National Arts Council (싱가포르)

구분	내용
단체명	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국립예술위원회(싱가포르)
단체 개요	•대표자: BensonPuah •주소: 90 Goodman Road, Singapore 439053 •홈페이지: <a href="http://www.nac.gov.sg/fac/fac03.asp">http://www.nac.gov.sg/fac/fac03.asp</a>
조직구조	상→하 및 하→상 구조를 모두 갖춘
주체	National Arts Council,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and Singapore Land Authority, Artists, place makers
추진력	New Framework for Arts Spaces. E.g. Goodman Arts Centre
지역조건	다양성이 있는 동네. 고연령층 인구
공간개념 (성격)	블랙박스 극장, 무용 스튜디오, 미술 스튜디오, 카페, 레스토랑, 공공장소 등을 보유한 아트 스페이스
운영방식	구 국회의사당이 관리하며 중간관리자 역할을 함. 센터 내 공간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사람들이 꾸준히 찾으며, 프로그램들이 지역 주민들과 대중에게 어필을 하도록 함
지속성, 자생성, 잠재성	신설 아트센터로서 아직 근방 지역민들이 접근을 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음
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	현재로써는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아티스트들 개인의 클라이언트와 서클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음. 오픈하우스를 개최함으로써 교차판매와 예술에 대한 노출을 확산시킴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개요	싱가포르 예술축제. 연간 국제 페스티벌이지만, 2010년부터 개최된 Commune: Participation라는 1년간의 프로그램. 새로운 관객, 예술애호가들, 예술 창작가들 및 예술 자원활동가들을 상대로 함. Festival Ambassadors(페스티벌 대사) 프로그램은 예술 봉사활동을 장려함. 예술 봉사활동의 종류는 '기획 및 실행계획', 해외 아티스트들을 위한 연락 담당자, '페스티벌 마을', 전시 호스트, 봉사 공연자, 봉사 사진기사 등이 있음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을 혼합함. 예> 아티

성격	스트 및 교사를 위한 마스터 클래스, 대중을 위한 배움 워크숍, 공공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전시회 등
대상	새로운 관객, 예술을 사랑하는 자들, 예술을 만드는 자들 예술 자원활동가들
운영방식	현재로써는 국립예술위원회에서 후원해주는 페스티벌이 주 사업임. 파트너십 및 콜라보레이션은 학교들과 지역사회에게서 받은 피드백 및 협의를 위주로 시작함. 예) World of Stories 프로젝트: “Our Lost Poems (잃어버린 시들)” 이라는 페스티벌 주제를 바탕으로 12개의 거대한 책을 모형으로 제작함. 12개의 학교가 디자인하고 싱가포르 12개의 도서관에서 2012년 4월~6월에 전시됨
공간	싱가포르 내 다양한 공간들

■ 시민문화공간 국외 사례 분석\_ Shanghai Grand Theatre (SGT)

구분	내용
단체명	Shanghai Grand Theatre (SGT) 상하이 그랜드 씨어터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ZHANG, Zhe/예술디렉터- QIAN, Shijin</li> <li>•연락처: +86 21-6386 8686</li> <li>•주소: Shanghai Grand Theatre/300 Ren Min Dao Da, Shanghai 200002, CHINA</li> <li>•홈페이지: www.shgtheatre.com</li> </ul>
조직구조	<pre> graph TD     President --&gt; GM[General Manager]     President --&gt; AD[Artistic Director]     GM --&gt; VGM1[Vice General Manager 1]     GM --&gt; VGM2[Vice General Manager 2]     VGM1 --&gt; PR[Public Relations Dept.]     VGM1 --&gt; MS[Marketing &amp; Sales Dept.]     VGM1 --&gt; CS[Customer Service Dept.]     VGM2 --&gt; PRG[Programming Dept.]     VGM2 --&gt; AED[Arts Education Dept.]     VGM2 --&gt; TECH[Technical Dept.]     AD --&gt; AO[Administrative Office]     AD --&gt; FIN[Financial Dept.]     AD --&gt; SAO[State-owned Assets Administration Office]     AD --&gt; PMD[Property Management Dept.] </pre>
주체	아티스트, 에이전트, 관객, 자원활동가 등

<b>추진력</b>	아트 클래스 - 극장에서 주로 개최되는 교육 시리즈. 저렴한 가격의 콘서트 및 강연
<b>지역조건</b>	상하이 중심부에 자리잡은 People's Square. 관광객이 몰리는 투어리스트 스팟. 근방에 상하이미술관 및 어반 플래닝 홀이 있으며 커머셜 지역과 거주지역이 함께 있음
<b>공간개념 (성격)</b>	제각기 규모가 다른 3곳의 극장
<b>운영방식</b>	내부 자금 및 외부 후원/협찬 (정부 지원 및 티켓 판매 수익) 대표, 아트디렉터, 총괄매니저들이 결정권을 보유. 2명의 부총괄매니저, 마케팅/기획 부장이 프로젝트를 책임짐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상하이 내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 공연자들과 보다 더 창의적으로 일하기를 지향함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덕분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활발함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b>구분</b>	<b>내용</b>
<b>프로그램 개요</b>	아트 클래스 - 극장에서 주로 개최되는 교육 시리즈. 저렴한 가격의 콘서트 및 강연
<b>프로그램 성격</b>	미술 교육
<b>대상</b>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b>운영방식</b>	내부 오퍼레이션 펀딩 및 외부 협찬 후원
<b>공간</b>	연극 극장(600좌석)

■ 시민문화공간 국외 사례 분석\_ Shanghai Concert Hall (SCH)

구분	내용
단체명	Shanghai Concert Hall (SCH) 상하이 콘서트 홀
단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자: ZHANG, Zhe</li> <li>•연락처: +86-21-63862836</li> <li>•주소: 523Yan'an Rd(E),Shanghai, PRC</li> <li>•홈페이지: www.shanghaiconcerthall.org</li> </ul>
조직구조	대표 - ZHANG, Zhe 부매니저 - FANG, Liang
주체	아티스트, 에이전트, 관객, 자원활동가 등
추진력	모두를 위한 음악: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확장 이벤트 시리즈
지역조건	상하이 중심부에 자리 잡은 People's Square. 관광객이 몰리는 투어리스트 스팟. 근방에 상하이 미술관 및 어반 플래닝 홀이 있으며 상업지구 및 거주지역 근방
공간개념 (성격)	원래는 1930년에 오픈한 난징 극장. 1200좌석을 보유한 중국 최초의 콘서트홀이었음
운영방식	내부 자금(정부 지원 및 티켓 판매 수입)
지속성, 자생성, 잠재성	2010년, Wiener Konzerthaus와 협약을 맺어 프로그램 기획, 직원 교류, 젊은 음악가 후원 등에 관한 협업을 강화시키기로 함
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덕분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활발함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개요	모두를 위한 음악 -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확장 이벤트 시리즈
프로그램 성격	<p>음악 교육 프로그램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뮤직 오후 티타임: 미니 콘서트. 무료 커피 및 차 제공. 12.00-13.00 사이 오직 RMB10 에서 이루어짐. 젊은 음악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해주고 지</li> </ul>

	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 •콘서트 전 토크, 30분간 콘서트 공연 아티스트에 의해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티켓 소지자들은 무료입장. 관객과 뮤지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기획됨
대상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운영방식	내부 자금 및 외부 협찬/후원 프로젝트 매니저가 총괄 기획을 맡음
공간	메인 콘서트홀은 1243개의 좌석을 보유함

■ 시민문화공간 국외 사례 분석\_ Rockbund Art Museum (RAM)

구분	내용
단체명	Rockbund Art Museum (RAM) 록번드 미술관
단체 개요	•연락처: +86 21-3310 9985 •주소: Rockbund Art Museum 20 Huqiu Road, Huangpu District, Shanghai 200002, CHINA •홈페이지: <a href="http://www.rockbundartmuseum.org">www.rockbundartmuseum.org</a>
조직구조	디렉터: Larys Frogier 록번드 미술관 자문위원회 부서 (전시, 교육, 마케팅 등)
주체	아티스트(큐레이터, 영화감독 등), 관객, 자원봉사자 등
추진력	록번드미술관에서의 밤 -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장르의 예술에 관한 토크, 워크숍, 스크리닝
지역조건	상하이의 유래 깊은 번드라는 마을 근처에 위치함. 역사적인 빌딩, 상업지구 및 거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음
공간개념 (성격)	1층: 입구 및 리셉션 2층~6층: 갤러리 6층: 카페

	FLOOR	SPACE	AREA	HEIGHT
	1F	Entrance & Reception	187 sqm	3.4 m
	2F	Exhibition Gallery	228 sqm	4.7 m
	3F	Exhibition Gallery	228 sqm	3.4 m
	4F	Exhibition Gallery	228 sqm	3.4 m
	5F	Exhibition Gallery	150 sqm	2.7 m
	6F	RAM Café	150 sqm	
Total Building Area:2400sqm				
<b>운영방식</b>	내부 자금 및 외부 후원 협찬 이사회 멤버들을 자문 위원회의 조언을 받으며 의사 결정을 함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지속적으로 새로운 테마를 발견 발전시킴. 예를 들어, 독립영화의 감상/인정, 큐레이터/아티스트들과의 가까운 협업 등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각 이벤트 당 약 80~100명의 참가자들이 있음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b>프로그램 개요</b>	Night @RAM - community educational initiative featuring talks, workshops, screenings of different arts categories
<b>프로그램 성격</b>	문화예술교육
<b>대상</b>	예술, 문화 그리고 인생을 사랑하는 이들
<b>운영방식</b>	내부 자금 & 외부 후원 협찬 프로젝트 매니저가 총괄 기획을 함
<b>공간</b>	스크린, 프로젝터, 마이크 등을 갖추고 있으며 100좌석을 보유

■ 시민문화공간 국외 사례 분석\_ Volkshoschule(VHS)

구분	내용
단체명	독일 시민대학/커뮤니티 대학(Volkshoschule)
주체	대부분 지자체나 등록된 공공목적의 비영단체, 비영리 법인 mbH, 목적단체와 같은 지역 존재. 모든 주마다 커뮤니티대학 협회가 있어서 지역 차원이나 주 차원에서 실행되고 지역 내에서 개별 커뮤니티 대학이 연계하여 협업한 사항들이 검토되고 규칙을 정함 독일 커뮤니티대학 협회 회원
추진력	-광역지역(주, 도)의 지원금 -자치지역(시, 군)의 지원금 -연합지역의 보조금 -참여자 지불의 수입 -기부금 -제3재원(예컨대 연방정부, 노동 관련 연방대표기구(고용청), 유럽 사회기금(펀드)에서 제공되는 프로젝트지원, 시구청(지구정부)에서 지원하는 촉진금)
지역조건	지역의 평생교육 중심처. 커뮤니티대학은 과정/코스, 개별 행사, 합동세미나, 스터디투어와 학습여행을 제공하며, '주문에 따른 교육' 처럼 기업이나 사내 과정 같은 형식
운영방식	인터넷-학습포탈 '나는 배울 것이다' (ich-will-lernen.de)를 사용자들에게 무료 제공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개요	VHS의 선구적 형태: 19세기 말의 “대학확장운동”, 공개 강의 시스템, 노조의 교육협회, 수공기술자(장인)들의 교육협회. 최초의 VHS로 1879년부터 시작된 “훔볼트 아카데미” 훔볼트 아카데미: 제도 안의 학문적 성과를 대중적 형식인 강의를 빌어 학교제도를 통하지 않고 학습된 시민을 양성함 성인교육: 생애 전주기 학습의 조직 형태.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공동체 변화는 미래에 VHS가 어떤 의미를 지닐지 보여줌. 최초의 VHS가 지닌 몇몇 아이디어는 현재 시민대학(Volks-Uni)의 콘셉트
프로그램 성격	문화예술교육

<p><b>대상</b></p>	<p>1주에서 15주 사이의 상이한 기간의 학습과정  일반적으로 16세 이상의 모든 전 연령 대상  직장인들의 필요에 따라 조정된 코스 개설  실업자, 가정주부(남녀), 은퇴자, 연금수령자들의 사정에 맞춰 진행  목표 그룹의 사정이나 공간 사정에 따라 오전, 저녁반이 구성  주말 집중반 구성  취업자 심화교육법에 따라 교육 휴가를 받는 이들  스터디투어와 야외학습을 실행(회사, 협회, 단체, 개인에게 위임받아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실시)</p>
<p><b>운영방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치/사회/환경</li> <li>-노동과 직업/IT</li> <li>-언어(문맹자들을 위한 기초, 이민자들을 위한 독일어, 외국어)</li> <li>-IT</li> <li>-건강교육</li> <li>-문화와 조형</li> <li>-졸업증(예컨대 직업학교졸업증, 중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졸업)</li> <li>-학습투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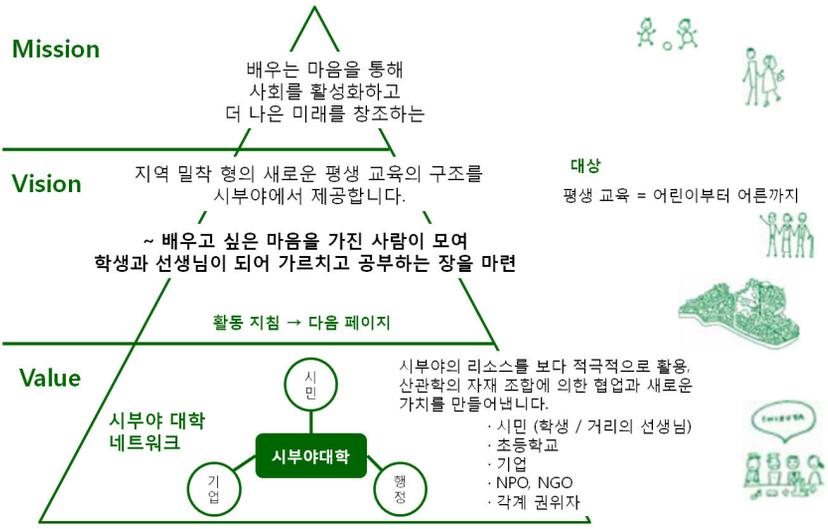
■ 시민문화공간 국외 사례 분석\_ 독일 우파 파블릭

구분	내용
<p><b>단체명</b></p>	<p>우파 파블릭(UFA Fabrik)</p>
<p><b>단체 개요</b></p>	<p>1979년 유니베르쥬영화사(Universum Film Aktien Gesellschaft, UFA)의 촬영소를 개조하여 조성하였다. 30년 전에 예술인들이 모여 마을을 세우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기반하면서도 문화적인 삶의 방식을 일구어가는 생태문화공동체를 만들었다. 7개 동의 건물, 18566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하였다. 스스로 문화오아시스(CULTURAL OASIS)라고 부르고 예술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예술가 공동체이다.</p>
<p><b>조직구조</b></p>	<p>30명의 거주자와 160명의 협력자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p>
<p><b>추진력</b></p>	<p>NUZE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센터로 가족지원서비스, 상담과 갈등중재, 지역커뮤니티의 활력과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위한 축제나 정기적인 활동 등을 기획하고 있다.  기술학교에서는 적정기술 및 생태건축과 연관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유학교(die Freie Schule)에서는 생태적 삶의 방식 및 유기농에 대한 어린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p>

<b>지역조건</b>	독일의 베를린 남쪽 시내 중심가 포츠담 템펠호프에 위치
<b>공간개념 (성격)</b>	국제문화센터(International culture center)에서는 세계적 예술가 축제, 센터 내 프로덕션, 코미디, 댄스, 월드뮤직, 아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연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180석, 300석의 공간과 야외에 400석 규모의 공간이 있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다녀가게 되는데, 국제교류로 온 방문객들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작업한다. 우파 파브릭 유기농 상점, 카페(Das Cafe Ole), 이웃-자가 도우미센터인 NUSZ 등을 운영하고 있으면 유기농 빵집이다.
<b>운영방식</b>	태양열과 같은 대체에너지 시스템, 천연 재료를 활용한 생태 건축, 자연 발효 화장실, 태양열 목욕탕, 수초를 이용한 폐수 정화 시스템, 쓰레기 재활용, 빗물을 활용한 식수 시스템, 옥상정원 등 생태철학과 적정기술에 기반해서 공간을 창조했다. 예술가 공동체인면서 생태적 삶의 방식을 결합하여 삶과 떨어진 예술을 벗어나 생태적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생태적 문화예술 공동체를 만들었다.
<b>지속성 자생성 잠재성</b>	NUZE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센터로 가족지원서비스, 상담과 갈등중재, 지역커뮤니티의 활력과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위한 축제나 정기적인 활동 등을 기획하고 있다.
<b>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b>	기술학교에서는 적정기술 및 생태건축과 연관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유학교(die Freie Schule)에서는 생태적 삶의 방식 및 유기농에 대한 어린이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 시민문화공간 국외 사례 분석\_ 시부야 대학

구분	내용
<b>단체명</b>	시부야 대학
<b>조직구조</b>	이토 다케시(시부야 대학 발기인) 사쿄 야스아키 (시부야 대학 학장)
<b>주체</b>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b>추진력</b>	룩번드미술관에서의 밤 -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장르의 예술에 관한 토크, 워크숍, 스크리닝. **룩번드와 겹침
<b>지역조건</b>	시부야의 자원, 생태계 지향. 사람이나 건물 등 거기에 있는 모든 요소를 교육에 사용

<p>운영방식</p>	<p>수업료 없음. 다양한 서비스 지원하는 작은 자회사들 경영. 지역협의회나 기업들의 기부와 후원금으로 운영</p> <p><b>시부야대학</b></p> <p><b>시부야 대학 소개 - 목표로하는 곳</b></p> <p><b>Mission</b> 배우는 마음을 통해 사회를 활성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p> <p><b>Vision</b> 지역 밀착 형의 새로운 평생 교육의 구조를 시부야에서 제공합니다. ~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여 학생과 선생님이 되어 가르치고 공부하는 장을 마련 활동 지침 → 다음 페이지</p> <p><b>Value</b> 시부야 대학 네트워크</p> <p>시부야의 리소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산관학의 자재 조합에 의한 협업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학생 / 거리의 선생님)</li> <li>· 초등학교</li> <li>· 기업</li> <li>· NPO, NGO</li> <li>· 각계 권위자</li> </ul> <p>대상 평생 교육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p> 
<p>지속성, 자생성, 잠재성</p>	<p>다양한 형태로 지역 밀착형의 평생 교육의 구조를 구축</p>
<p>커뮤니티와 연계, 밀도성</p>	<p>시부야 대학과 같은 지역대학들 일본 전역으로 확산, 설립 추진 중</p>
<p>기타</p>	



〈그림 24〉 시부야 대학 네트워크 프로그램 진행 모습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개요	새로운 지역사회 형성. 지역밀착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격	역동적, 자발적인 교육. 생태계 지향
대상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운영방식	작은 자회사들 경영. 지역협의회와 기업의 기부 및 후원금
공간	시부야 대학캠퍼스, 연구소(실험실)

■ 시민문화공간 국외 사례 분석\_ The School Of Life (프랑스)

구분	내용
단체명	The School Of Life
단체 개요	•홈페이지: <a href="http://www.the.school.of.life.com">www.the.school.of.life.com</a>
조직구조	Alain de Botton과 Tate Modern의 큐레이터였던 Sophie Howarth, 그리고 많은 작가와 예술가, 교육자들과의 협업에 의해 설립 직원: Morgwn Rimel(director)과 Harriet Warden, Caroline Brimmer, Angharad Davies 등

	철학자: Mark Vernon, Robert Rowland Smith, Nigel Warburton 작가: Tom Hodgkinson, Charles Fernyhough, Catherine Blyth, Rebecca Abrams 프로젝트 담당자: Alain de Botton, 사진작가 Martin Parr, 심리치료사 Brett Kahr, 기자인 Rosie Boycott, 발행인 Patrick Walsh, Toby Mundy, Simon Prosser
--	--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b>프로그램 개요</b>	How To Thrive in the Digital Age (디지털시대를 즐기는 법) How To Be More Confident (더 자신감을 가지는 방법) How Necessary Is A Relationship (관계의 필요) How To Balance Work With Life (생활의 균형을 잡는 법) How To Be A Better Friend (좋은 친구가 되는 법) How To Be Cool (쿨해지는 법) How To Enjoy Your Body (몸으로 즐기는 방법) How To Enjoy Your Family (가족과 즐기는 방법) How To Face Death (죽음에 직면하는 방법) How To Fill The God-shaped Hole (The God-shaped Hole을 채우는 법) How To Find A Job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직업을 찾는 법) How To Have Better Conversations (대화를 더 잘하는 법) How To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드는 법) How to Make Love Last (마지막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법) How To Realise Your Potential (당신의 잠재력을 깨닫는 법) How To Spend Time Alone (혼자 시간을 보내는 방법) How To Stay Calm (침착해지는 법) How To Worry Less About Money (돈에 대해 덜 걱정하는 방법) New Year Intensive at The School of Life (The School of Life의 새해 집중법)
<b>프로그램 내용</b>	저녁클래스, 워크숍 : 인생의 큰 주제를 중심, 유용한 통찰력 제공. 관계 개선하는 방법 모색 어떤 이의 일하는 삶에 더 만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거나, 심지어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살지를 탐구 최고의 작가, 예술가, 배우와 학자 등이 참가자들에게 삶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법을 재미있고 지적으로 해석해줌

■ 시민문화공간 국외 사례 분석\_ 카페 슬로

구분	내용
단체명	cafe slow
조직구조	대표 : 요시오카 아츠시
공간개념 (성격)	공간은 단열 효율이 높은 구조토와 벚짚을 사용함. 공간 설치시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밖에는 작은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 그 전력으로 등불을 켜
운영방식	<p>- 총 7가지 슬로카페 선언 :</p> <p>오가닉 카페 : 친환경, 유기농 보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고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p> <p>공정무역 가게 :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 남과 북,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공정을 지향</p> <p>슬로 푸드 :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사용, 직접 만드는 요리를 천천히 즐김</p> <p>슬로 머니 : 지역 대안통화 활용해 공정하고 활기찬 지역경제권 만들기 지향</p> <p>인포메이션 카페 : 환경, 남북 문제를 비롯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정보 교류, 표현하는 장</p> <p>슬로 비즈니스 :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에 복원시키는 것을 지향</p> <p>슬로 디자인 :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더 천천히 친환경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마음이 풍요로운 생활문화 제안</p> <p>- 슬로무브먼트 : 1995년부터 시작됨. 일본 전역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슬로무브먼트의 일환인 카페 슬로의 철학과 원칙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실제 컨설팅에 앞장서고 있음</p>
기타	<div data-bbox="568 1305 1086 1697"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639 1716 1015 1746">〈그림 25〉 카페 슬로 식료품점</p>



〈그림 26〉 카페 슬로 공연

–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뮤지션 공연 : 50여 명의 뮤지션들이 카페슬로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매주 금, 토 공연이 이루어짐</li> <li>- 어둠의 카페 : 캔들나이트, 매주 금요일 저녁 전기를 끄고, CD를 사용하지 않고 바이올린, 기타, 피아노를 라이브로 연주</li> <li>- 요가 프로그램 : 카페 슬로 2층에서 운영</li> <li>-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도쿄 중심의 생활을 그만두자는 생각으로 지역의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심화됨, 에너지를 더욱 적게 쓰고,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 고민</li> <li>- 마차 운영 : 8대의 마차 시범 운영, 자동차가 아닌 마차를 이용함으로써 자기가 사는 지역, 커뮤니티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음</li> </ul>

■ 시민문화공간 국외 사례 분석\_ 인생보조 (독일)

구분	내용
단체명	인생보조(Lebenshilfe)
단체 개요	1958년 처음 설립. 정신지체 장애인 또한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 프라이부르크 인생보조의 경우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아이

	<p>들이 자라나면서, 1987년부터는 성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고 현재 프라이부르크 인생보조는 (2008년 9월 현재) 382명의 회원이 가입. 인생보조의 목표는 정신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앰블런스가 되는 것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위해 시설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평범한 환경에 살면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인생보조가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p>
<b>조직구조</b>	<p>장애인은 650명 정도. 450명의 명예 봉사요원(무보수로 교육도움)있다.</p>
<b>추진력</b>	<p>가족 지원사업. 정신지체 장애인의 가족이 집을 비운다거나 기타 이유로 요청할 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보아 준다. 여가 시간을 위한 활동. 자유 시간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그룹 단위, 혹은 수업을 통해 배운다. 요리, 테니스, 어린이를 위한 서커스, 청소년을 위한 등산, 춤 등 다양하다. 편안한 거주를 위한 도움.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한 상담과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수교육과 테라피. 정규 교육과정에 뒤처지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제공한다. 유치원 운영.</p> <p>1985년부터 여행 강좌. 1년 40회 정도 여행 신청자를 받아서 떠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쉬운 용어만 써서 여행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그리기는 과정을 붓을 직접 잡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보조자들이 붓을 들고 함께 그린다. 노래 강좌는 국경 없는 노래하기로 전 세계의 노래를 부른다. 아시아 국가들의 노래까지도. 노래만 하지 않고, 율동도 곁들여 지루하지 않도록 한다. 왈츠나 탱고 등 수위가 높은 춤도 시도한다.</p> <p>탈을 만드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위한 탈을 쓰고 연극 공연을 하는 것까지 진행한다. 연극에 관심 있는 장애인의 경우 유명한 연극제(드레스덴에 있는 극장)에 방문해서 구경하는 등 연계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있다.</p>
<b>지역조건</b>	<p>정신 지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남들처럼 유치원을 가야하고, 학교를 끝내면 직업을 가져야한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이 단체를 만들었다. 정신 자체 아동을 위한 인생보조. 독일 전역에 인생보조가 있다. 처음 개설된 것은 마부르크 도시에서 처음 생기면서, 부모들이 일종의 행동 지침을 만들었다.</p>

■ 시민문화공간 해외 사례 분석\_ Idea Store (영국)

구분	내용
단체명	Idea store(영국)
단체 개요	<p>1958년 처음 설립. 정신지체 장애인 또한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 프라이부르크 인생보조의 경우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1987년부터는 성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고 현재 프라이부르크 인생보조는 (2008년 9월 현재)382명의 회원이 가입. 인생보조의 목표는 정신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앰블런스가 되는 것. 장애가 심한 사람들을 위해 시설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평범한 환경에 살면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인생보조가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p>
프로그램 내용	<p><b>White Chapel Road</b></p> <p>실질적인 일상생활의 커뮤니티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도서관을 옮기면서 다수의 이민자 집단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다가가기 위한 현실적인 프로그램과 운영방침이 고려되었다.</p> <p>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기존의 도서관에 주로 교육, 카페 및 인터넷 접근성이 강화되었으며, 운영 시간이 주말과 밤 시간을 포함하여 대폭 늘어났다. 왕래가 빈번한 벽면으로는 인터넷, CD(DVD)서가와 이용 공간을 배치하여 외부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특히 길거리 시장에 면한 남쪽으로는 초기에 계획된 일반 점포 대신 잘 갖추어진 놀이 시설 같은 어린이 도서관을 배치하여 시장에 온 가족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p> <p>다양한 계층의 생활 속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 프로그램 수용하고 있다.</p> <p>-job training, job counselling, lifetime education, computing, children's programme, local ethnic culture, health, religious activities, community activities</p>
추진력	<p>아이디어 스토어의 전략 특성은 평생 교육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다양성과 차이에 주목한 지역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고려, 파트너십, 물리적인 장소의 개선에 있다. 아이디어 스토어가 추진되던 2002년 당시, 인구 19만 명의 타워 햄릿에는 7개의 풀타임 도서관, 5개의 파트타임 도서관, 6개소의 성인교육센터가 있었고, 이동도서관, 방문(outreach) 도서관 등 40개에 달하는 소규모 방문 기구 등 이미 다양한 주민교육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p> <p>그러나 도서관의 충분한 양적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감소하는 도서관 이용률, 영국 전체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 수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타워 햄릿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 안에 인구의</p>

절반을 차지하는 소수 이민자 커뮤니티와 저소득층(저소득층의 대다수도 이민자 커뮤니티였다)을 재교육과 최신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이용자 대상으로 설정하고, 도서관에 대한 요구 사항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는데, 특히 여러 가지 일반적인 개선 요구사항들과 함께 도서관이 ‘쇼핑’ 과 접목되기를 바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다. 이것을 계기로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쇼핑 장소, 특히 소수 이민자 커뮤니티가 모이는 길거리 시장들이나 대형 슈퍼마켓이 위치한 곳에 도서관을 개발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쇼핑’ 장소에 주목하는 것은 재정 측면에서 지역 자치구가 도서관을 보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파트너십을 이끌어낸다. 런던에서 지역 사업의 대부분은 GLA(Greater London Authority)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도서관의 재생 사업에 드는 많은 비용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참여시키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지역 자본과 연계시켜 투자비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자 지역 파트너십이 결성된다.

커뮤니티를 위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아이디어 스토어는 도서관들을 길거리 시장이나 슈퍼마켓 등 쇼핑 장소에 접속시킴으로써 도서관이 주목하는 이용자들이 주목하여 커뮤니티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이다. 쇼핑과 교육이라는 행위, 시장과 도서관이라는 장소의 연계는 일반적으로 도서관 입지에서 중요한 결정 요소인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모이고 머무는 커뮤니티 장소라는 실제적 접근성에 주목한 것이다.

**지역조건**

1990년대 말 이후 변화한 영국의 공공정책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사회적·도시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들이 보인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질적인 삶의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에 속해 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대의로부터 출발하여 현재 지역 커뮤니티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커뮤니티를 끌어안고 공존시키는 것을 지역 재개발의 중요한 지향점으로 내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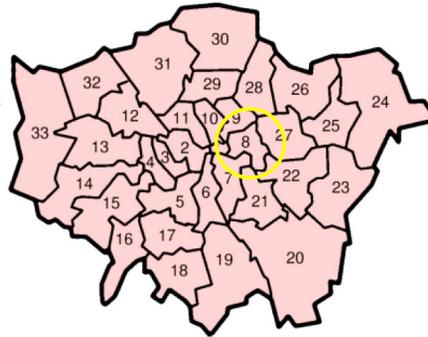
공공 서비스, 특히 공공 도서관은 커뮤니티 센터로써 소통의 장소가 되기를 요구하며, 평생 교육이라는 것이 그 프로그램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특히 타워 햄릿의 지역 개발 전략에서 공공 도서관은 재생과 평생 교육, 커뮤니티 재생의 실현을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프로그램과 열악한 건물 환경이 이용자들에게 외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공공시설로써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포함한 커뮤니티를 아우르기 위해 전략적 네트워크로 적용되기에 이름이다.(타워 햄릿의 지역 개발 전략, Tower Hamlets, 1999)

영국 33개 지자체 중 이민자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East London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2004년 발표된 런던 빈곤지수에 의하면 타워햄릿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수준의 빈곤계층이 가장 많은 자치구 Borough(58.4%)로 조사되었다. 특히 48%에 달하는 이민자 소집단들이 집중된 곳이다. 높은 실업률, 낮은 교육 수준과 부족한 기술 습득 기회 등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특히 실업률은 방글라데시인들과 소수 이민자 커뮤니티들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 거주자 1/3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며 Public Library를 통한 커뮤니티 문제해결에 관심이 많다.

8. Tower Hamlet

- 1. City of London
- 2. City of Westminster
- 3. Kensington and Chelsea
- 4. Hammersmith and Fulham
- 5. Wandsworth
- 6. Lambeth
- 7. Southwark
- 8. Tower Hamlets
- 9. Hackney
- 10. Islington
- 11. Camden
- 12. Brent
- 13. Ealing
- 14. Hounslow
- 15. Richmond
- 16. Kingston
- 17. Merton



- 18. Sutton
- 19. Croydon
- 20. Bromley
- 21. Lewisham
- 22. Greenwich
- 23. Bexley
- 24. Havering
- 25. Barking and Dagenham
- 26. Redbridge
- 27. Newham
- 28. Waltham Forest
- 29. Haringey
- 30. Enfield
- 31. Barnet
- 32. Harrow
- 33. Hillingdon

기타



〈그림 27〉 Idea Store\_‘Crisp Street’  
‘White Chapel’



〈그림 28〉 Idea Store 내부 모습



〈그림 29〉 Idea Store 내부 모습



〈그림 30〉 Idea Store 외부 모습

---

## 별첨자료 2 연구진(컨설턴트) 회의록 정리

---

### ① 1차 컨설턴트 회의

- 일정 : 2012년 1월 20일 / 13:00~17:00
- 장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 참석자: 이채관, 이광준, 정형탁, 임정희, 한영미, 김재순, 김정연, 김혜란, 최미영
- 주요 내용 : 사업 공유/시민문화공간의 개념정리 및 공유/업무 분장/일정 공유
- 추진 방향 : 시민 주체의 지역공동체(생활권)에서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좋은 사례를 찾아 실행 전략을 분석하여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도출

- ▶ 시민문화예술교육과 공간을 연결한 시민문화공간 사업 정책 목표 도출
- ▶ 시민문화공간 사업의 추진에 관한 실행 전략 개발
- ▶ 시민문화공간 사업의 공모/선정기준/평가의 기초가 될 사례 발굴
- ▶ 2개의 사례에 대한 집중 분석 및 컨설팅

이광준: 기존의 사업과 다르게 생활권 내에서 시민문화예술교육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정책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의 프로세스도 고민해야 한다. 생활권 단위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교육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공간개발이 핵심목표이다. 연구라기보다 기간 내에 실행전략을 도출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례를 분석해 어떻게 정책을 시행 할 지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문화예술교육 사업에 해당되는 2개의 사례를 집중 분석 후,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3단계로 구성해 첫 번째는 와우책문화예술센터에서 2개의 대상을 정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두 번째는 전략개발로서 시민문화예술교육의 공간 사례를 지역의 조건과 인적 자원, 지자체의 행정적 태도, 재원의 성격 등으로 사전 분석, 세 번째는 현장 컨설팅, 주체별 그룹인터뷰 진행하고 최종 간담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채관: 지원 단체에 대한 컨설팅은 현재 시민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컨설팅 할 곳)가 가진 난점과 필요한 점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임정희: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욕구가 어느 수준이 되는지 개별화해야 한다. 문화의 특성이 개별적이기도 하고 중심적이지 않은 것이 있는데 사회 영역에서는 질이 균일화 되어 있어 문제 봉착 시 스스로 뚫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로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전략을 분산화 혹은 복합화 할 필요가 있다.

이영범: 시민문화예술교육의 공간 사례에서 보면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기회, 공간적 기반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또 다른 예술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주체가 규정될 수 있고 지역의 사회적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지역공동체가 아닌 열려있는 공간인데, 거기서 시민이나 주체자 등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므로 사례조사를 통해 필요한 점 등을 찾아내 지원 정책으로 만들어야한다.

## ② 2차 컨설턴트 회의

- 일정 : 2012년 1월 27일 / 13:00~20:00
- 장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 참석자: 이채관, 이광준, 정형탁, 임정희, 한영미, 김재순, 김정연, 김혜란
- 주요 내용 : 시민문화공간 개념 확정/분석방법/유형화 방법/컨설팅 방식
- 추진 방향 : 시민문화예술교육의 컨설팅 분석틀 및 분석유형 설정  
공간성격(공유공간, 공공 공간 등)/ 추진력(교육운동, 시민운동 등) / 지역조건(공간환경, 연령대, 생산 활동 등) / 지속성, 자생성 / 프로그램성격(문화교육, 예술교육, 시민교육 등) / 운영방식(의사결정, 재원구성 등) / 주체(주민주체, 문화생산자 매개 등) / 커뮤니티관계 밀도(커뮤니티 참여 범위 등)
- 컨설팅 사례 진행 사항 : 국외(보고서 작성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최대한 국외 사례를 찾아 정리 후, 국외 특파원을 통해 집중 사례 조사), 국내(1차 조사 후, 그 내용을 토대로 분류에 맞게 사례 선택한 후 추가 조사 및 FGI 진행) 사례



### ③~④ 시민문화공간 그룹인터뷰

(※ 자세한 내용은 Ⅲ-5 시민문화공간 그룹인터뷰 결과 참조)

- 일정 : 2012년 2월 8일, 10일 / 09:40~18:00
- 장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 참석자: 이채관, 이광준, 이영범, 정형탁, 임정희, 한영미, 김정연, 김혜란, 최미영
- 주요 내용 : 시민문화공간 FGI 인터뷰(슬로비, 북소사이어티, 카페 작은 나무, 인디고, 민중의 집, 가제트공방, 빈집, 맹산생태학습원, 느티나무 도서관, 일상예술창작센터, 공용,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민간위탁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위주, 방과 후 예술교육, 소외계층, 노인, 장애인, 군인 쪽으로 해왔으나 7년째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생활권의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교육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정대상이 아닌 다양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변화가 필요한데 문화적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거나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발적이고 문화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없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미 오랫동안 노력해오셨으니 적극적으로 결합될 부분이나, 고려될 부분 등 현장의 문제를 답해주시면 된다.

### ⑤ 3차 컨설턴트 회의

- 일정 : 2012년 2월 22일 / 01:00~20:00
- 장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2층
- 참석자: 이채관, 이광준, 이영범, 정형탁, 임정희, 한영미, 김정연, 김혜란, 최미영
- 주요 내용 : 시민문화공간 전략개발 사례 조사를 토대로 정리 및 추진 전략 제언

임정희: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서 시민문화공간에 대해 정리해보면 원래 시민문화공간의 전략개발은 시민이라는 주체, 시민문화라는 문화환경 그리고 환경과 주체가 어떻게 관계 맺는지 관계망 맺기의 조직을 시스템화 할 때 문화가 발생하므로 세 가지 층위로 보았다. 그리고 조직에는 프로그램과 조직이 들어가고, 공간이라고 하면 가시적인 하드웨어 환경, 심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문화공간의 전략개발의 목표는 사실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것이다. 매니지먼트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자원으로 이해되지 못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자원으로 이해하고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외사례

를 바탕으로 인지화 시켜주는 것이 연구목적이라고 본다.

문화적 자원, 공동체의 진화는 문화예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문화적 자원으로 보는 것이 창의성과 상상력, 살기위해서 조직해온 창의적인 부분들이 문화의 기본자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조직 안에서 스스로 조직되면서 훈련 되겠지만 이전 같은 방식의 학습이라든가 뚜렷한 능률위주의 교육방식으로는 안 된다.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키우는 것으로는 자생적이기도 하고 생활과 엮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영범: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전략 개발을 정리 해보면 기존의 지원으로 한 것을 새로운 틀에 놓고 보면 프로그램 지원이 창의적 개발이고 자원발굴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프로그램 지원에 창의적 개발과 자원 발굴 2개의 영역으로 보고, 컨설팅 지원은 그대로 두고 자발적 관계망 형성이나 활성화 단계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공간지원 활성화는 공간지원이 아니라 활성화 지원인 것이다. 또한, 전문가 지원은 굳이 필요 없고 컨설팅이나 네트워킹 지원의 형태로 바꾸면 어떨까 싶다. 컨설팅지원에는 관계망(네트워킹) 형성하는데 컨설팅이 들어간다고 하면 용어를 같이 접목시켜 지원하면 4가지 형태의 대표 지원 정책으로 정리될 것 같다.

---

# 참고문헌

---

## 참고

### 1. 보고서

이대영. (2010). 『2010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컨설팅』.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2.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2009).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 3. 보고서

정갑영(2010).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시민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4. 보고서

김주호(2007). 『문화예술교육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사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다름으로부터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